

Jeonbuk State Institute

기초연구

2024-01

전북특별자치도 재정효율성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Fiscal Management Efficiency in Jeonbuk State

정은천 이종섭 전아람 최지훈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이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정은천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영학 박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중섭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아람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석사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최지훈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 박사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Jeonbuk State Institute

기초연구

2024-01

전북특별자치도 재정효율성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Fiscal Management Efficiency in Jeonbuk State

정은천 이종섭 전아람 최지훈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 책임	정은천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2장, 3장, 4장, 5장
공동 연구	이중섭	선임연구위원	제2장, 5장 일부
	전아람	전문연구원	제3장 일부
	최지훈	전문연구원	제2장 일부

자문위원	김은지	군산대학교 교수
	주상현	전북대학교 교수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연구관리 코드 : 23GI0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와 점진적인 인구 규모의 감소로 인해 세입은 축소되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로 인해 세출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가중과 더불어 재정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저출산·고령화로 세입 기반이 위축됨에 따른 재정부담의 가중은 지역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자체사업의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기에 전북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의 재정효율성 현황조사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 방안과 관련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도출된 시사점은 재정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2)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의 재정을 분석함으로써 여건을 파악하고, 둘째, 재정효율성 추이 및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재정효율성 수준 및 문제점의 진단과 셋째, 실증분석을 통해 재정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넷째, 재정운용 효율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안과 관련한 시사점 도출임
-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먼저 재정운용 효율성 실태분석에서는 문헌자료 조사와 원 자료를 수집해야 분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도 내부자료를 활용하고, 다음으로 재정효율성 실증분석에서는 재정효율성과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인과성을 분석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 재정 현황조사 결과, 전북자치도 본청 재원별 수입은 다소 안정적이었으나, 시군에서는 다소 불안정하였으며, 본청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으로 자체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었음
- 재정운용 효율성 추이 및 현황조사 결과, 본청의 지방세수입비율은 전남 다음으로 가장 낮았고, 대다수 시군이 전국 시군 평균 및 동종의 유형 평균보다 낮은 심각한 수준으로 세입관리 분야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수입비율의 제고와 세출관리 분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흡한 수준인 지방보조금비율을 낮출 필요성이 도출되었음
- 재정운용 효율성 실증분석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세입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지표인 지방세수입(비율)을 감소시키고, 세출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지표인 지방보조금(비율)을 분석 대상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시킨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음

2) 정책제언

-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에 따른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억제하기 위해 첫째, 잉여재원의 규모를 축소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전북자치도형 세수추계 모형 개발과 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한 세수추계 확정이 필요하고, 둘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과 연례적인 재정관리 분석, 셋째, 불용에 의한 이월액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증가로 인한 재정운용 효율성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 첫째, 지역간 재정격차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원액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조율 지원제도 개선과 둘째,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를 통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에 대한 감사 기능의 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차 례

CONTENTS

요 약 i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 배경 3
나. 연구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가. 연구 범위 5
나. 연구 방법 5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재정 현황

1.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의 재정 상태 9
가. 재정 규모 9
나. 자원별 세입결산 현황 18
다. 분야별 세출결산 현황 21
2.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의 재정 여건 24
가. 재정자립도 24
나. 재정자주도 27
3. 소결 30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운용 효율성 현황

1. 세입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35
가. 개요	35
나. 지방세수입 비율 및 증감률	36
다. 세외수입 비율 및 증감률	41
라. 지방세징수율 및 제고율	46
마.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 및 증감률	49
바.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및 증감률	54
2. 세출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59
가. 개요	59
나. 지방보조금 비율 및 증감률	59
다.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및 증감률	65
라. 자체경비 비율 및 증감률	70
3. 소결	75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운용 효율성 실증분석

1. 개요	79
2. 이론적 논의	80
가. 순세계잉여금과 재정효율성 간의 관련성	80
나.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재정효율성 간의 관련성	83
3. 연구방법	85

가. 자료 및 분석모형	85
나. 추정 방법	88
4. 실증분석 및 결과	91
가.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91
나. 모형추정 결과	98
5. 소결	10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111
2. 정책제언	113
가. 지방재정 효율성과 순세계잉여금 관리 전략	113
나. 지방재정 효율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리 전략	114

참고문헌	117
------------	-----

영문요약 (Summary)	120
----------------------	-----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2-1〉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세입·세출결산 총계 규모	12
〈표 2-2〉 시도 본청 세출결산 총계 규모	13
〈표 2-3〉 17개 시도별 세출결산 총계 규모	14
〈표 2-4〉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세입·세출결산 현황 (총계기준)	17
〈표 2-5〉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총계기준)	18
〈표 2-6〉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시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총계기준)	19
〈표 2-7〉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군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총계기준)	20
〈표 2-8〉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총계기준)	21
〈표 2-9〉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시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총계기준)	22
〈표 2-10〉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군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총계기준)	23
〈표 3-1〉 세입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평가지표 분석 항목(FY2021 기준)	35
〈표 3-2〉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40
〈표 3-3〉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세외수입비율(증감률)	45
〈표 3-4〉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지방세징수율(제고율)	48
〈표 3-5〉 최근 4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53
〈표 3-6〉 최근 4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58
〈표 3-7〉 세출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평가지표 분석 항목(FY2021 기준)	59
〈표 3-8〉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64
〈표 3-9〉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69
〈표 3-10〉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자체경비비율(증감률)	74
〈표 4-1〉 재정효율성 회귀모형 변수의 설명 및 정의	87
〈표 4-2〉 전국 재정효율성 회귀모형 변수의 기술통계량	92
〈표 4-3〉 전북자치도 재정효율성 회귀모형 변수의 기술통계량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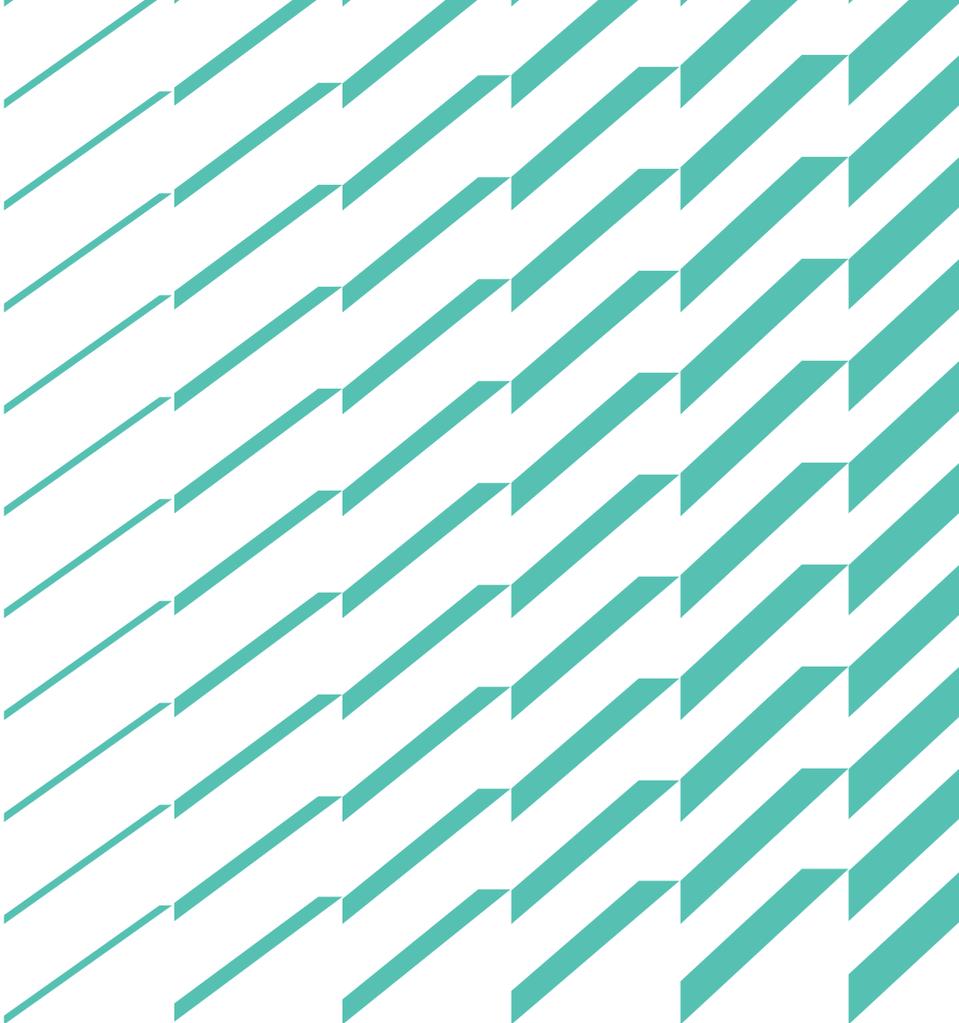
〈표 4-4〉 전국 재정효율성(규모) 회귀모형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95
〈표 4-5〉 전국 재정효율성(비율) 회귀모형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96
〈표 4-6〉 전북자치도 재정효율성 회귀모형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97
〈표 4-7〉 재정효율성 회귀모형 개체효과 및 시간효과의 귀무가설 검정 결과 ...	99
〈표 4-8〉 전국 지방세수입 및 지방세수입비율 회귀모형 추정 결과	103
〈표 4-9〉 전국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금비율 회귀모형 추정 결과	104
〈표 4-10〉 전북자치도 지방세수입 및 지방세수입비율 회귀모형 추정 결과 ...	105
〈표 4-11〉 전북자치도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금비율 회귀모형 추정 결과 ...	106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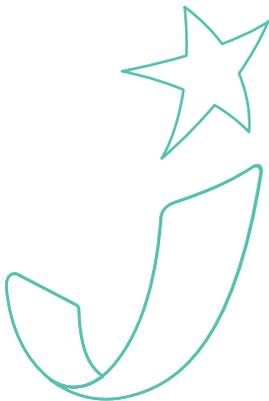
〈그림 2-1〉 시도 본청 세출결산 총계 현황	9
〈그림 2-2〉 전북자치도 시군 세입·세출결산 총계 현황(2021회계연도 기준)	11
〈그림 2-3〉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세입·세출결산 추이	16
〈그림 2-4〉 전북자치도 본청 재정자립도 추이 및 전국 시도 본청 재정자립도 (당초예산 기준)	24
〈그림 2-5〉 전북자치도 시별 재정자립도 추이(당초예산 기준)	25
〈그림 2-6〉 전북자치도 군별 재정자립도 추이(당초예산 기준)	26
〈그림 2-7〉 전북자치도 본청 재정자주도 추이 및 전국 시도 본청 재정자주도 (당초예산 기준)	27
〈그림 2-8〉 전북자치도 시별 재정자주도 추이(당초예산 기준)	28
〈그림 2-9〉 전북자치도 군별 재정자주도 추이(당초예산 기준)	29
〈그림 3-1〉 정부계층 및 전국 시도 본청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37
〈그림 3-2〉 전북자치도 시별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추이	38
〈그림 3-3〉 전북자치도 군별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추이	39
〈그림 3-4〉 정부계층 및 전국 시도 본청 세외수입비율(증감률)	42
〈그림 3-5〉 전북자치도 시별 세외수입비율(증감률) 추이	43
〈그림 3-6〉 전북자치도 군별 세외수입비율(증감률) 추이	44
〈그림 3-7〉 정부계층 및 전국 시도 본청 지방세징수율	46
〈그림 3-8〉 전북자치도 시군별 지방세징수율 추이	47
〈그림 3-9〉 정부계층 및 전국 시도 본청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50
〈그림 3-10〉 전북자치도 시별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추이	51
〈그림 3-11〉 전북자치도 군별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추이	52
〈그림 3-12〉 정부계층 및 전국 시도 본청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55
〈그림 3-13〉 전북자치도 시별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추이	56
〈그림 3-14〉 전북자치도 군별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추이	57
〈그림 3-15〉 정부계층 및 전국 시도 본청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61

〈그림 3-16〉 전북자치도 시별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추이	62
〈그림 3-17〉 전북자치도 군별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추이	63
〈그림 3-18〉 정부계층 및 전국 시도 본청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66
〈그림 3-19〉 전북자치도 시별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추이	67
〈그림 3-20〉 전북자치도 군별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추이	68
〈그림 3-21〉 정부계층 및 전국 시도 본청 자체경비비율(증감률)	71
〈그림 3-22〉 전북자치도 시별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추이	72
〈그림 3-23〉 전북자치도 군별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추이	73
〈그림 4-1〉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 규모 및 비율	82
〈그림 4-2〉 기초자치단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규모 및 비율	84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입 기반 위축과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의 세출 요인 확대로 전북자치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와 점진적인 규모 감소로 인해 세입은 축소되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등으로 세출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과 더불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이다(이미애, 2020).

인구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유발하여 지역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최웅선, 2016). 인구 고령화는 의료보장, 연금, 사회복지 등 복지 수요를 증가시켜 공공부문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되어 재정 여건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북자치도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2년 12월 기준 23.2%로 전남 25.17%, 경북 23.78%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전북자치도 본청의 사회복지비 지출규모는 2015년에서 2021년 사이 연평균 13.2%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사회복지비 지출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대비 5.03%p 증가하여 37.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 등의 세출 요인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세입 기반이 위축됨에 따라 전북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 행정수요에 대응한 자체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전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재정분권 정책의 시행으로 수직적·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1단계 재정분권(2019~2020년)을 추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10%p

인상하고, 약 3.6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한 결과, 지방재정이 3.7조 원 순확충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신가희 & 박성문, 2021).

2단계 재정분권(2022~2023년)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4.3%p 인상하여 지방재정을 추가 확충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조성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2.6 대 27.4 수준까지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조정이 변화하여 재정격차가 완화되고 있다.

재정분권 정책은 중앙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정책이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적정 수준의 재정자주도 향상과 더불어 특별교부세 일부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도모하고,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재정 진단을 통해 지방보조금에 대한 책임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 재정분권에 따른 자율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가 요구되는 현실에 부합하는 재정정책의 방향 설정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의 재정효율성 현황과 실증분석을 토대로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도출된 시사점은 재정효율성을 강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연구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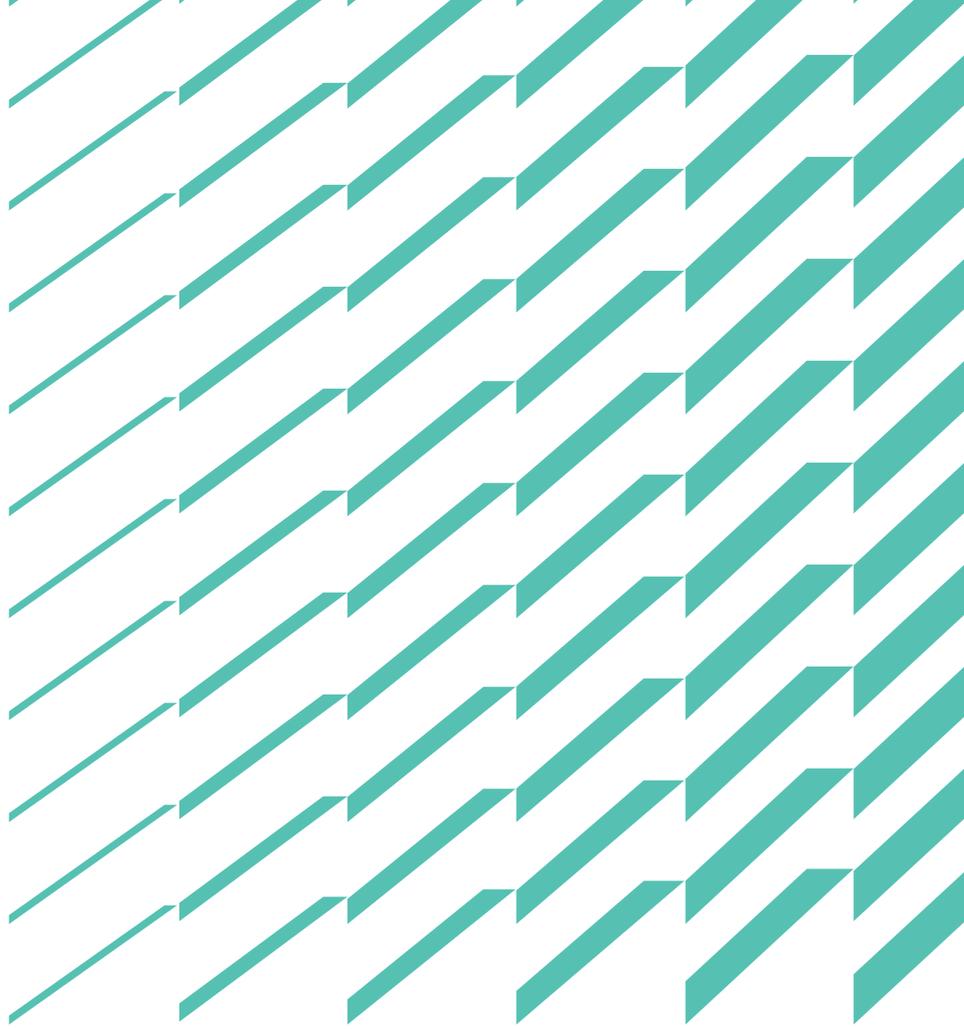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4개 시군의 결산자료를 대상으로 재정운용 효율성을 분석한다. 아울러 재정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요인의 영향 정도에 전국과 전북자치도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효율성 실증분석을 실시한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의 재정 운영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재정규모, 제원별 세입결산, 분야별 세출결산,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등의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재정효율성 추이 및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세입관리 분야와 세출관리 분야의 재정효율성 수준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셋째, 재정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양면성을 가지는 순세계잉여금, 재정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재정운용 효율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다. 넷째,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재정운용 효율성과 각 요인 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재정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나.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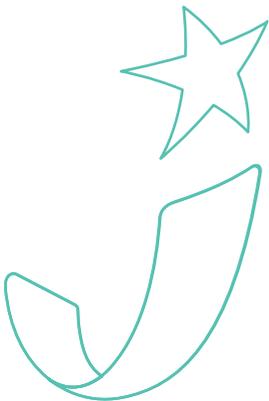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보면, 먼저 전북자치도 재정운용 효율성 실태분석에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지방재정365의 지방재정·재무 결산자료,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및 단체별보고서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원자료를 수집해야 분석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청에 협조를 구하여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한다.

다음으로 재정운용 효율성 실증분석에서는 선행연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운용 효율성과의 인과성이 증명된 변수를 추출하고,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변수를 생성한다. 그리고 재정운용 효율성과 각 변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패널자료분석을 실시한다. 합동회귀분석, 1요인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2요인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을 모두 추정한 후, F검정, Breush-Pagan 검정 및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여 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제 2 장

전북특별자치도 재정 현황



1. 전북 본청 및 14개 시군의 재정 상태
2. 전북 본청 및 14개 시군의 재정 여건
3. 소결

제 2 장 전북특별자치도 재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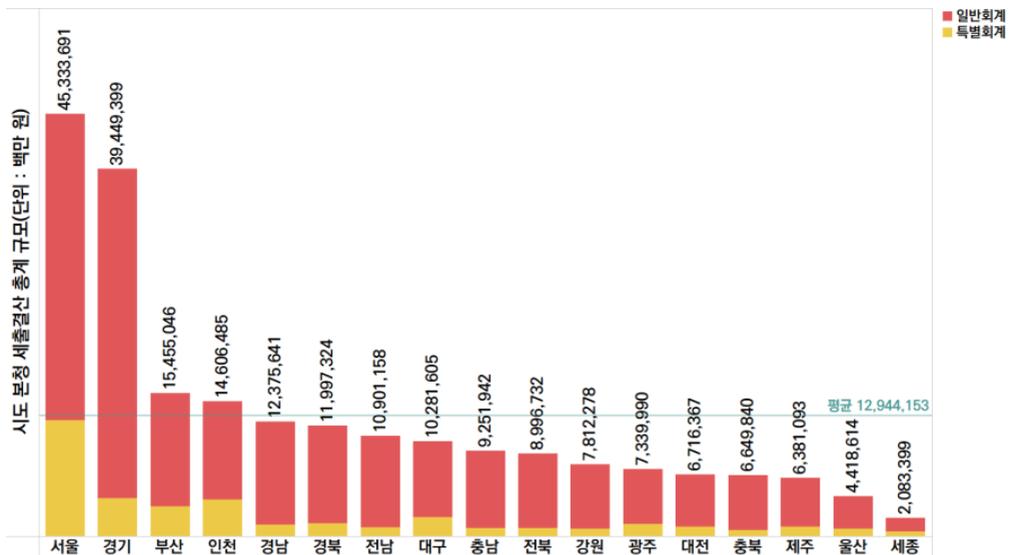
1.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의 재정 상태

가. 재정 규모

1) 세입·세출결산 총계 규모

전북자치도 본청의 2021년 총계 결산기준 세입 규모는 약 9조 4,821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조 5,548억 원, 특별회계가 9,273억 원이다. 세출 규모는 세입 규모보다 적은 약 8조 9,96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8조 1,125억 원, 특별회계가 8,812억 원이다.

전북자치도 본청의 세출 규모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17개 시도 본청의 세출결산 총계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이 12조 9,442억 원인 가운데, 전북 본청은 17개 시도 중 10번째에 위치하여 중위권에 속한다.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2021회계연도)

[그림 2-1] 시도 본청 세출결산 총계 현황

전북자치도 시군의 세입결산 총계 현황을 보면 시계는 약 10조 4,62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조 4,202억 원, 특별회계가 1조 424억 원이다. 도내 시의 세입결산 규모 평균이 약 1조 7,438억 원인 가운데, 전주가 2조 9,310억 원으로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는 익산 1조 9,567억 원, 군산 1조 8,661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김제, 정읍, 남원은 1조 2,045억 원에서 1조 2,583억 원으로 유사한 규모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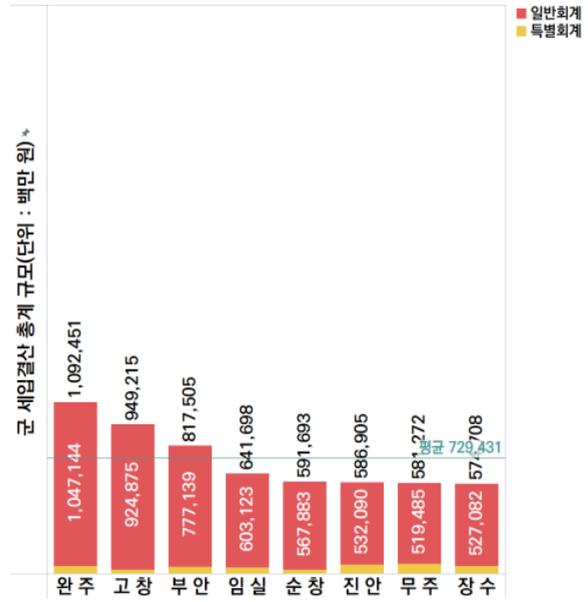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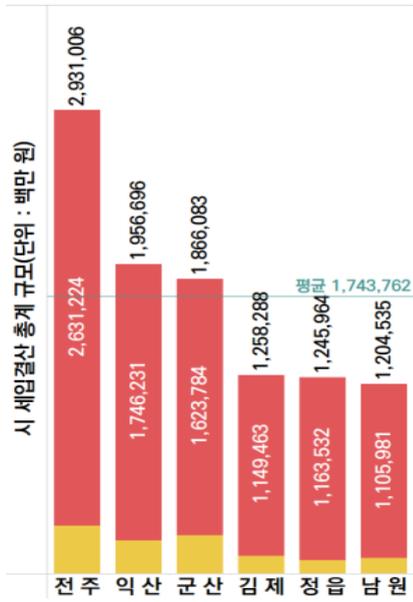
총계기준 세입결산액의 근거는 약 5조 8,354억 원으로 시계 대비 56%의 수준이다. 일반회계는 5조 4,988억 원, 특별회계가 3,366억 원으로 나타나 시계와 비교하여 일반회계 세입이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도내 군의 세입결산 규모 평균이 7,294억 원인 가운데 완주가 약 1조 925억 원으로 가장 크고, 그다음으로는 고창 9,492억 원, 부안 8,175억 원, 임실 6,417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창, 진안, 무주, 장수는 5,747억 원에서 5,917억 원으로 그 규모가 유사한 수준이다.

세출결산 규모의 시계는 약 8조 8,294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8조 257억 원, 특별회계가 8,037억 원이고, 근거는 약 4조 6,55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조 4,060억 원, 특별회계가 2,497억 원이다. 시단위와 군단위의 평균은 각 1조 4,716억 원, 5,820억 원으로 시와 군의 평균 사이에는 약 2.5배의 차이가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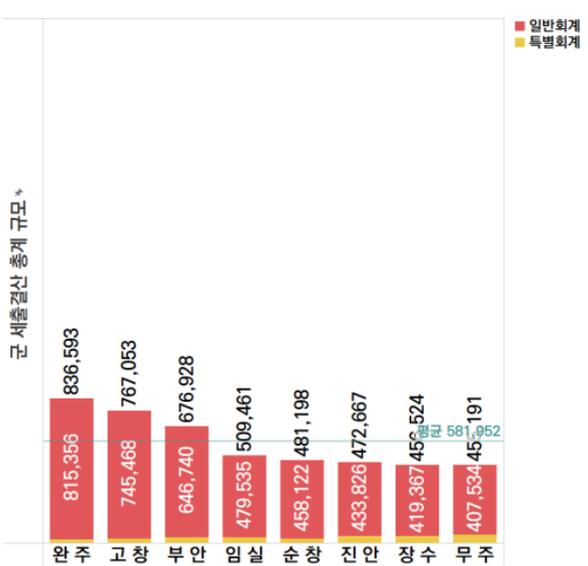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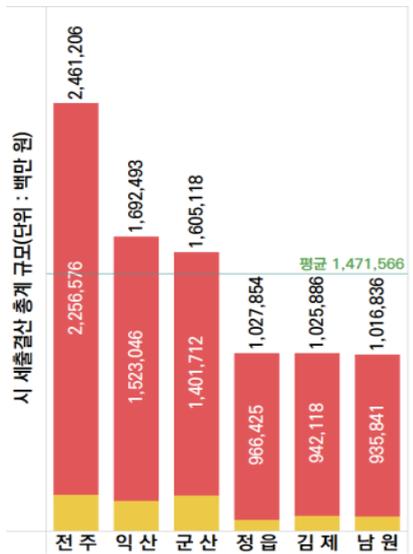
한편 각 시도 본청, 시·군 및 자치구의 세출결산 총액은 약 433조 4,965억 원이며, 17개 시도 평균이 25조 4,998억 원인 가운데, 경기도가 90조 6,993억 원으로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는 서울 67조 5,927억 원, 경북 32조 16억 원, 경남 31조 8,825억 원 등의 순인 반면, 세종 2조 834억 원, 제주 6조 3,811억 원, 울산 7조 3,445억 원, 대전 10조 1,374억 원 등의 순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를 나타냈다.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의 세출결산 총액은 22조 4,817억 원으로 17개 시도 평균보다 약 3조 181억 원이 적었으며, 17개 시도 중 9번째로 중위권에 해당한다.

세출결산 총액을 인구수로 표준화하면 인당 세출결산 규모의 평균이 920만 원인 가운데, 인당 세출결산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전남으로 1,510만 원이었고, 그다음으로는 강원 1,349만 원, 전북자치도 1,258만 원, 경북 1,218만 원 등의 순으로 큰 반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으로는 세종 560만 원, 울산 655만 원, 경기 669만 원, 대구 676만 원 등의 순이다.



전북자치도 시군 세입결산 총계 현황



전북자치도 시군 세출결산 총계 현황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2021회계연도)

[그림 2-2] 전북자치도 시군 세입·세출결산 총계 현황(2021회계연도 기준)

[표 2-1]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세입·세출결산 총계 규모

(기준 및 단위 : 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백만 원)

구 분	총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	세출
본 청	9,482,071	8,996,732	8,554,765	8,115,494	927,307	881,238
시 계	10,462,573	8,829,392	9,420,215	8,025,718	1,042,357	803,675
전주	2,931,006	2,461,206	2,631,224	2,256,576	299,782	204,630
군산	1,866,083	1,605,117	1,623,784	1,401,712	242,299	203,406
익산	1,956,696	1,692,493	1,746,231	1,523,046	210,465	169,447
정읍	1,245,965	1,027,854	1,163,532	966,425	82,432	61,429
남원	1,204,535	1,016,836	1,105,981	935,841	98,554	80,995
김제	1,258,288	1,025,886	1,149,463	942,118	108,825	83,768
군 계	5,835,446	4,655,616	5,498,821	4,405,948	336,626	249,667
완주	1,092,451	836,593	1,047,144	815,356	45,307	21,237
진안	586,905	472,667	532,090	433,826	54,815	38,841
무주	581,272	455,191	519,485	407,534	61,787	47,657
장수	574,708	456,525	527,082	419,367	47,626	37,157
임실	641,697	509,461	603,123	479,535	38,575	29,926
순창	591,693	481,198	567,883	458,122	23,810	23,076
고창	949,215	767,053	924,875	745,468	24,340	21,585
부안	817,505	676,928	777,139	646,740	40,366	30,188
합 계	25,780,091	22,481,740	23,473,801	20,547,160	2,306,290	1,934,58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2021 회계연도)

[표 2-2] 17개 시도 본청 세출결산 총계 규모

(기준 및 단위 : 2021회계연도 기준, 백만 원)

구 분	총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비중	세출	비중	세출	비중
서울	45,333,691	20.6%	32,960,202	18.0%	12,373,489	33.6%
부산	15,455,046	7.0%	12,277,395	6.7%	3,177,651	8.6%
대구	10,281,605	4.7%	8,247,788	4.5%	2,033,817	5.5%
인천	14,606,485	6.6%	10,673,121	5.8%	3,933,364	10.7%
광주	7,339,990	3.3%	6,053,432	3.3%	1,286,558	3.5%
대전	6,716,367	3.1%	5,703,986	3.1%	1,012,381	2.7%
울산	4,418,614	2.0%	3,656,302	2.0%	762,312	2.1%
세종	2,083,399	0.9%	1,583,745	0.9%	499,654	1.4%
경기	39,449,399	17.9%	35,414,408	19.3%	4,034,991	10.9%
강원	7,812,278	3.6%	6,998,857	3.8%	813,421	2.2%
충북	6,649,840	3.0%	5,999,408	3.3%	650,432	1.8%
충남	9,251,942	4.2%	8,381,069	4.6%	870,873	2.4%
전북자치도	8,996,732	4.1%	8,115,494	4.4%	881,238	2.4%
전남	10,901,157	5.0%	9,933,997	5.4%	967,161	2.6%
경북	11,997,324	5.5%	10,640,197	5.8%	1,357,127	3.7%
경남	12,375,641	5.6%	11,175,019	6.1%	1,200,622	3.3%
제주	6,381,093	2.9%	5,384,494	2.9%	996,599	2.7%
합계	220,050,603	100.0%	183,198,914	100.0%	36,851,690	100.0%
평균	12,944,153		10,776,407		2,167,746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2021 회계연도)

[표 2-3] 17개 시도별 세출결산 총계 규모

(기준 및 단위 : 2021회계연도 기준)

구 분	세출결산 총액		인구		인당 세출결산액 (만원)
	금액(백만원)	비중	인구수(명)	비중	
서울	67,592,660	15.6%	9,509,458	18.4%	711
부산	24,255,117	5.6%	3,350,380	6.5%	724
대구	16,114,012	3.7%	2,385,412	4.6%	676
인천	22,545,951	5.2%	2,948,375	5.7%	765
광주	11,111,114	2.6%	1,441,611	2.8%	771
대전	10,137,383	2.3%	1,452,251	2.8%	698
울산	7,344,507	1.7%	1,121,592	2.2%	655
세종	2,083,399	0.5%	371,895	0.7%	560
경기	90,699,321	20.9%	13,565,450	26.3%	669
강원	20,749,983	4.8%	1,538,492	3.0%	1,349
충북	16,907,892	3.9%	1,597,427	3.1%	1,058
충남	23,527,437	5.4%	2,119,257	4.1%	1,110
전북자치도	22,481,740	5.2%	1,786,855	3.5%	1,258
전남	27,680,775	6.4%	1,832,803	3.5%	1,510
경북	32,001,628	7.4%	2,626,609	5.1%	1,218
경남	31,882,492	7.4%	3,314,183	6.4%	962
제주	6,381,093	1.5%	676,759	1.3%	943
계	433,496,504	100.0%	51,638,809	100.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2021 회계연도); 주민등록인구통계(<https://jumin.mois.go.kr>)

2) 세입·세출결산 추이

20021년 총계기준 전북자치도 본청의 세입결산 규모는 9조 4,821억 원으로 2017년 5조 7,330억 원 대비 65.4%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규모는 8조 9,967억 원으로 2017년 5조 4,991억 원 대비 63.6% 증가하였다. 전북자치도 본청의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세입결산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2017~2021년)은 13.6%, 세출결산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13.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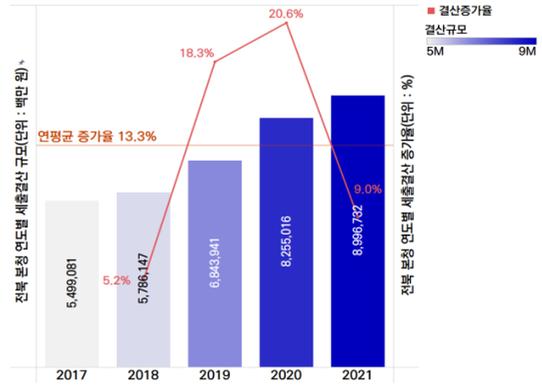
한편 전년 대비 2018년의 세입, 세출결산 규모의 증가율은 각 6.2%, 5.2%인데 비해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각 11.3%p, 13.1%p 증가한 17.5%, 18.3%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1단계 재정분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세입결산 규모의 시계는 10조 4,626억 원으로 2017년 7조 866억 원 대비 47.6%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규모는 8조 8,294억 원으로 2017년 2조 6,569억 원 대비 56.1% 증가하였다. 시계 세입, 세출결산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 10.3%, 12.0%인 가운데, 세입결산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은 시는 전주 11.7%이고, 그다음으로 군산 11.3%, 남원 11.1% 등의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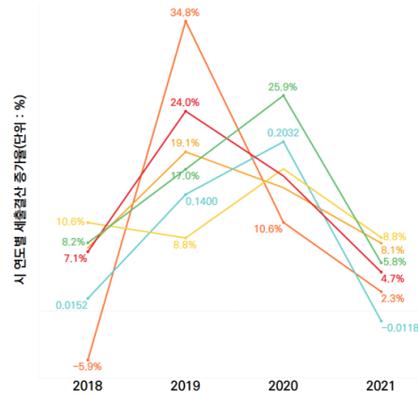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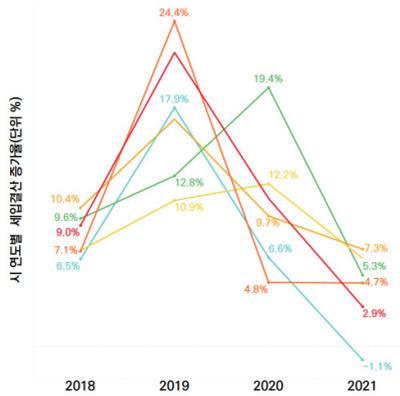
전년 대비 2021년 시 세입결산 규모의 평균 증가율은 4.3%인 가운데, 남원의 증가율이 7.3%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익산 6.6%, 전주 5.3%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정읍의 증가율이 -1.1%로 도내 시에서는 유일하게 감소하였다.

2021년 세입결산 규모의 군계는 5조 8,355억 원으로 2017년 4조 2,045억 원과 비교하여 38.8%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규모는 4조 6,556억 원으로 2017년 3조 2,238억 원과 비교하면 44.4%로 증가하여 2017년 대비 증가율은 전북자치도 본청, 시계, 군계의 순으로 높았다. 군계의 연평균 증가율은 세입이 8.6%, 세출이 9.7%인 가운데, 세입결산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완주가 1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장수와 고창이 각 8.7%, 순창 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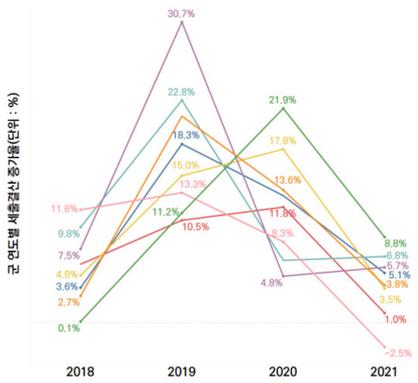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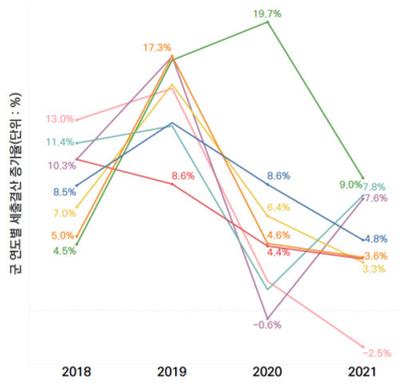
전년 대비 2021년 군 세입결산 규모의 전년 대비 평균 증가율은 시의 평균 증가율보다 0.4%p 높은 4.7%인 가운데, 완주가 9.0%로 가장 높고, 순창 7.8%, 장수 7.6% 순으로 높은 반면, 진안이 -2.5%, 임실 3.3%, 부안 3.5% 등의 순으로 비교적 낮았으며, 진안이 도내 군에서는 유일하게 감소세를 나타냈다.



전북자치도 본청 연도별 세입·세출결산 규모 및 증가율



시 연도별 세입·세출결산 증가율



군 연도별 세입·세출결산 증가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각 연도)

[그림 2-3]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세입·세출결산 추이

[표 2-4]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세입·세출결산 현황(총계기준)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본청	세입	5,732,953	6,090,630	7,159,533	8,632,467	9,482,071	13.6%
	세출	5,499,081	5,786,147	6,843,941	8,255,016	8,996,732	13.3%
시계	세입	7,086,621	7,680,470	8,952,504	10,016,430	10,462,573	10.3%
	세출	5,656,848	5,982,659	7,085,210	8,397,216	8,829,392	12.0%
전주	세입	1,887,339	2,067,635	2,331,428	2,783,266	2,931,006	11.7%
	세출	1,459,782	1,579,420	1,848,170	2,326,123	2,461,206	14.2%
군산	세입	1,227,018	1,337,790	1,632,366	1,812,860	1,866,083	11.3%
	세출	993,237	1,064,030	1,319,249	1,533,194	1,605,117	13.0%
익산	세입	1,377,588	1,476,134	1,637,157	1,836,218	1,956,696	9.2%
	세출	1,103,902	1,221,132	1,328,370	1,555,140	1,692,493	11.3%
정읍	세입	940,935	1,002,067	1,181,145	1,259,415	1,245,965	7.5%
	세출	746,921	758,306	864,437	1,040,075	1,027,854	8.7%
남원	세입	792,506	874,564	1,023,365	1,123,078	1,204,535	11.1%
	세출	638,936	687,543	818,945	940,219	1,016,836	12.4%
김제	세입	861,235	922,280	1,147,043	1,201,593	1,258,288	10.2%
	세출	714,070	672,228	906,039	1,002,465	1,025,886	10.5%
군계	세입	4,204,450	4,564,569	5,215,795	5,564,105	5,835,446	8.6%
	세출	3,223,819	3,393,259	3,963,510	4,467,057	4,655,616	9.7%
완주	세입	684,365	715,227	837,288	1,001,949	1,092,451	12.6%
	세출	566,493	567,239	630,907	769,179	836,593	10.5%
진안	세입	453,492	512,400	589,987	601,854	586,905	6.9%
	세출	354,062	394,991	447,525	484,609	472,667	7.7%
무주	세입	435,153	457,103	536,372	560,875	581,272	7.6%
	세출	310,111	318,634	385,932	438,323	455,191	10.3%
장수	세입	415,059	457,837	537,059	534,079	574,708	8.7%
	세출	293,230	315,353	412,309	431,979	456,525	12.2%
임실	세입	472,404	505,695	583,672	621,311	641,697	8.0%
	세출	346,598	363,398	418,027	492,236	509,461	10.3%
순창	세입	431,337	480,542	540,983	548,684	591,693	8.3%
	세출	314,361	345,088	423,599	450,645	481,198	11.4%
고창	세입	681,276	739,357	833,986	905,667	949,215	8.7%
	세출	527,134	546,071	645,873	729,850	767,053	10.0%
부안	세입	631,364	696,408	756,448	789,686	817,505	6.7%
	세출	511,830	542,485	599,338	670,236	676,928	7.3%
합계	세입	17,024,024	18,335,669	21,327,832	24,213,002	25,780,091	11.0%
	세출	14,379,750	15,162,064	17,892,661	21,119,289	22,481,740	12.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각 연도)

나.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

1) 전북자치도 본청 재원별 세입결산 현황

전북자치도 본청의 2021년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계기준) 규모는 보조금이 4조 7,141억 원으로 총세입의 55.1%를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는 지방세가 1조 8,368억 원(21.5%), 지방교부세 1조 1,952억 원(14.0%),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6,758억 원(7.9%), 지방세외수입 1,329억 원(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의 세입 규모는 지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2020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지방세, 보조금 등이 계속 상승하여 세부 재원별 수입은 다소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세부 재원별 수입 중에서 연평균 증가율(2017~2021년)이 가장 높은 재원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24.2%이며, 그다음으로는 지방세 16.0%, 세외수입 14.6%, 보조금 13.4%, 지방교부세 8.28% 등의 순이다.

한편 총세입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자체재원의 확충을 위해 비교적 항목의 설정이 쉽고, 운영이 자유로운 지방세외수입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5]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총계기준)

(단위 : 억 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지방세	10,348	19.9	10,890	19.5	12,905	19.8	17,310	21.7	18,368	21.5
세외수입	825	1.6	877	1.6	945	1.5	877	1.1	1,329	1.6
지방교부세	8,945	17.2	9,877	17.7	11,733	18.0	10,274	12.9	11,952	14.0
보조금	28,944	55.6	30,563	54.7	35,828	55.1	45,554	57.1	47,141	55.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011	5.8	3,674	6.6	3,649	5.6	5,789	7.3	6,758	7.9
합계	52,073	100	55,881	100	65,060	100	79,804	100	85,548	10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각 연도)

2) 전북자치도 시·군·구 단위 재정별 수입결산 현황

2021년 기준 세부 재정별 수입결산 규모의 시계에서는 보조금이 3조 7,632억 원(39.9%)으로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 지방교부세 2조 5,806억 원(27.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조 4,162억 원(15.0%), 지방세 9,553억 원(10.1%) 등의 순이었다. 세외수입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전북자치도 본청 대비 2.6%p 높았다.

수입결산 규모의 시계는 지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지방세가 2018년에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2020년, 조정교부금은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감소하여 세부 재정별 수입은 다소 불안정해 보인다.

한편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2017~2021년)은 17.4%로 지방채의 연평균 증가율 다음으로 높았고, 그다음으로 지방세외수입 연평균 증가율이 13.2%로 전북자치도 본청과 비교하여 세외수입의 추이는 다소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2-6]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시·군·구 일반회계 수입결산 현황(총계기준)

(단위 : 억 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지방세	7,974	12.9	7,698	11.4	8,154	10.2	9,287	10.3	9,553	10.1
세외수입	2,507	4.1	2,620	3.9	3,057	3.8	2,764	3.1	3,898	4.1
지방교부세	19,139	31.0	21,450	31.7	25,701	32.2	22,059	24.5	25,806	27.4
조정교부금등	2,177	3.5	2,104	3.1	2,548	3.2	2,524	2.8	2,647	2.8
보조금	20,238	32.7	21,909	32.4	26,255	32.9	36,029	40.0	37,632	39.9
지방채	209	0.3	189	0.3	77	0.1	833	0.9	504	0.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558	15.5	11,703	17.3	14,023	17.6	16,662	18.5	14,162	15.0
합계	61,802	100	67,673	100	79,814	100	90,158	100	94,202	10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각 연도)

3) 전북자치도 군단위 자원별 세입결산 현황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의 2021년 결산기준 군계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1조 8,903억 원으로 34.4%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보조금 1조 8,865억 원(34.3%)으로 지방교부세와 유사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조 856억 원(1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계와 비교해 보면, 지방교부세의 비중은 시계에 비해 7.0%p 높게 나타난 반면, 보조금은 시계에 비해 5.6%p,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각 5.2%p, 0.9%p 낮게 나타났다.

군계의 세입결산 규모 역시 지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지방세가 2018년, 지방교부세가 2020년, 조정교부금이 2018년과 2020년에 감소하여 자원별 수입은 시계와 같이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

[표 2-7]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군계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총계기준)

(단위 : 억 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지방세	1,738	4.5	1,811	4.3	1,860	3.9	2,620	5.0	2,707	4.9
세외수입	1,451	3.7	1,640	3.9	1,738	3.6	1,757	3.4	1,786	3.2
지방교부세	15,301	39.5	16,883	40.2	19,235	40.0	16,663	32.1	18,903	34.4
조정교부금등	957	2.5	981	2.3	1,165	2.4	1,185	2.3	1,269	2.3
보조금	11,480	29.6	12,129	28.9	13,636	28.3	17,771	34.2	18,865	34.3
지방채	-	0.0	30	0.1	70	0.1	-	0.0	602	1.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858	20.3	8,541	20.3	10,440	21.7	11,933	23.0	10,856	19.7
합계	38,784	100	42,014	100	48,144	100	51,929	100	54,988	10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각 연도)

다. 분야별 세출결산 현황

1) 전북자치도 본청 분야별 세출결산 현황

전북자치도 본청의 2021년 결산기준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3조 93억 원으로 총세출의 37.1%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1조 3,231억 원(16.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026억 원(7.4%) 등의 순이다. 분야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017~2021년)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54.8%로 가장 높고, 산업·중소기업 분야 36.58%, 사회복지 분야 17.0%, 교통 및 물류 분야 16.4%,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6.0% 등의 순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8]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총계기준)

(단위 : 억 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일반공공행정	4,247	8.5	4,317	8.1	6,159	9.9	4,841	6.3	5,451	6.7
공공질서및안전	1,609	3.2	1,439	2.7	1,737	2.8	2,086	2.7	6,026	7.4
교육	2,134	4.3	2,411	4.6	2,210	3.5	2,178	2.9	2,438	3.0
문화및관광	3,126	6.3	3,149	5.9	3,273	5.3	3,676	4.8	3,630	4.5
환경	3,498	7.0	3,389	6.4	3,849	6.2	4,249	5.6	5,541	6.8
사회복지	16,592	33.3	18,605	35.1	21,673	34.8	30,445	39.9	30,093	37.1
보건	1,060	2.1	992	1.9	1,088	1.7	1,443	1.9	1,573	1.9
농림해양수산	9,320	18.7	9,463	17.9	10,791	17.3	12,559	16.5	13,231	16.3
산업·중소기업	1,444	2.9	1,931	3.6	3,002	4.8	4,777	6.3	4,681	5.8
교통및물류	1,269	2.5	1,346	2.5	1,540	2.5	2,029	2.7	2,303	2.8
국토및지역개발	2,113	4.2	2,310	4.4	3,003	4.8	3,849	5.0	3,715	4.6
과학기술	177	0.4	166	0.6	177	0.3	136	0.2	122	0.2
기타	3,284	6.6	3,470	6.5	3,757	6.0	4,071	5.3	2,351	2.9
합계	49,872	100	52,988	100	62,258	100	76,339	100	81,155	10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각 연도)

2) 전북자치도 시·군·구 단위 분야별 세출결산 현황

2021년 결산기준 전북자치도 시·군·구의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2조 8,479억 원으로 총세출의 35.5% 차지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 1조 1,130억 원(14.1%), 기타 8,257억 원(10.6%) 등의 순으로 지출하였다.

분야별 연평균 증가율(2017~2021년)은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3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6%, 사회복지 분야 16.5% 등의 순으로 증가하여 전북자치도 본청과 마찬가지로 이 세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표 2-9]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시·군·구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총계기준)

(단위 : 억 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일반공공행정	2,999	6.0	3,040	5.7	4,137	6.4	4,378	5.7	4,011	5.0
공공질서및안전	993	2.0	807	1.5	1,147	1.8	1,409	1.8	2,090	2.6
교육	398	0.8	466	0.9	514	0.8	408	0.5	491	0.6
문화및관광	3,466	6.9	3,885	7.2	4,208	6.6	4,480	5.8	4,718	5.9
환경	3,040	6.1	3,367	6.3	3,517	5.5	4,073	5.3	4,788	6.0
사회복지	15,701	31.3	17,469	32.5	20,508	31.9	27,228	35.5	28,479	35.5
보건	827	1.6	952	1.8	1,140	1.8	1,198	1.6	1,274	1.6
농림해양수산	7,727	15.4	8,081	15.0	9,515	14.8	11,316	14.8	11,310	14.1
산업·중소기업	1,557	3.1	1,547	2.9	2,690	4.2	3,983	5.2	4,125	5.1
교통및물류	3,340	6.7	3,883	7.2	4,367	6.8	5,117	6.7	4,859	6.1
국토및지역개발	3,293	6.6	3,097	5.8	5,030	7.8	5,224	6.8	5,602	7.0
과학기술	46	0.1	32	0.1	36	0.1	44	0.1	37	0.0
기타	6,799	13.5	7,139	13.3	7,433	11.6	7,851	10.2	8,472	10.6
합계	50,186	100	53,765	100	64,243	100	76,709	100	80,257	10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각 연도)

3) 전북자치도 군단위 분야별 세출결산 현황

2021년 결산기준 전북자치도 군계의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전북자치도 본청과 시계와는 다르게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지출 비중이 25.5%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 19.9%, 기타 12.9%, 환경 분야 8.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야별 연평균 증가율(2017~2021년)은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33.7% 가장 높았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7.3%, 사회복지 분야 13.1% 등의 순으로 높아 시계보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이 2.5%p 높은 반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 6.3%p, 3.4%p 낮다.

[표 2-10]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군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총계기준)

(단위 : 억 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액	비중								
일반공공행정	1,578	5.2	1,655	5.2	2,468	6.7	2,579	6.2	2,080	4.7
공공질서및안전	1,077	3.5	885	2.8	1,120	3.0	2,191	5.2	1,417	3.2
교육	340	1.1	349	1.1	359	1.0	344	0.8	327	0.7
문화및관광	1,880	6.2	1,946	6.1	2,367	6.4	2,573	6.1	3,084	7.0
환경	2,886	9.5	2,949	9.3	3,324	9.0	3,518	8.4	3,867	8.8
사회복지	5,394	17.7	5,959	18.8	7,040	19.1	8,341	19.9	8,768	19.9
보건	537	1.8	675	2.1	771	2.1	773	1.8	783	1.8
농림해양수산	7,516	24.7	7,745	24.4	8,581	23.3	10,180	24.3	11,222	25.5
산업·중소기업	502	1.6	507	1.6	569	1.5	969	2.3	1,467	3.3
교통및물류	1,220	4.0	1,312	4.1	1,485	4.0	1,656	4.0	1,665	3.8
국토및지역개발	2,982	9.8	2,884	9.1	3,247	8.8	3,286	7.8	3,690	8.4
기타	4,529	14.9	4,823	15.2	5,550	15.0	5,453	13.0	5,690	12.9
합계	30,441	100	31,691	100	36,880	100	41,863	100	44,059	100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각 연도)

2.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의 재정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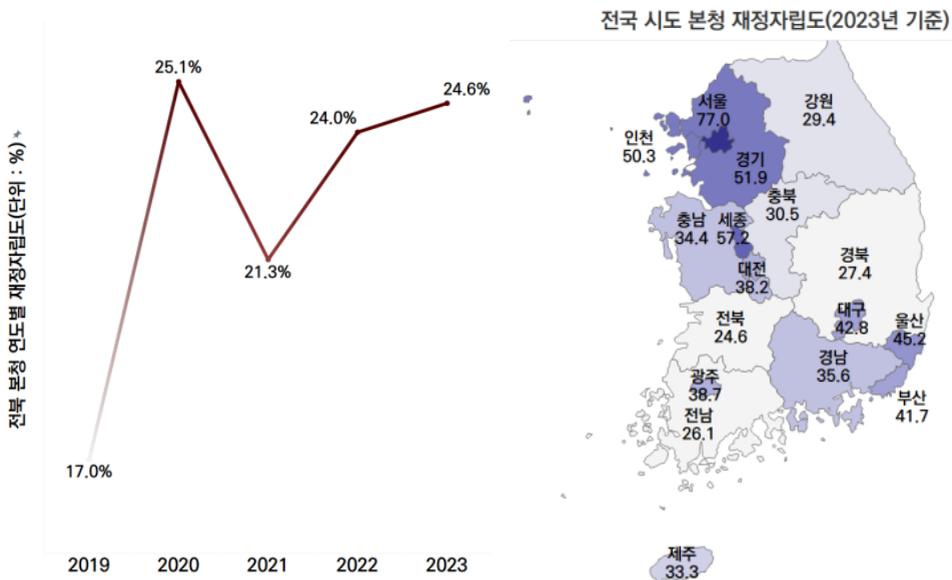
가. 재정자립도

1) 전북자치도 본청 재정자립도

전북자치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는 2023년 기준 24.6%로 재정부문에 필요한 나머지 재원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연도별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2020년의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8.1%p 급격히 증가하여 1단계 재정분권으로 인해 자체재원이 순확충된 반면, 2021년에는 COVID-19 팬데믹으로 자체재원이 감소하였다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북자치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기준 강원, 전남, 경북 본청과 함께 30% 미만인 재정자립도 하위단체로 분류되며,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나타낸다.



자료 :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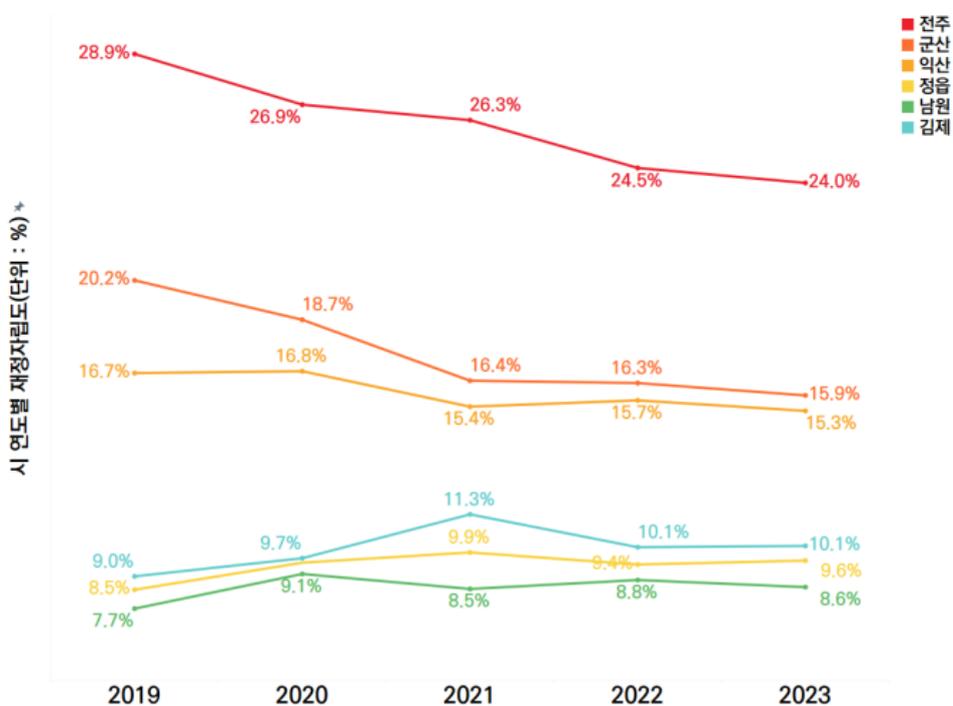
[그림 2-4] 전북자치도 본청 재정자립도 추이 및 전국 시도 본청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

2) 전북자치도 시 재정자립도

6개 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속하여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2020년에는 전년 대비 0.05%p, 2021년 0.46%p, 2022년 0.51%p, 2023년에는 0.25%p 감소하여 시의 재정 여건은 다소 악화되고 있다.

시별 재정자립도는 2023년 기준 전주가 24.0%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군산 15.9%, 익산 15.3%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김제 10.1%, 정읍 9.6%, 남원 8.6% 등의 순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연평균 하락률(2019~2023년)이 가장 심한 지역은 군산으로 -5.8%, 그다음으로 전주 -4.5%, 익산 -2.2%로 감소한 반면, 김제 3.6%, 정읍 3.3%, 남원 2.9% 등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료 :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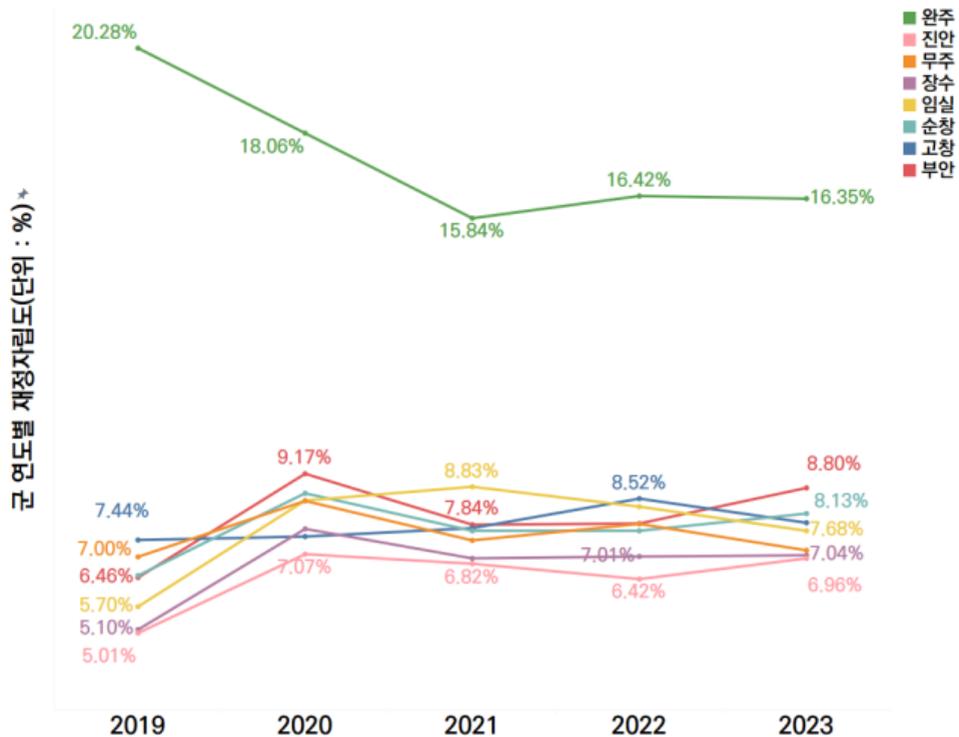
[그림 2-5] 전북자치도 시별 재정자립도 추이(당초예산 기준)

3) 전북자치도 군 재정자립도

8개 군의 2020년 평균 재정자립도는 0.94%로 전년 대비 1.5%p 상승하였다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3년 기준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8.8%인 가운데, 완주가 16.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부안 8.8%, 순창 8.1% 등의 순으로 비교적 높은 반면, 무주 7.2%, 장수와 진안이 각 7.0% 등의 순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별 재정자립도의 연평균 증가율(2019~2023년)은 완주(-5.0%)가 유일하게 감소하였고, 장수(10.7%), 진안(10%), 부안(9.9%), 임실(9.8%) 등의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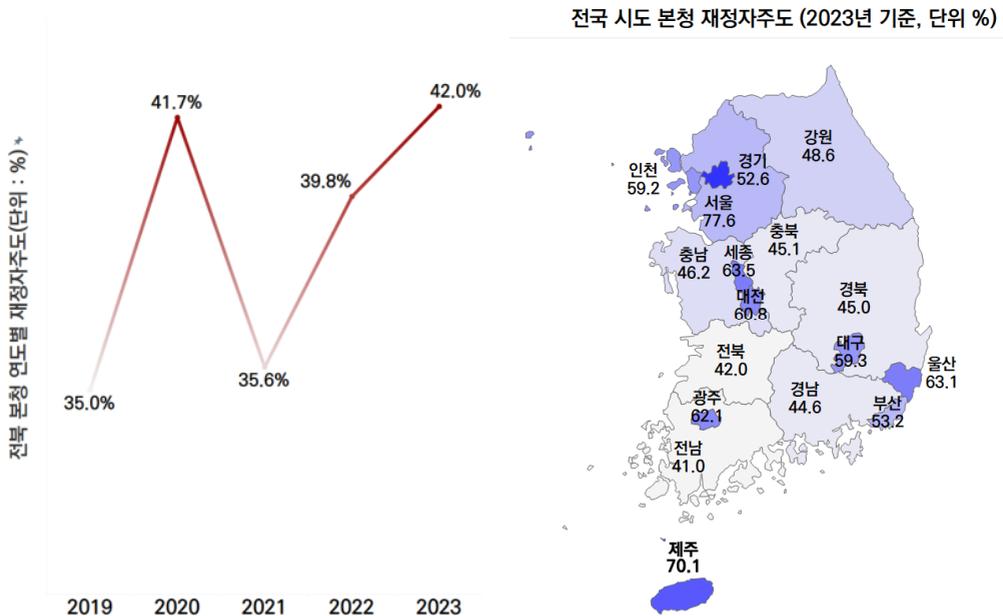
[그림 2-6] 전북자치도 군별 재정자립도 추이(당초예산 기준)

나. 재정자주도

1) 전북자치도 본청 재정자주도

전북자치도 본청의 최근 5년간 재정자주도 추이를 보면 2020년은 41.7%로 전년 대비 6.7%p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는 6.1%p 하락한 35.6%, 2022년과 2023년에는 전년 대비 각 4.2%p, 2.2%p 증가한 39.8%, 42.0%를 나타냈다. 재정자주도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일반회계 총세입의 증가분에 비해 자체세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자주재원 증가분이 더 컸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전북자치도의 재정자주도는 17개 시도 본청의 평균 재정자주도인 54.9%보다 12.9%p,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 도의 평균 재정자주도인 48.4%보다 6.4%p 낮은 42.0%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시도 본청 중 최하위 수준으로 전체 세입에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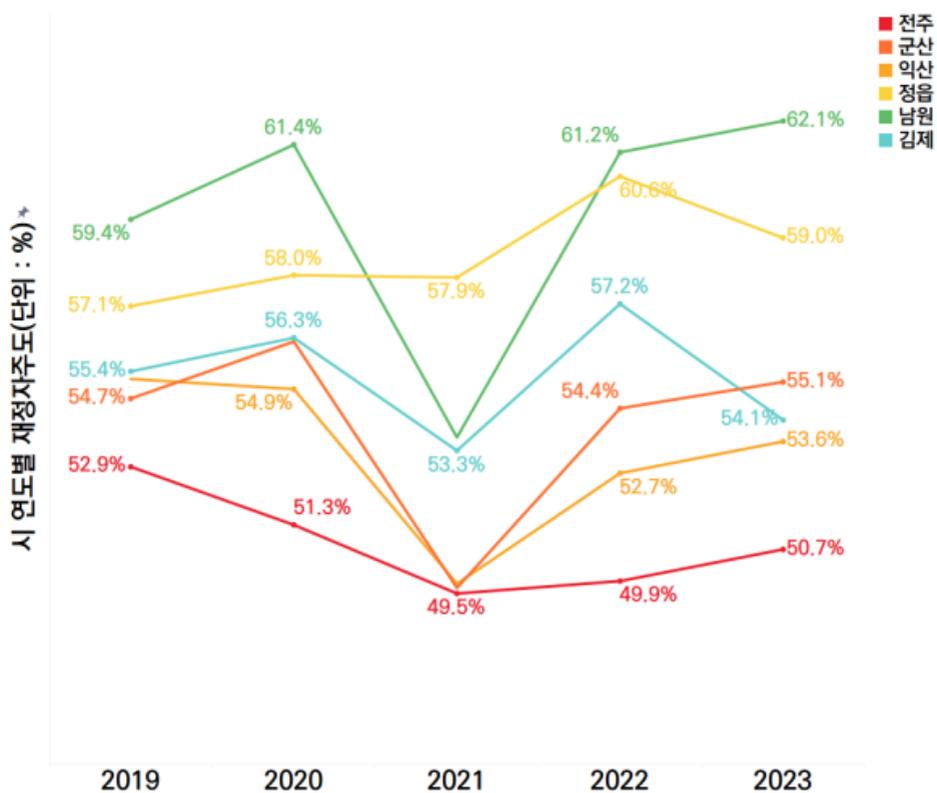
자료 :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2-7] 전북자치도 본청 재정자주도 추이 및 전국 시도 본청 재정자주도(당초예산 기준)

2) 전북자치도 시 재정자주도

6개 시의 2023년 평균 재정자주도는 2019년 및 2022년과 유사한 55.8%로 나타나 최근 5년간 등락을 거듭하면서 큰 변화가 없었다. 2023년 기준 시별 재정자주도는 남원이 32.1%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정읍 59.0%, 군산 55.1%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김제 54.1%, 익산 53.6%, 전주 50.7% 등의 순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시 재정자주도의 연평균 상승률(2019~2023년)의 평균이 -0.1%인 가운데, 남원 1.5%, 정읍 0.8%, 군산 0.5%로 소폭 상승한 반면, 전주 -1.0%, 군산과 김제가 -0.5%로 소폭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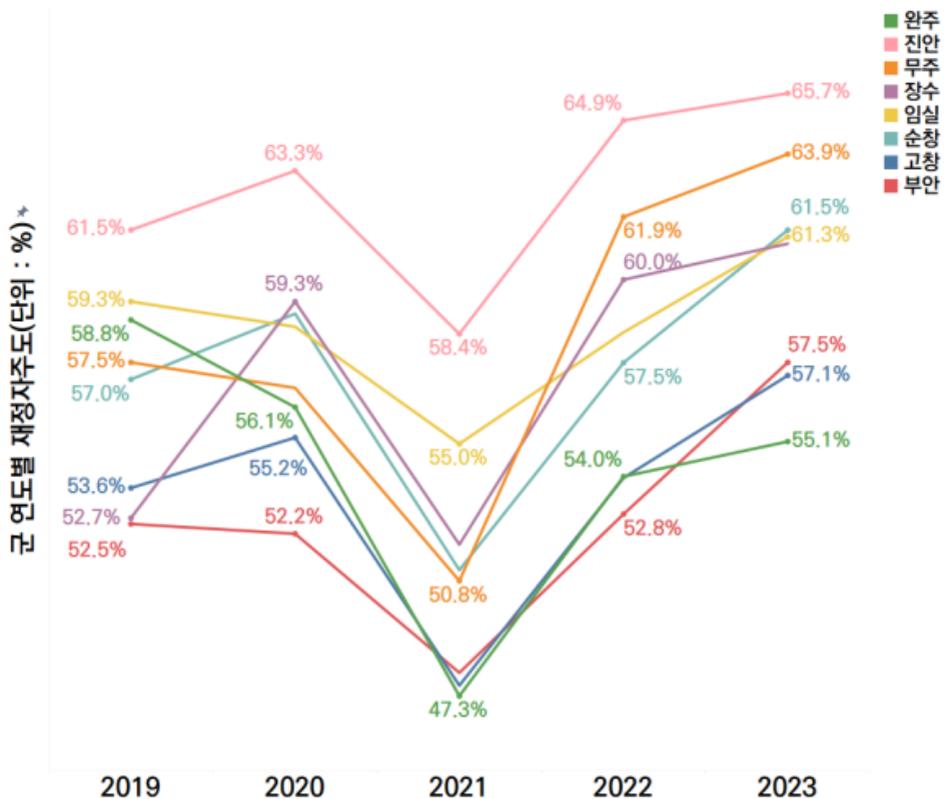
자료 :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2-8] 전북자치도 시별 재정자주도 추이(당초예산 기준)

3) 전북자치도 군 재정자주도

2023년 8개 군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60.4%로 6개 시의 평균 재정자주도인 55.8%보다 4.6%p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2020년 0.9%p 소폭 상승하였다가 2021년 -6.3%p 하락한 후, 2022년과 2023년에는 각 6.7%p, 2.5%p 상승하여 재정자주도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군별 재정자주도의 연평균 상승률(2019~2023년)의 평균이 2.1%인 가운데, 장수가 4.4%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무주 3.3%, 부안 2.5%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진안 1.9%, 임실 0.9% 등의 순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8개 군 중 완주가 유일하게 -1.0%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자료 :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2-9] 전북자치도 군별 재정자주도 추이(당초예산 기준)

3. 소결

1) 재정상태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의 세출결산 총액은 17개 시도 중 9번째 수준으로 전국 중위권에 해당하나, 인구수로 표준화하면 인당 세출결산 규모의 평균이 920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2021년 총계기준 전북자치도 본청의 세입·세출결산규모는 재정분권 정책에 기인하여 2017년 대비 각 65.4%, 63.6% 증가하였고, 시계는 각 47.6%, 56.1%, 군계는 각 38.8%, 44.4% 증가하여 본청, 시, 군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전북자치도 본청의 세부 재원별 수입은 지방세, 보조금 등이 계속 상승하여 다소 안정적인 가운데, 시는 세입결산 규모가 지속하여 상승하는 추세이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등락을 거듭하여 다소 불안정하였으며, 군단위 역시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다소 불안정하였다. 전북자치도 본청의 세부 재원별 연평균 증가율(2017~2021년)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교부세 순으로 높았고, 세외수입이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아 자체재원의 확충을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확대가 요구되었다. 시에서는 지방채, 세외수입 등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높아 본청과 비교하여 세외수입 추이는 다소 안정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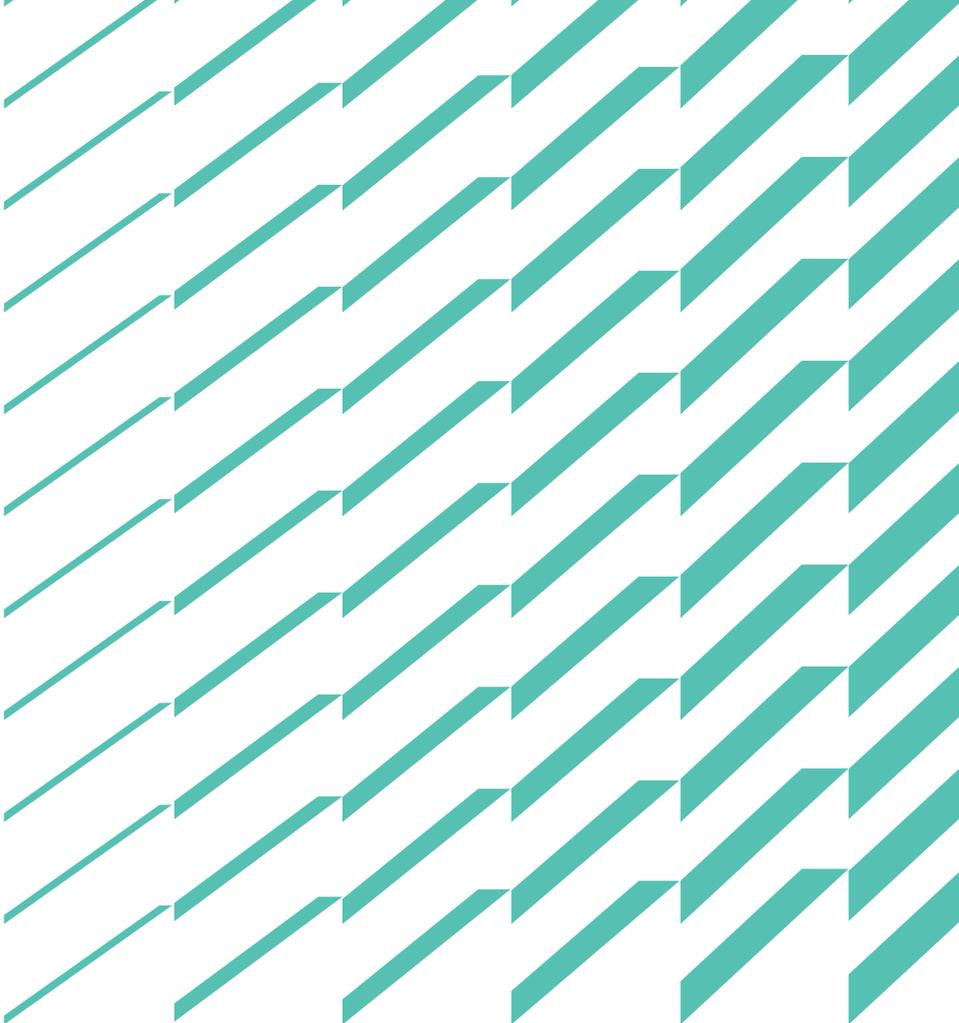
분야별 세출결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북자치도 본청은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37.1%로 가장 높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16.3%),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7.4%) 등의 순으로 높았다. 시에서는 사회복지 분야(35.5%), 농림·해양·수산 분야(14.1%), 기타(10.6%) 등의 순이었고, 군에서는 본청 및 시와는 다르게 농림·해양·수산 분야(25.5%)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19.9%), 기타(12.9%) 등의 순이었다.

2) 재정여건

전북자치도의 본청의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는 2020년 1단계 재정분권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8.1%p는 급증하였으나, 2023년 기준 24.6%로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아 자체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최근 5년간 6개 시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속하여 감

소하는 추세로 재정 여건이 다소 악화되는 가운데, 연평균 증가율(2019~2023년)이 군산, 전주, 익산 등의 순으로 하락한 반면, 김제, 정읍, 남원 등의 순으로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하락, 낮은 지역에서는 소폭 상승하는 추세였다. 군별 재정자립도의 연평균 증가율은 완주를 제외한 모든 군이 소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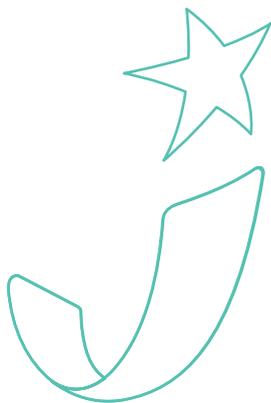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의 재정자주도를 조사한 결과, 전북자치도 본청의 재정자주도는 2020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 기준 재정자주도는 42.0%로 전국 시도 본청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6개 시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2023년 기준 평균 재정자주도는 55.8%로 2019년 대비 큰 변화가 없었고, 8개 군의 평균 재정자주도는 60.4%로 시의 평균 재정자주도보다 높았다. 또한 완주를 제외한 모든 군의 재정자주도가 상승하여 시의 연평균 증가율(2019~2023년)이 -0.1%인데 반해 군의 연평균 증가율은 2.1%로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제 3장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운용 효율성 현황

1. 세입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2. 세출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3. 소결



제 3 장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운용 효율성 현황

1. 세입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가. 개요

재정효율성은 재원조달 및 재정지출 효과 측면에서 재정운용 상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되는데, 세입관리와 세출관리 지표로 구성된다(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 2021). 여기서 살펴보는 세입관리 지표는 자체수입비율(증감률),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등 3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자체수입률(증감률)은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세외수입비율(증감률)로 세분되고,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은 지방세징수율(제고율)과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로 세분된다.

[표 3-1] 세입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평가지표 분석 항목(FY2021 기준)

구 분	지표명		산 식	지표성격
세입관리 (규모)	자체 수입비율	지방세수입비율	지방세수입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상향
		(지방세수입증감률)	(지방세수입-전년도지방세수입) /전년도지방세수입	상향
		세외수입비율	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상향
		(세외수입증감률)	(세외수입-전년도 세외수입) /전년도 세외수입	상향
세입관리 (징수)	지방세징수율		지방세 실제수납액/지방세 징수결정액	상향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징수율/전년도 지방세징수율	상향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 체납누계액/세입결산액	하향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전년도 지방세체납누계액) /전년도 지방세체납누계액	하향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세외수입 체납누계액/세입결산액	하향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체납누계액-전년도 체납누계액) /전년도 체납누계액	하향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나. 지방세수입 비율 및 증감률

1) 전북자치도 본청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자체수입비율(증감률)을 구성하는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은 지방세의 조달 능력과 신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측정치가 높을수록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상향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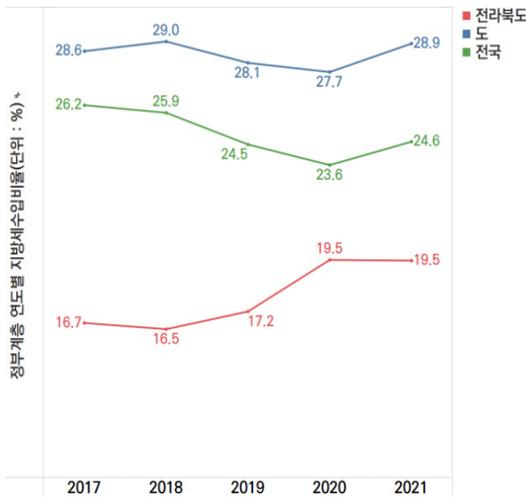
전국과 도의 지방세수입비율 추이를 보면 1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세가 확충되었음에도 세입결산액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8년 전국과 도의 지방세수입비율이 각 25.9%, 29.0%에서 2020년 23.6%, 27.7%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0%p, 1.2%p 상승하여 개선되었다. 전북자치도 본청의 지방세수입비율의 추이는 전국 및 도와는 다르게,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세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8년 지방세수입비율 16.5%에서 2020년 19.5%로 3%p 상승하였다. 2021년에는 전년대와 유사한 지방세수입비율을 나타냈으나, 도 평균인 28.9%, 전국 평균인 24.6%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21년 기준 전국 시도 본청의 지방세수입비율을 보면 서울이 6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세종 43.2%, 경기 40.2%, 인천 40.0%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전남 19.1%, 전북자치도 19.5%, 경북 21.9%, 강원 22.0% 등의 순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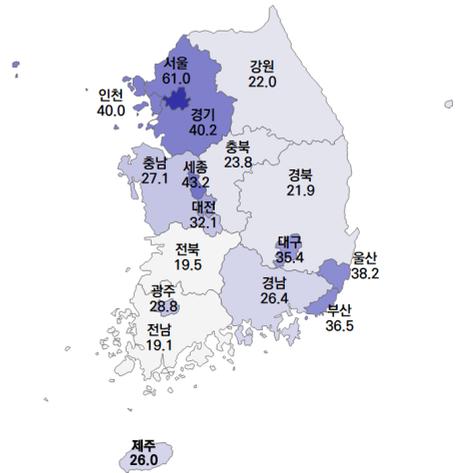
전국과 도의 지방세수입증감률은 1단계 재정분권으로 인한 지방세 확충으로 2018년 각 5.4%, 5.1%에서 2020년 14.1%, 22.3%로 상승했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각 3.4%p, 9.3%p 감소한 10.7%, 13.0%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북자치도 본청의 지방세수입증감률은 1단계 재정분권의 결과에 따라 2018년 5.6%에서 2020년 38.6%로 33%p 급상승하였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1.5%p 감소한 7.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과 도 평균인 10.7%, 13.0% 대비 각 3.6%p, 5.9%p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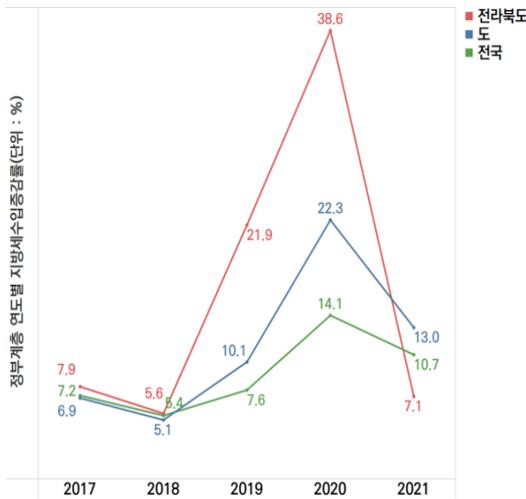
전국 시도 본청의 2021년 기준 지방세수입증감률을 살펴보면, 경기가 17.7%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인천 16.6%, 충남 15.4%, 충북 13.0%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전남 4.3%, 부산 4.5%, 제주 5.2%, 울산 5.5% 등의 순으로 비교적 낮았다. 전북자치도의 지방수입증감률은 17개 시도 중 11번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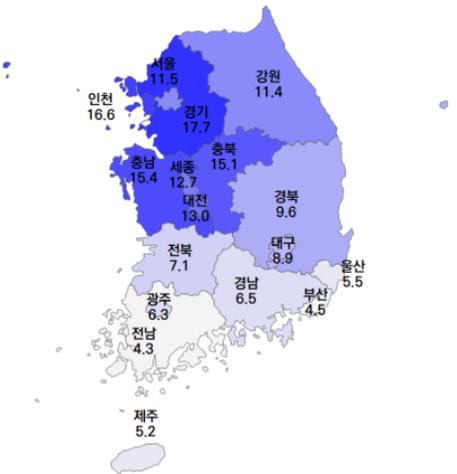
전국 시도 본청 지방세수입비율(2021년 기준, 단위 %)



정부계층 지방세수입비율 추이 및 전국 시도 본청 지방세수입비율



전국 시도 본청 지방세수입증감률(2021년 기준, 단위 %)



정부계층 지방세수입증감률 추이 및 전국 시도 본청 지방세수입증감률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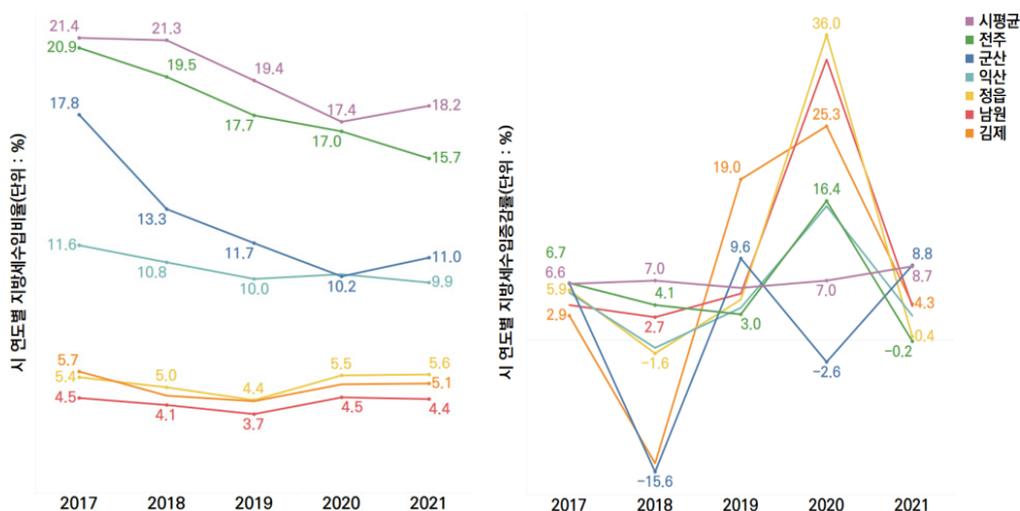
[그림 3-1] 정부계층 및 전국 시도 본청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2) 시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2021년 기준 지방세수입비율의 전국 시 평균이 18.2%인 가운데, 도내 시에서는 전주 15.7%, 군산 11.0%, 익산 9.9%, 정읍 5.6%, 김제 5.1%, 남원 4.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도내 모든 시가 전국 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정읍을 제외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남원 등은 2017년 대비 모두 감소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시Ⅰ유형에 해당하는 자치단체는 전주, 시Ⅲ유형 군산과 익산, 시Ⅳ유형은 정읍, 남원, 김제로, 전주는 시Ⅰ유형 평균인 25.57%보다 낮은 수준이고, 군산과 익산은 시Ⅲ유형 평균인 12.12%, 정읍, 남원, 김제는 시Ⅳ유형 평균인 6.73%보다 모두 낮은 수준이다.

지방세수입증감률의 2021년 기준 전국 시 평균이 8.7%인 가운데, 도내 시 중 군산이 유일하게 시 평균을 상회하였고, 나머지 모든 시는 시 평균 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년과 대비하여 군산이 11.42%p 상승한 반면, 나머지 모든 시는 감소하였으며, 유형 평균과 비교하여 군산, 남원, 김제가 유형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전주, 익산, 정읍은 유형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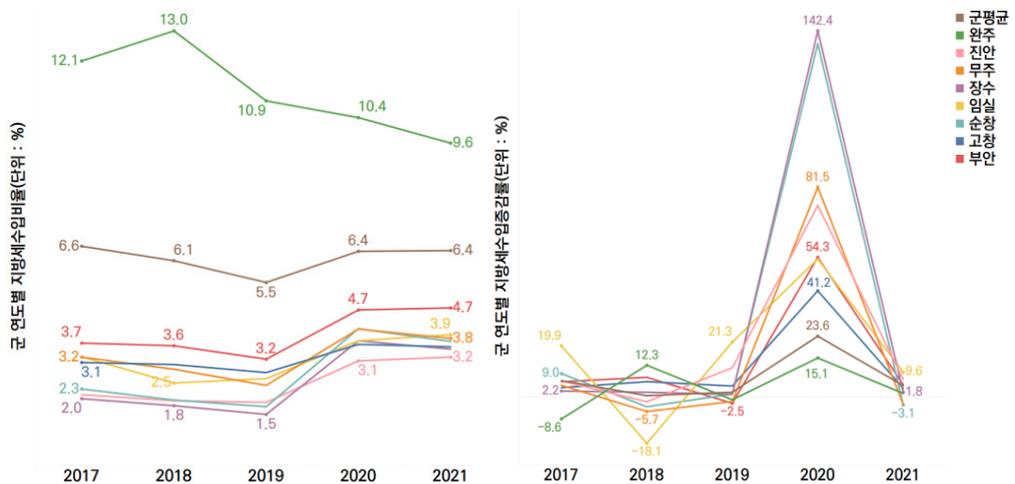
[그림 3-2] 전북자치도 시별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추이

3) 군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2021년 기준 전국 군 지방세수입비율의 평균이 6.4%인 가운데, 전북자치도 군에서는 완주가 유일하게 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지속하여 감소하는 추세이고, 부안(4.7%), 임실(3.9%), 무주(3.8%), 순창(3.7%), 고창(3.6%), 장수(3.5%), 진안(3.2%) 등은 모두 전북자치도 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진안, 무주, 부안은 유형 평균보다 높았으나, 나머지 군은 유형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방세수입증감률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전년 대비 모든 군의 지방세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완주를 제외한 모든 군이 전국 군 평균을 상회하였는데, 이는 균특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군의 예산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반면 2021년에는 모든 군의 지방세수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입결산액 증가율이 지방세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거나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타 재원을 통한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유형별 평균과 비교하면 부안의 증감률이 동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나머지 7개 군은 모두 유형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3] 전북자치도 군별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추이

[표 3-2]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지방세수입비율(증감률)

(단위 :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유형평균
본청	비율	16.73	16.46	17.23	19.48	19.45	28.92
	증감률	7.92	5.61	21.87	38.64	7.08	13.02
전주	비율	20.89	19.53	17.72	16.97	15.70	25.57
	증감률	6.73	4.13	3.04	16.43	-0.15	11.23
군산	비율	17.75	13.32	11.72	10.16	11.04	12.12
	증감률	6.68	-15.56	9.63	-2.59	8.83	5.43
익산	비율	11.62	10.82	10.04	10.26	9.87	12.12
	증감률	5.58	-0.92	3.81	15.82	2.87	5.43
정읍	비율	5.42	4.95	4.35	5.51	5.55	6.73
	증감률	5.88	-1.58	4.78	36.02	0.41	3.33
남원	비율	4.45	4.12	3.69	4.48	4.40	6.73
	증감률	4.13	2.70	5.48	33.13	4.00	3.33
김제	비율	5.69	4.56	4.30	5.09	5.13	6.73
	증감률	2.88	-14.56	18.98	25.25	4.25	3.33
완주	비율	12.08	12.98	10.89	10.39	9.63	11.18
	증감률	-8.63	12.26	-1.16	15.11	1.31	5.70
진안	비율	2.12	1.94	1.89	3.13	3.24	3.59
	증감률	6.15	-1.94	11.29	74.43	6.84	2.64
무주	비율	3.24	2.88	2.40	4.08	3.80	3.59
	증감률	4.49	-5.71	-1.81	81.52	-2.91	2.64
장수	비율	2.00	1.79	1.53	3.73	3.48	3.59
	증감률	2.24	1.77	0.95	142.37	1.78	2.64
임실	비율	3.25	2.47	2.60	3.73	3.91	4.16
	증감률	19.85	-18.08	21.31	53.61	9.58	2.29
순창	비율	2.29	1.96	1.76	4.09	3.71	3.59
	증감률	9.02	-3.87	1.08	137.34	-3.14	2.64
고창	비율	3.08	3.02	2.78	3.62	3.55	5.28
	증감률	3.56	5.87	4.18	41.24	3.28	3.68
부안	비율	3.66	3.58	3.18	4.65	4.71	5.28
	증감률	5.84	7.56	-2.51	54.27	4.68	3.68

주 : 2021년 지방세수입비율과 지방세수입증감률의 전국 평균은 각 24.64%, 10.68%임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
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다. 세외수입 비율 및 증감률

1) 전북자치도 본청 세외수입비율(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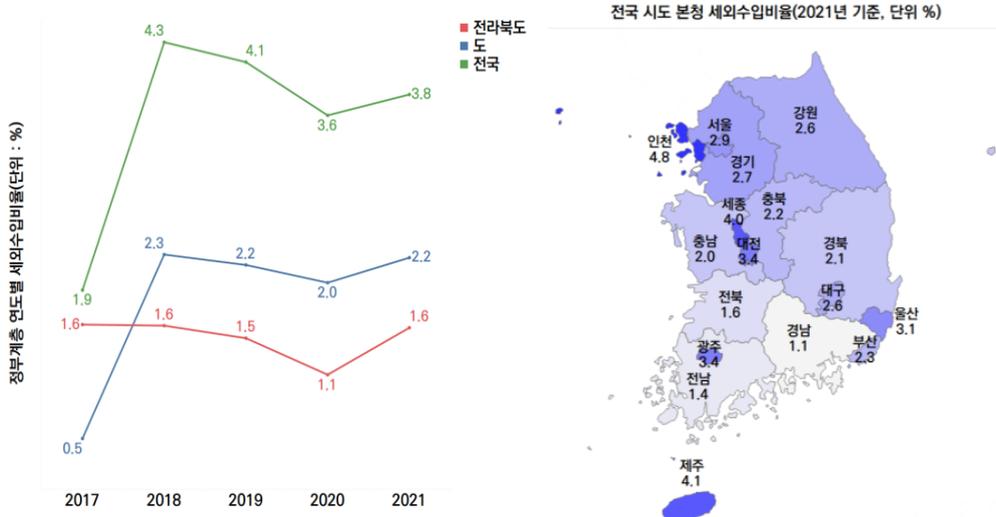
자체세입비율(증감률)을 구성하는 지표 중 하나인 세외수입비율(증감률)은 세외수입의 조달 능력과 신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측정치가 높을수록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상향지표이다.

전국과 도의 세외수입비율 추이를 보면 2018년 각 4.3%, 2.3%에서 2020년 3.6%, 2.0%로 감소했으나, 2021년 3.8%, 2.2%로 전년 대비 0.2%p씩 개선되었다. 이는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사용료수입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에 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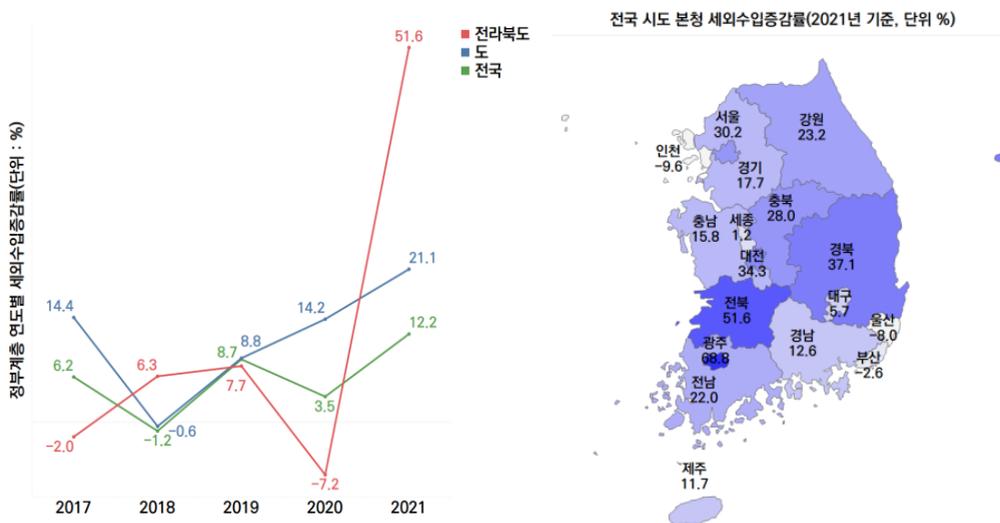
전북자치도 본청 역시 2020년까지 지속하여 감소하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0.5%p 상승하였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과 비교하여 큰 폭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전국과 도 평균에 비해 각 1.6%p, 0.6%p 낮아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전국 시도 본청의 2021년 기준 세외수입비율을 살펴보면, 인천이 4.8%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제주 4.1%, 세종 4.0%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경남 1.1% 전남 1.4%, 전북자치도 1.6% 순으로 비교적 낮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수입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과 근거의 형태가 다양하고, 항목의 설정에 있어 비교적 자유로우며, 수익자부담 원칙이 적용되어 조세와 달리 주민들의 저항이 비교적 적은 특징을 가진 세외수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김진욱 외, 2018).

전국의 지방세수입증감률은 2018년 -1.2%에서 2019년 8.7%로 상승했으나 COVID-19 팬데믹에 직면한 2020년에 3.5%까지 낮아졌고, 2021년에는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12.2%까지 상승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도는 2018년 -0.6%에서 2021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21.1%까지 상승하였다. 전북자치도의 2021년 증가율은 전년 대비 58.8%p 높은 증가율로 전국과 도의 평균을 상회하였는데, 이는 17개 시도 본청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이와 같은 높은 증가율은 임시적 세외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므로,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확보를 위해 경상적 세외수입의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계층 세외수입비율 추이 및 전국 시도 본청 세외수입비율



정부계층 세외수입증감률 추이 및 전국 시도 본청 세외수입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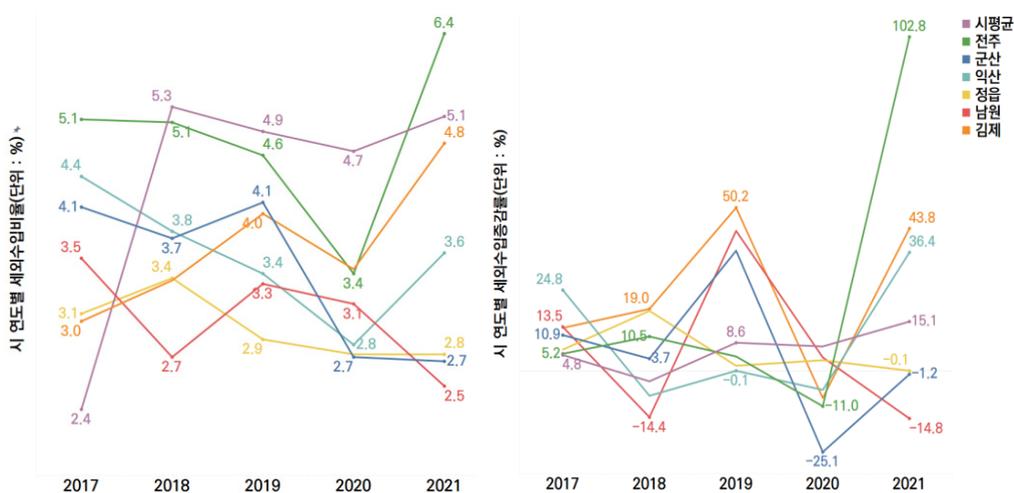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4] 정부계층 및 전국 시도 본청 세외수입비율(증감률)

2) 전북자치도 시 세외수입비율(증감률)

2021년 기준 세외수입비율의 전국 시 평균이 5.1%인 가운데, 전주가 6.4%로 도내 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나머지 시는 모두 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년 대비 전주 3.0%p, 김제 1.4%p, 익산 0.8%p 상승한 반면, 군산과 정읍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고, 남원은 -0.6%p 감소하였다.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전주와 김제가 유형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등은 유형 평균보다 낮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증감률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전국 시 평균이 15.1%인 가운데, 전주가 102.8%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김제 43.8%, 익산 36.4% 순으로 증가하여 시 평균 증감률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 남원 -14.8%, 군산 -1.2%, 정읍 -0.1% 등의 순으로 하락하여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는 재산매각수입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가 높은 증가율의 주요 원인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전주, 익산, 김제가 유형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군산, 정읍, 남원은 유형 평균보다 낮아 미흡한 성과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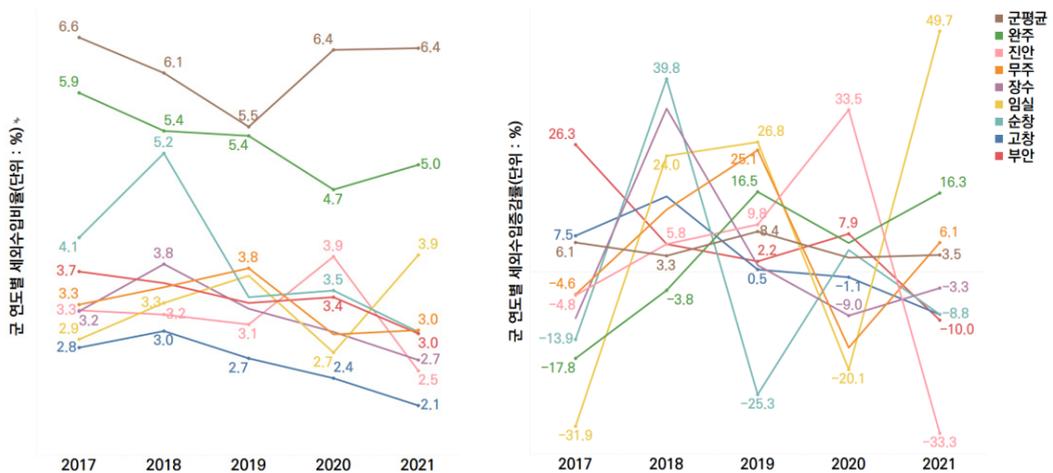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5] 전북자치도 시별 세외수입비율(증감률) 추이

3) 전북자치도 군 세외수입비율(증감률)

전국 군의 2021년 기준 세외수입비율이 6.4%인 가운데, 도내 모든 군이 전국 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완주와 무주가 각 0.3%p, 0.1%p 증가한 반면, 진안, 장수, 순창, 고창, 부안 등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유형 평균과 비교하면 완주와 임실이 유형 평균보다 높아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으나, 나머지 군은 모두 유형 평균보다 낮아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완주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사용료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징수교부금 수입 증가하여 세외수입비율이 개선되었다.

세외수입증감률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전국 군 평균이 3.5%인 가운데, 임실 49.7%, 완주 16.3%, 무주 6.1%로 군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진안 -33.3%, 부안 -10.0%, 순창 -8.8%, 장수 -3.3% 등의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완주, 무주, 임실 등은 유형 평균보다 높았으나, 진안, 장수, 순창, 고창, 부안 등은 유형 평균보다 낮아 미흡한 성과를 나타냈다. COVID-19 팬데믹 완화로 사용료수입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재산매각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의 감소가 세외수입증감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6] 전북자치도 군별 세외수입비율(증감률) 추이

[표 3-3]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세외수입비율(증감률)

(단위 :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유형평균
본청	비율	1.58	1.57	1.45	1.10	1.55	2.22
	증감률	-2.00	6.33	7.74	-7.23	51.57	21.07
전주	비율	5.10	5.06	4.64	3.40	6.39	6.36
	증감률	5.16	10.47	4.32	-11.01	102.81	23.73
군산	비율	4.05	3.73	4.10	2.73	2.70	4.19
	증감률	10.91	3.65	36.92	-25.11	-1.15	7.32
익산	비율	4.39	3.80	3.40	2.82	3.59	4.19
	증감률	24.80	-7.79	-0.07	-5.96	36.40	7.32
정읍	비율	3.06	3.36	2.86	2.75	2.75	3.69
	증감률	6.43	18.38	1.47	3.17	-0.08	2.11
남원	비율	3.54	2.73	3.31	3.14	2.53	3.69
	증감률	13.45	-14.39	43.03	4.04	-14.80	2.11
김제	비율	3.00	3.34	3.98	3.44	4.79	3.69
	증감률	13.12	18.97	50.16	-8.45	43.77	2.11
완주	비율	5.88	5.42	5.36	4.71	5.01	3.96
	증감률	-17.83	-3.79	16.54	5.99	16.29	4.41
진안	비율	3.25	3.20	3.08	3.90	2.52	3.09
	증감률	-4.80	5.75	9.79	33.46	-33.29	1.16
무주	비율	3.32	3.53	3.76	2.96	3.01	3.09
	증감률	-4.63	12.87	25.14	-15.62	6.06	1.16
장수	비율	3.24	3.81	3.27	2.99	2.65	3.09
	증감률	-9.56	33.72	1.40	-9.00	-3.32	1.16
임실	비율	2.90	3.34	3.67	2.74	3.92	3.88
	증감률	-31.85	23.95	26.81	-20.13	49.71	3.66
순창	비율	4.13	5.15	3.41	3.49	2.99	3.09
	증감률	-13.94	39.84	-25.30	4.54	-8.75	1.16
고창	비율	2.80	3.00	2.67	2.43	2.10	3.04
	증감률	7.47	15.60	0.51	-1.09	-8.78	4.15
부안	비율	3.72	3.58	3.34	3.41	2.97	3.04
	증감률	26.29	5.76	2.19	7.87	-9.95	4.15

주 : 2021년 세외수입비율과 세외수입증감률의 전국 평균은 각 3.78%, 12.15%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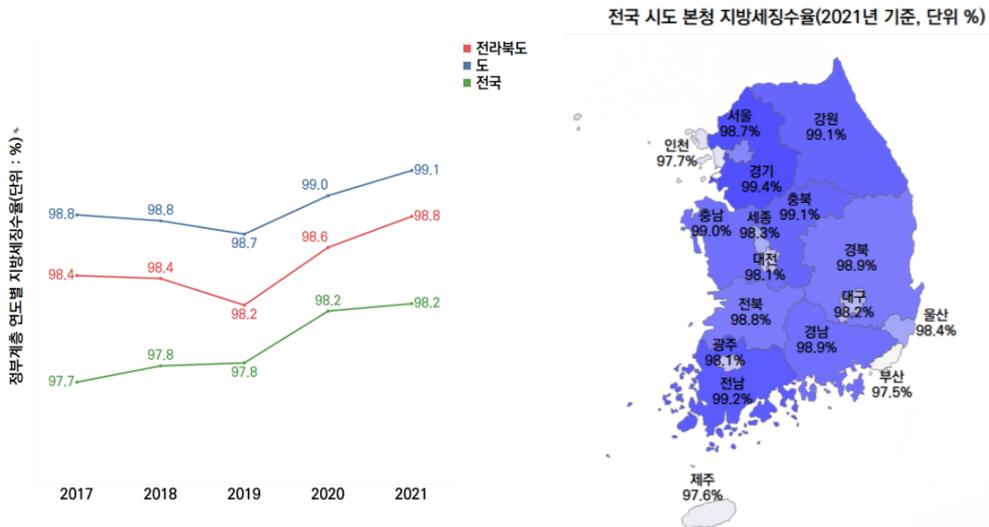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
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라. 지방세징수율 및 제고율

1) 전북자치도 본청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징수율(제고율)은 지방세의 징수실적과 징수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측정치가 높을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 노력이 높다고 판단하는 상향지표이다.

전국의 지방세징수율 추이를 보면 2017년 97.7%에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21년에는 2017년 대비 0.5%p 개선된 99.1%로 나타났다. 9개 도의 평균 지방세징수율은 2019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2019년 대비 0.4%p 높아진 99.1%를 기록했다. 전북자치도 역시 2019년 전년 대비 0.2%p 감소한 98.2%의 징수율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2019년 대비 0.6%p 개선된 98.8%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 활동, 다양한 납부편의서비스 제공 등 자체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국 시도 본청의 2021년 기준 지방세징수율은 경기도가 99.4%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전남 99.2%, 강원 99.1%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부산 97.5%, 제주 97.6%, 인천 97.7% 등의 순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전북자치도는 98.8%로 중위권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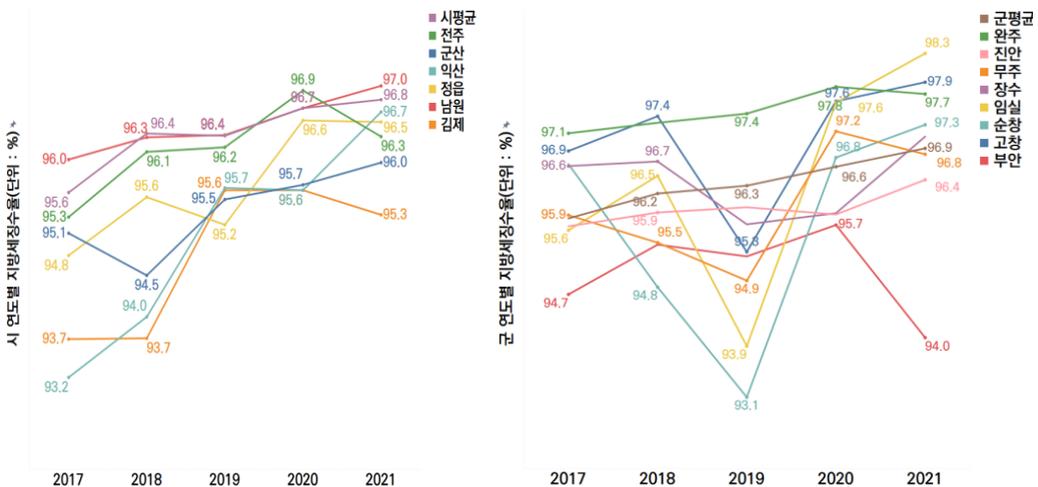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7] 정부계층 및 전국 시도 본청 지방세징수율

2) 전북자치도 시군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전국 시의 지방징수율 평균은 2021년 기준 96.8%인 가운데, 남원이 97.0%로 도내 시 중에서 유일하게 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나머지 시는 모두 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여 익산은 1.0%p, 군산과 남원이 0.3%p 개선되었으나, 전주, 정읍, 김제 등은 전년 대비 부진하였다. 익산의 지표 개선은 지방소득세 징수율이 전년 대비 3.1%p 개선된 것에 기인한 결과이다.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남원이 동종 평균보다 소폭 높아 양호한 수준이었으나, 나머지 시군은 유형 평균보다 낮아 미흡한 수준이다.

2021년 기준 전국 군의 평균 지방세징수율은 96.9%이다. 임실이 98.3%, 고창 97.9%, 완주 97.7%, 순창 97.3%, 장수가 97.1%로 전국 군 평균보다 높았으나, 무주 96.8%, 진안 96.4%, 부안 64.0% 등으로 군 평균보다 낮아 부진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완주, 임실, 순창, 고창 등은 동종 평균보다 높아 양호하였으나, 진안, 무주, 장수, 부안 등은 동종 평균보다 낮아 부진하였다. 지방세징수율이 높은 군에서는 지방세징수 전담할 동반을 가동,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 고액·상습체납자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세징수율을 높인 것이다.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8] 전북자치도 시군별 지방세징수율 추이

[표 3-4]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지방세징수율(제고율)

(단위 :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유형평균
본청	징수율	98.41	98.39	98.21	98.60	98.81	99.12
	제고율	1.0206	0.9998	0.9982	1.0040	1.0021	1.0018
전주	징수율	95.29	96.14	96.20	96.94	96.34	96.84
	제고율	0.9979	1.0011	1.0006	1.0078	0.9938	1.0015
군산	징수율	95.08	94.53	95.52	95.71	96.00	96.68
	제고율	1.0012	0.9826	1.0104	1.0021	1.0030	1.0004
익산	징수율	93.20	93.99	95.67	95.64	96.66	96.68
	제고율	1.0018	0.9933	1.0179	0.9997	1.0106	1.0004
정읍	징수율	94.79	95.55	95.19	96.55	96.53	96.78
	제고율	0.9943	0.9984	0.9962	1.0143	0.9998	1.0004
남원	징수율	96.04	96.33	96.36	96.71	97.00	96.78
	제고율	0.9970	0.9968	1.0003	1.0037	1.0030	1.0004
김제	징수율	93.70	93.71	95.64	95.64	95.32	96.78
	제고율	0.9934	0.9837	1.0206	1.0000	0.9967	1.0004
완주	징수율	97.12	97.28	97.42	97.83	97.72	97.02
	제고율	0.9951	0.9968	1.0015	1.0042	0.9989	1.0041
진안	징수율	95.70	95.91	95.99	95.88	96.41	97.15
	제고율	1.0024	0.9947	1.0008	0.9988	1.0056	1.0056
무주	징수율	95.87	95.45	94.87	97.15	96.80	97.15
	제고율	0.9968	0.9870	0.9938	1.0241	0.9963	1.0056
장수	징수율	96.62	96.69	95.73	95.90	97.07	97.15
	제고율	1.0155	0.9960	0.9900	1.0018	1.0122	1.0056
임실	징수율	95.64	96.47	93.87	97.59	98.34	96.56
	제고율	1.0072	0.9938	0.9730	1.0396	1.0077	1.0016
순창	징수율	96.65	94.77	93.09	96.75	97.25	97.15
	제고율	1.0024	0.9744	0.9823	1.0393	1.0052	1.0056
고창	징수율	96.85	97.38	95.31	97.61	97.90	96.62
	제고율	1.0081	1.0013	0.9788	1.0241	1.0030	0.9989
부안	징수율	94.66	95.42	95.24	95.72	94.00	96.62
	제고율	0.9997	1.0015	0.9981	1.0050	0.9821	0.9989

주 : 2021년 지방세징수율과 지방세징수율 제고율의 전국 평균은 각 98.22%, 1.00%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
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마.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 및 증감률

1) 전북자치도 본청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은 지방세 체납액관리와 축소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측정치가 낮을수록 지방세의 체납액관리와 축소 노력이 높다고 판단하는 하향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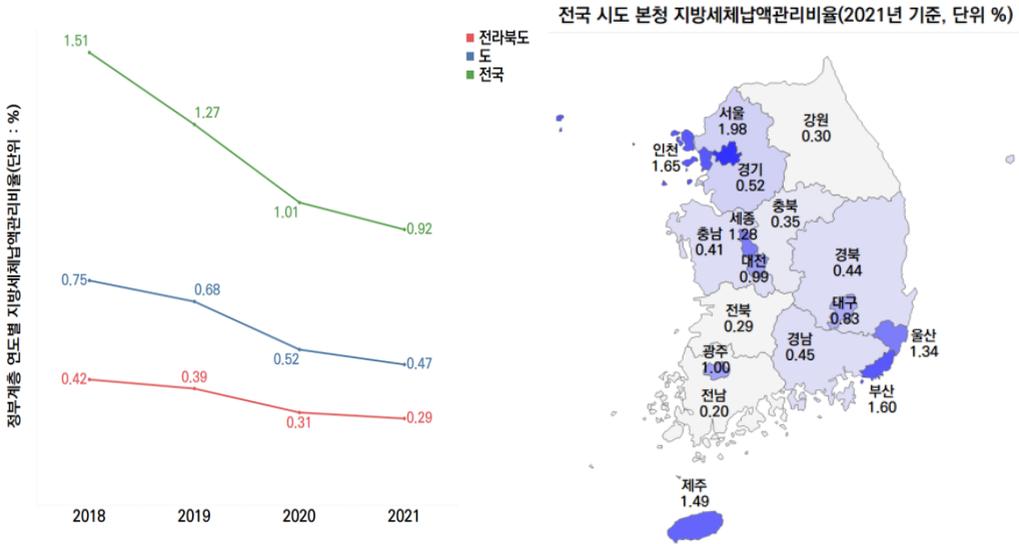
전국과 도의 평균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각 1.51%, 0.75%에서 계속 하락하여 2021년에는 0.92%, 0.42%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전북자치도 본청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8년 0.42%에서 2021년 0.29%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며, 전국 평균과 9개 도 평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전국 시도 본청의 2021년 기준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서울이 1.98%로 가장 높고, 인천 1.65%, 부산 1.6%, 제주 1.49% 등의 순으로 높아 부진함을 나타낸 반면, 전남 0.20%, 전북자치도 0.29%, 강원 0.30% 등의 순으로 낮아 비교적 우수한 수준을 나타냈다.

전국의 평균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추이를 보면 2018년부터 -4%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였다. 9개 도의 평균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은 2018년 2.05%에서 2019년 3.35%로 상승하였다가 2021년에는 -2.56%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전북자치도 본청은 2018년 9.87%에서 계속 하락하여 2021년에는 -0.03% 수준으로 개선되었으나, 전국과 도 평균보다 높아 부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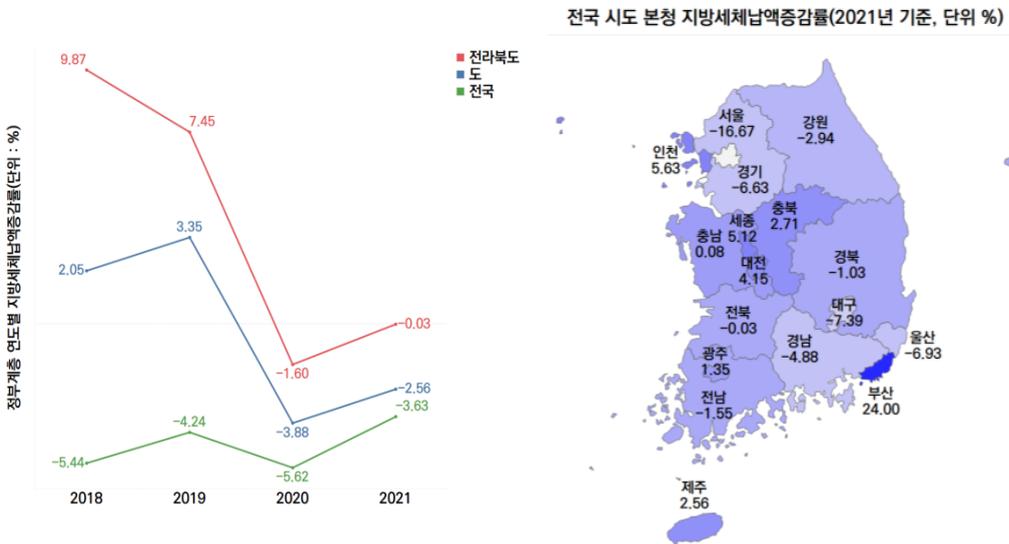
전국 시도 본청의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을 살펴보면 부산이 2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천 5.63%, 세종 5.12%, 대전 4.15%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서울 -16.67%, 대구 -7.39%, 울산 -6.93%, 경기 -6.63% 등의 순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전북자치도 본청은 -0.03%로 17개 시도 중 9번째 수준이다.

2) 전북자치도 시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전국 시의 평균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2018년 1.85%에서 계속 하락하여 2021년에는 1.38%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도내 시 역시 군산, 익산, 남원, 김제가 2018년부터 대체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모두 개선되었고,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전국 시 평균보다 도내 모든 시가 낮게 나타났다.



정부계층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추이 및 전국 시도 본청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정부계층 지방세체납액증감률 추이 및 전국 시도 본청 지방세체납액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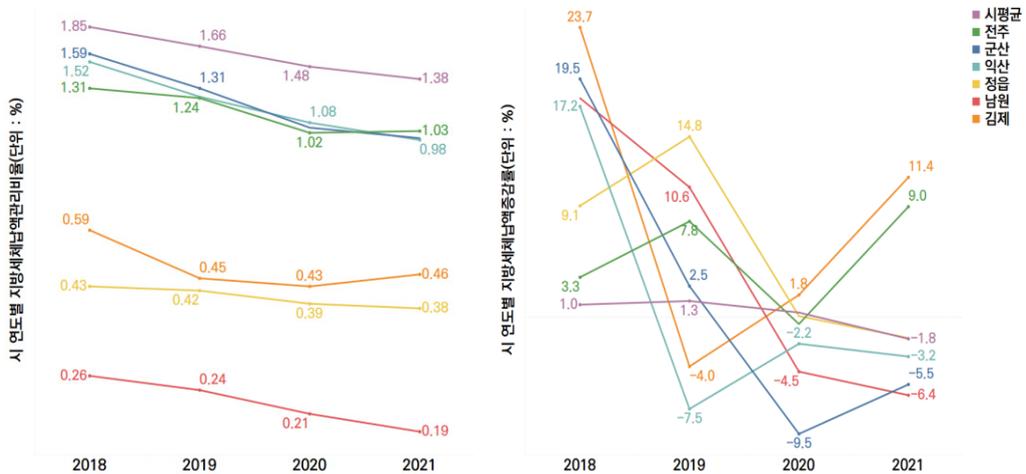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9] 정부계층 및 전국 시도 본청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2021년 기준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전주, 김제가 전년 대비 0.01%p, 0.03%p 상승한 반면, 군산 -0.06%p, 익산 -0.10%p, 정읍 -0.01%p, 남원 -0.02%p 등은 소폭 하락하였다. 유형 평균과 비교해 보면 전주, 정읍, 남원, 김제 등은 유형 평균보다 낮았으나, 군산과 익산은 유형 평균과 전국 평균보다 높아 부진하였다. 도내 시 중 남원이 유형 평균 대비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였는데, 고액체납자 정보관리,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징수 활동을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을 보면 연도별 등락을 반복하지만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2021년 기준 전국 시 평균이 -1.8%인 가운데, 김제와 전주가 각 11.4%, 9.0%로 전년 대비 지방세 체납누계액이 증가하였고, 군산은 -5.5%로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익산, 정읍, 남원 등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유형 평균과 비교해 보면 전주와 김제가 유형 평균과 전국 평균보다 높아 미흡한 결과를 나타냈고, 군산과 남원은 유형 평균과 전국 평균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익산과 정읍은 유형 평균과 대비하여 양호하였으나,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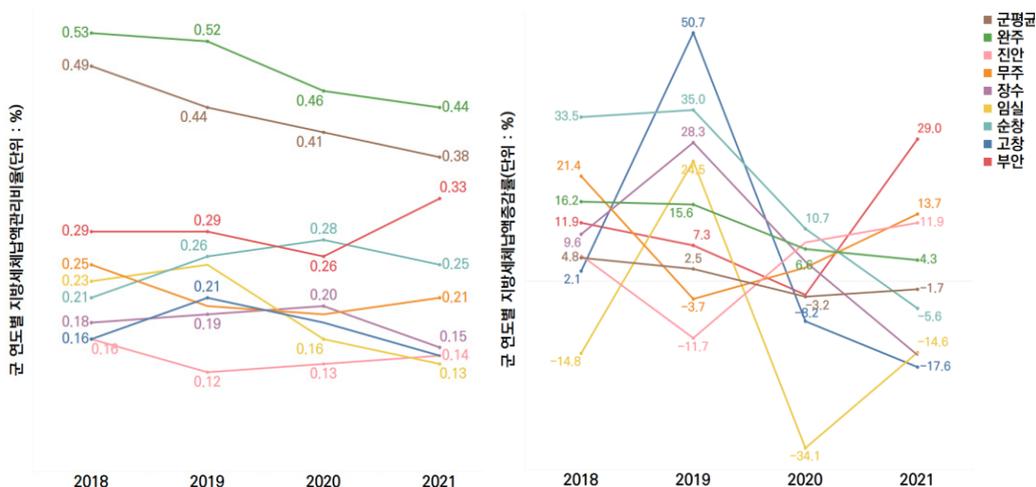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10] 전북자치도 시별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추이

3) 전북자치도 군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전국 군의 2021년 기준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의 평균이 0.38%인 가운데, 완주 0.44%로 도내 군 중 유일하게 전국 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나머지 모든 군이 전국 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완주가 -0.02%p, 장수 -0.05%p, 임실 -0.03%p, 고창 -0.04%p 하락하여 소폭 개선된 반면, 진안, 무주, 김제 등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유형 평균과 비교하면 완주, 진안, 장수, 임실, 고창 등이 유형 및 전국 평균보다 낮아 양호하였으나, 무주, 순창 등은 유형 평균보다 높아 부진하였다.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을 보면 2021년 기준 전국 군 평균은 -1.7%이다. 도내 군 중 부안이 29.0%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무주 13.7%, 진안 11.9%, 완주 4.29%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군 평균보다 높았고, 고창 -17.6%, 장수 -15.1%, 임실 -14.6%, 순창 -5.6% 등의 순으로 군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유형 평균과 비교하면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등이 유형 평균과 전국 평균보다 낮아 우수하였으나, 완주, 진안, 무주, 부안 등은 유형 및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미흡한 결과를 나타냈다.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11] 전북자치도 군별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추이

[표 3-5] 최근 4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단위 :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유형평균
본청	비율	0.42	0.39	0.31	0.29	0.47
	증감률	9.87	7.45	-1.60	-0.03	-2.56
전주	비율	1.31	1.24	1.02	1.03	1.88
	증감률	3.26	7.83	-0.56	9.03	-2.00
군산	비율	1.59	1.31	1.05	0.99	0.93
	증감률	19.47	2.54	-9.54	-5.50	-1.55
익산	비율	1.52	1.25	1.08	0.98	0.93
	증감률	17.22	-7.50	-2.17	-3.22	-1.55
정읍	비율	0.43	0.42	0.39	0.38	0.47
	증감률	9.10	14.75	0.09	-1.70	0.70
남원	비율	0.26	0.24	0.21	0.19	0.47
	증감률	17.90	10.62	-4.45	-6.38	0.70
김제	비율	0.59	0.45	0.43	0.46	0.47
	증감률	23.68	-4.03	1.82	11.43	0.70
완주	비율	0.53	0.52	0.46	0.44	0.70
	증감률	16.22	15.64	6.55	4.29	-2.77
진안	비율	0.16	0.12	0.13	0.14	0.16
	증감률	5.25	-11.65	7.90	11.91	-4.46
무주	비율	0.25	0.20	0.19	0.21	0.16
	증감률	21.44	-3.65	2.75	13.71	-4.46
장수	비율	0.18	0.19	0.20	0.15	0.16
	증감률	9.57	28.30	3.97	-15.11	-4.46
임실	비율	0.23	0.25	0.16	0.13	0.23
	증감률	-14.76	24.49	-34.11	-14.57	-1.46
순창	비율	0.21	0.26	0.28	0.25	0.16
	증감률	33.52	34.96	10.70	-5.57	-4.46
고창	비율	0.16	0.21	0.18	0.14	0.33
	증감률	2.05	50.72	-8.21	-17.57	2.38
부안	비율	0.29	0.29	0.26	0.33	0.33
	증감률	11.92	7.29	-2.80	29.01	2.38

주 : 2021년 지방세체납액관리율과 지방세체납액증감률의 전국 평균은 각 0.92%, -3.63%임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시 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바.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및 증감률

1) 전북자치도 본청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은 세외수입 체납액관리와 축소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측정치가 낮을수록 세외수입 체납액관리와 축소 노력이 높다고 판단하는 하향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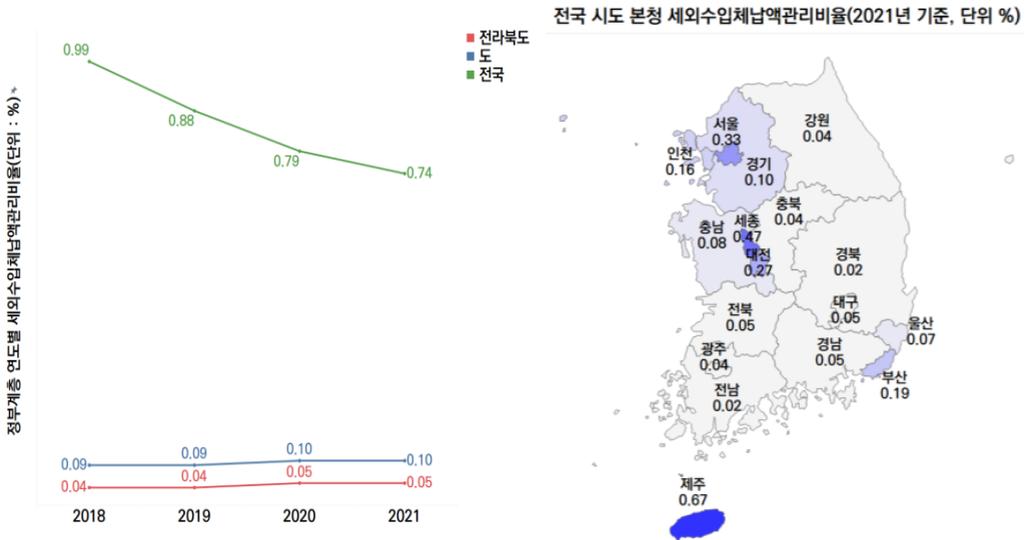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의 전국 평균은 2018년 0.9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에는 0.74%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반면 9개 도의 평균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0.09~0.10%로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전북자치도 본청 역시 0.04~0.05%로 변동 폭이 매우 작다.

2021년 기준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전국(0.74%), 도(0.10%), 전북자치도 본청(0.05%) 순으로 높았는데, 전국 평균은 전년 대비 0.05%p 하락하여 개선된 반면, 도와 전북자치도 본청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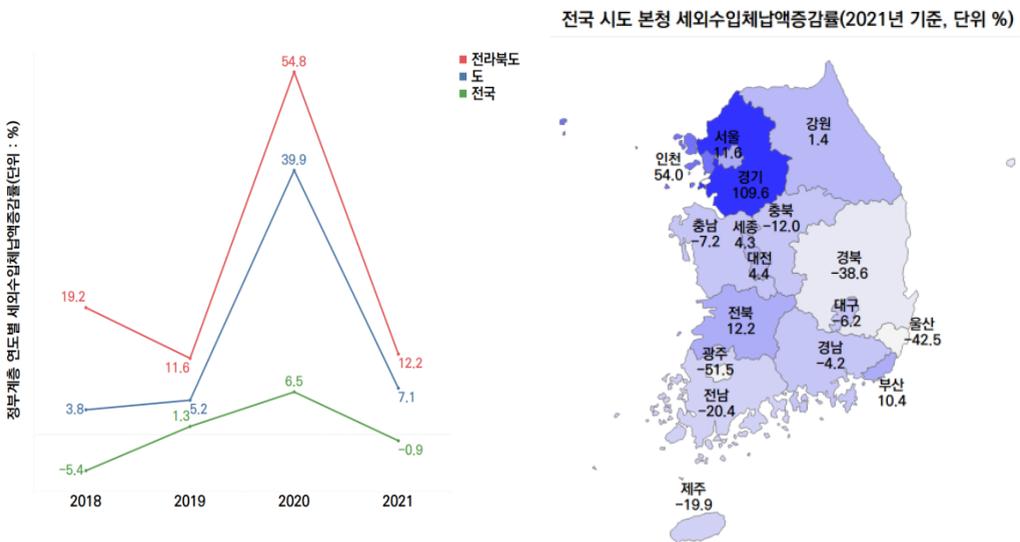
2021년 기준 전국 시도 본청의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평균이 0.16%인 가운데, 제주가 0.6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세종 0.47%, 서울 0.33%, 대전 0.27%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경북 및 전남 0.02%, 충북 및 강원 0.04% 등의 순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전국(0.74%), 광역(0.16%) 및 도(0.10%) 평균보다 낮은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전북자치도 본청 역시 0.05% 수준으로 전국, 광역, 도 평균보다 낮아 우수하였다.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은 2021년 기준 전북자치도(12.2%), 도(7.1%), 전국(-0.9%) 순으로 높았으나, 전년과 비교하면 전북자치도(-42.6%p), 도(32.9%p), 전국(-7.4%p) 순으로 감소하여 전북자치도 본청의 개선 폭이 전국 및 도보다 컸다.

2021년 기준 전국 시도 본청의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의 평균은 20.0%이다. 이 가운데 경기가 109.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인천 54.0%, 전북자치도 12.2%, 서울 11.6% 등의 순으로 높아 부진한 반면, 광주 -51.5%, 울산 -42.2%, 경북 -38.6%, 전남 -20.37% 등의 순으로 낮아 전국(-0.9%), 광역(20.0%) 및 도(7.1%) 평균보다 매우 낮은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다.



정부계층 세외수입채납액관리비율 추이 및 전국 시도 본청 세외수입채납액관리비율



정부계층 세외수입채납액증감률 추이 및 전국 시도 본청 세외수입채납액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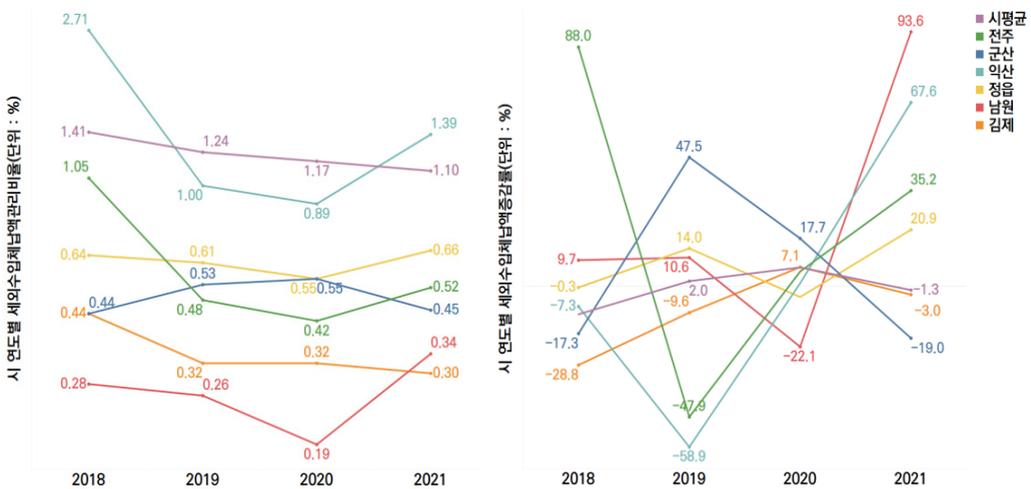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12] 정부계층 및 전국 시도 본청 세외수입채납액관리비율(증감률)

2) 전북자치도 시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전국 시 평균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2018년 1.41%에서 계속 하락하여 2021년에는 1.10%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2018 대비 2021년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이 개선된 도내 시는 전주, 익산, 김제 등인 반면, 군산, 정읍, 남원 등은 비율이 상승하였다. 2021년 기준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익산이 1.39%로 가장 높아 도내 시 중 유일하게 전국 시 평균보다 높았고, 그다음으로 정읍 0.66%, 전주 0.52%, 군산 0.45%, 등의 순으로 높았다. 유형 평균과 비교해 보면 익산과 정읍이 유형 평균보다 높아 부진하였으나, 전주, 군산, 남원, 김제 등은 유형 및 전국 평균보다 낮아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

2021년 기준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은 전년 대비 남원이 115.7%p, 익산 66.4%p, 전주 29.7%p, 정읍 24.7%p 등의 순으로 증가하여 부진하였으나, 군산과 김제는 각 -36.7%p, -10.1%p 감소하여 개선되었으며, 유형 및 전국 평균보다 매우 낮아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다. 군산은 COVID-19 팬데믹으로 체납처분유예를 실시하였으나, 동시에 분할납부제도를 추진하여 세외수입체납액을 감소시켰고, 김제시는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관련 지표를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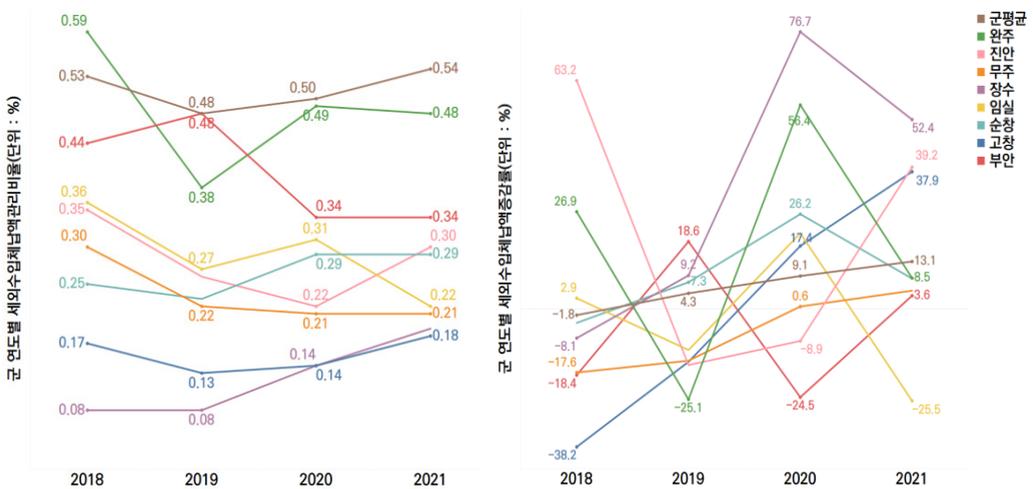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13] 전북자치도 시별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추이

3) 전북자치도 군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전국 군의 2021년 기준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의 평균은 0.54%이다. 도내 모든 군이 전국 군 평균보다 낮은 가운데, 완주가 0.48%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부안이 0.34%, 진안 0.30%, 순창 0.29%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고창 0.18%, 장수 0.19%, 무주 0.21%, 임실 0.22% 등의 순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전년 대비 완주와 임실은 소폭 개선되었으나,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 부안 등은 소폭 증가하였거나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유형 평균과 비교해 보면 도내 모든 군이 유형 및 전국 평균보다 낮은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을 보면 2021년 기준 군 평균이 13.1%인 가운데, 장수(52.4%), 진안(39.2%), 고창(37.9%) 등은 전국 군 평균보다 높은 반면, 완주(8.5%), 순창(8.4%), 무주(5.0%), 부안(3.6%), 임실(-25.49%) 등은 군 평균보다 낮았다. 전년과 비교해 보면 완주(-47.9%p), 임실(-46.42%p), 장수(-24.3%p), 순창은(-17.9%p) 등은 감소하여 개선되었으나, 진안(48.1%p), 부안(28.1%p), 고창(20.6%p), 무주(4.4%p) 등은 증가하여 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유형 평균과 비교하면 무주, 임실, 순창, 부안 등이 유형 평균보다 낮았으며, 이 중 임실은 전국 평균(-0.9%)보다 낮아 우수한 실적을 나타냈다.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14] 전북자치도 군별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추이

[표 3-6] 최근 4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단위 :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유형평균
본청	비율	0.04	0.04	0.05	0.05	0.10
	증감률	19.21	11.56	54.79	12.21	7.05
전주	비율	1.05	0.48	0.42	0.52	1.35
	증감률	87.96	-47.89	5.52	35.24	1.46
군산	비율	0.44	0.53	0.55	0.45	0.83
	증감률	-17.28	47.47	17.68	-18.97	3.44
익산	비율	2.71	1.00	0.89	1.39	0.83
	증감률	-7.33	-58.92	1.22	67.59	3.44
정읍	비율	0.64	0.61	0.55	0.66	0.65
	증감률	-0.34	14.01	-3.84	20.89	11.81
남원	비율	0.28	0.26	0.19	0.34	0.65
	증감률	9.70	10.62	-22.13	93.58	11.81
김제	비율	0.44	0.32	0.32	0.30	0.65
	증감률	-28.84	-9.58	7.13	-2.97	11.81
완주	비율	0.59	0.38	0.49	0.48	0.72
	증감률	26.86	-25.08	56.40	8.50	1.61
진안	비율	0.35	0.26	0.22	0.30	0.56
	증감률	63.15	-15.57	-8.92	39.20	71.27
무주	비율	0.30	0.22	0.21	0.21	0.56
	증감률	-17.64	-14.37	0.63	5.02	71.27
장수	비율	0.08	0.08	0.14	0.19	0.56
	증감률	-8.13	9.22	76.65	52.35	71.27
임실	비율	0.36	0.27	0.31	0.22	0.38
	증감률	2.94	-11.43	20.93	-25.49	-5.19
순창	비율	0.25	0.23	0.29	0.29	0.56
	증감률	-3.91	7.34	26.20	8.35	71.27
고창	비율	0.17	0.13	0.14	0.18	0.47
	증감률	-38.24	-14.68	17.38	37.93	11.55
부안	비율	0.44	0.48	0.34	0.34	0.47
	증감률	-18.35	18.60	-24.48	3.63	11.55

주 : 2021년 세외수입체납액관리율과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의 전국 평균은 0.74% 각, -0.89%임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 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2. 세출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가. 개요

여기서 살펴보는 세출관리 측면의 재정효율성 지표는 외부지원관리 분야와 내부경비관리 분야로 구성된다. 외부지원관리 분야는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과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의 2개 지표로 구성되고, 내부경비관리 분야는 자체경비비율(증감률)로 측정한다. 세출관리 재정효율성 지표의 성격은 모두 측정값이 낮을수록 양호한 하향지표이다.

[표 3-7] 세출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평가지표 분석 항목(FY2021 기준)

구분	지표명	산식	지표성격
세출관리 (외부지원)	지방보조금비율	지방보조금 결산액/세출결산액	하향
	(지방보조금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전년도 지방보조금결산액	하향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세출결산액	하향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전년도 결산액) /전년도 출자·출연·전출금 결산액	하향
세출관리 (내부경비)	자체경비비율	자체경비결산액/자체세입결산액	하향
	(자체경비증감률)	(자체경비-전년도 자체경비) /전년도 자체경비	하향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나. 지방보조금 비율 및 증감률

1) 전북자치도 본청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은 지방보조금으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써 측정치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하향지표이다.

전국의 지방보조금비율의 추이를 보면 2017년 6.31%에서 계속 하락하여 2021년에 5.23%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이는 세출결산액이 지방보조금 결산액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지방보조금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개선된 것이다(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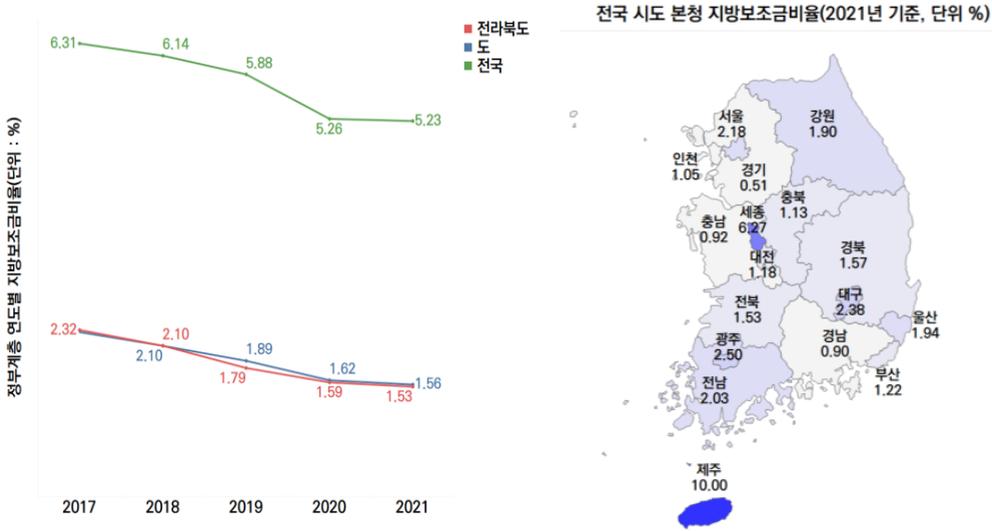
9개 도 평균과 전북자치도 본청 역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 각 2.29%, 2.32%에서 2021년 1.56%, 1.53%로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전북자치도 본청은 전국 및 도 평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증가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민간행사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의 제한적 시행에 기인한 것이다.

2021년 기준 17개 시도 본청의 지방보조금비율의 평균이 2.31%인 가운데, 제주가 10%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세종 6.27%, 광주 2.50%, 대구 2.38% 등의 순으로 높은 반면, 경기 0.51%, 경남 0.90%, 충남 0.92%, 인천 1.05% 등의 순으로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전북자치도 본청은 1.53%로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중위권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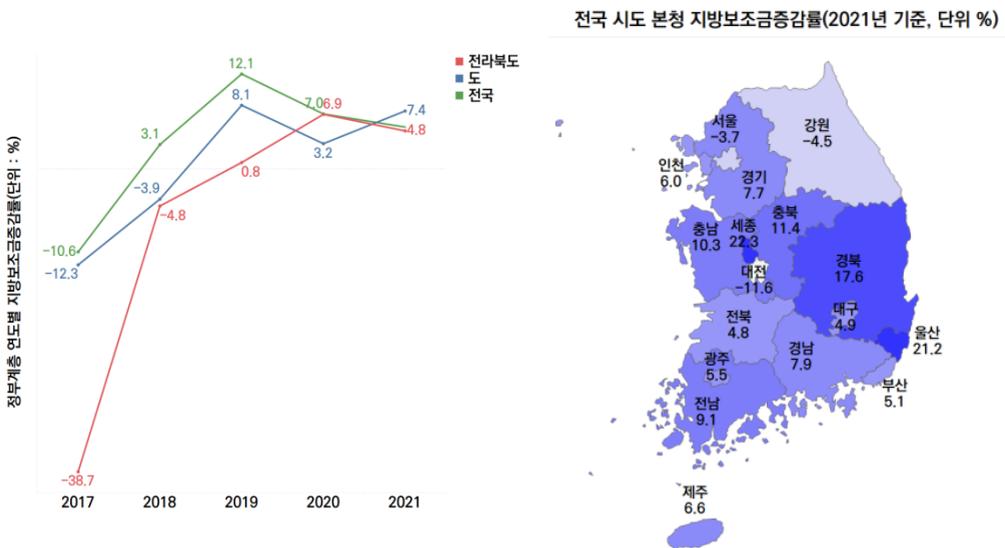
정부계층별 지방보조금증감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은 2017년 -10.6%에서 2019년 12.1%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21년에는 5.3%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9개 도는 2017년 -12.3%에서 2019년 8.1%로 상승한 후 2020년 3.2%로 하락하였다가 2021년 7.4% 수준으로 상승하여 부진함을 나타냈다. 반면 전북자치도 본청은 2017년 -38.7%에서 2020년까지 계속 상승하였다가 2021년에는 4.8% 수준으로 하락하여, 전국 및 도 평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준이었다.

17개 시도 본청의 2021년 기준 지방보조금증감률의 평균은 7.1%이다. 이 가운데 세종이 22.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울산 21.2%, 경북 17.6%, 충북 11.4%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대전 -11.6%, 강원 -4.5%, 서울 -3.7%, 전북자치도 4.8% 등의 순으로 낮아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이 비교적 우수한 시도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엄정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와 이에 따른 개선으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 축소해 나가고 있다.



정부계층 지방보조금비율 추이 및 전국 시도 본청 지방보조금비율



정부계층 지방보조금증감률 추이 및 전국 시도 본청 지방보조금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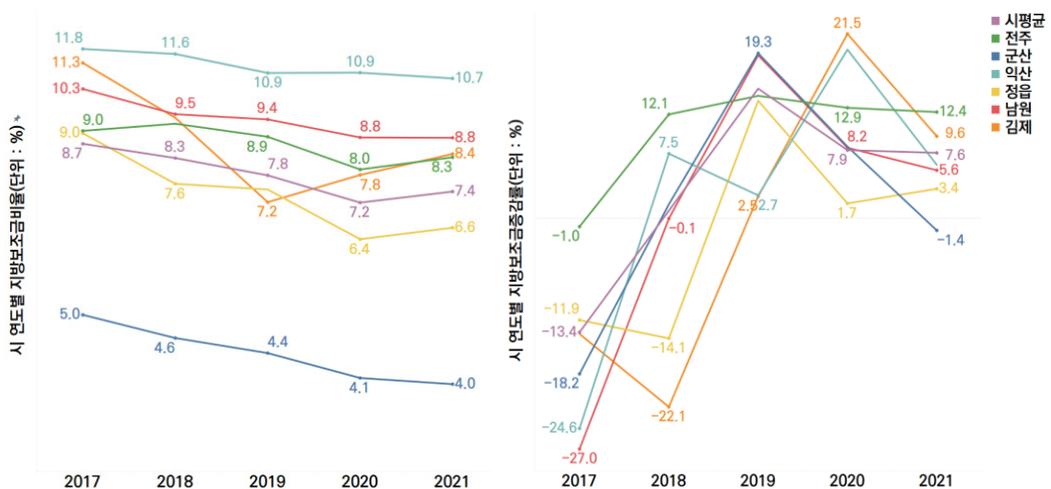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15] 정부계층 및 전국 시도 본청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2) 전북자치도 시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전국 시 평균 지방보조금비율은 2017년 8.7%에서 매년 개선되어 2020년에는 7.2%로 하락한 후 2021년에는 7.4%로 소폭 상승하였다. 도내 시 역시 대체로 하락하여 2021년 지방보조금비율이 2017년 대비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지방보조금 비율은 군산, 익산, 남원 등이 소폭 개선되었고, 전주, 정읍, 김제 등은 상승하여 부진하였다. 같은 유형의 평균과 비교해 보면 군산과 정읍이 동종의 평균보다 낮아 우수하였으나, 전주, 익산, 남원, 김제 등은 전국 및 유형 평균보다 높아 부진하였다. 군산이 4.0%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는 무분별한 지방보조금 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보조금 한도총액의 약 50%만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지방보조금증감률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2017년 대비 대체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은 전년 대비 1.7%p 상승한 반면, 나머지 모든 시는 전년 대비 하락하여 개선되었다. 전주와 김제는 전국 시 평균인 7.6%보다 높았으나, 군산, 익산, 정읍, 남원 등은 시 평균보다 낮았고, 유형 평균과 비교해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주와 김제는 유형 평균보다 높아 부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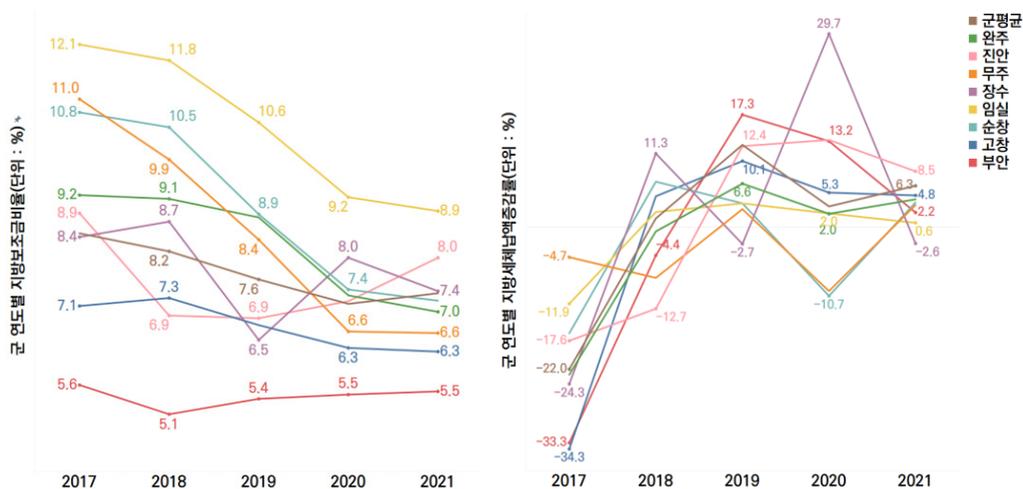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16] 전북자치도 시별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추이

3) 전북자치도 군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전국 군의 평균 지방보조금비율은 2017년 8.5%에서 매년 개선되어 2020년 7.2%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에는 7.4%로 소폭 상승하였다. 도내 군 중 완주, 무주, 임실, 순창 등은 2017년 이후부터 매년 하락하여 개선되었고, 고창은 2018년 이후부터 하락하는 추세이나, 진안과 부안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국 군 평균과 비교해 보면 2021년 기준 진안과 임실이 군 평균보다 높았으나, 나머지 군은 모두 군 평균보다 낮았고, 유형 평균과 비교해 보면 완주, 무주, 고창, 부안 등이 같은 유형보다 낮아 양호하였고,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은 동종의 유형 평균보다 높아 부진하였다.

전국 군의 평균 지방보조금증감률은 2017년 -22.0%에서 2019년 12.6%까지 상승하였으나, 2020년 3.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가 2021년 6.3%로 상승하였다.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지방보조금증감률이 하락한 도내 군은 진안, 장수, 임실, 고창 등인 반면, 전년 대비 상승한 군은 완주, 무주, 순창 등이었다. 유형 평균과 비교해 진안을 제외한 모든 군이 유형 및 전국 평균보다 낮아 우수하였다. 장수가 -2.6%로 도내 군 중 유일하게 감소를 나타냈는데, 지방보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결과이다.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17] 전북자치도 군별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추이

[표 3-8]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단위 :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유형평균
본청	비율	2.32	2.10	1.79	1.59	1.53	1.56
	증감률	-38.68	-4.77	0.78	6.93	4.82	7.36
전주	비율	9.03	9.24	8.86	7.97	8.29	7.15
	증감률	-1.00	12.12	14.29	12.89	12.39	7.15
군산	비율	4.98	4.62	4.40	4.06	3.98	7.82
	증감률	-18.22	1.61	19.26	8.35	-1.44	10.96
익산	비율	11.77	11.58	10.89	10.90	10.70	7.82
	증감률	-24.60	7.53	2.65	19.69	6.22	10.96
정읍	비율	8.96	7.61	7.47	6.36	6.60	8.08
	증감률	-11.92	-14.07	13.72	1.71	3.42	6.81
남원	비율	10.34	9.53	9.37	8.84	8.83	8.08
	증감률	-27.00	-0.06	19.03	8.22	5.59	6.81
김제	비율	11.25	9.42	7.17	7.83	8.38	8.08
	증감률	-13.55	-22.08	2.53	21.53	9.56	6.81
완주	비율	9.21	9.14	8.79	7.32	7.01	7.64
	증감률	-22.83	-0.73	6.64	1.98	4.21	7.84
진안	비율	8.87	6.94	6.89	7.21	8.03	7.17
	증감률	-17.60	-12.65	12.42	13.37	8.53	3.83
무주	비율	11.02	9.88	8.37	6.64	6.61	7.17
	증감률	-4.71	-7.90	2.70	-9.93	3.33	3.83
장수	비율	8.42	8.71	6.48	8.03	7.40	7.17
	증감률	-24.26	11.27	-2.66	29.74	-2.59	3.83
임실	비율	12.05	11.75	10.58	9.17	8.91	6.65
	증감률	-11.88	2.26	3.59	2.04	0.59	2.91
순창	비율	10.77	10.49	8.85	7.43	7.22	7.17
	증감률	-16.44	6.94	3.60	-10.68	3.73	3.83
고창	비율	7.12	7.27	6.76	6.33	6.26	7.80
	증감률	-34.28	4.69	10.12	5.25	4.82	9.29
부안	비율	5.63	5.08	5.37	5.45	5.51	7.80
	증감률	-33.33	-4.42	17.26	13.18	2.18	9.29

주 : 2021년 지방보조금비율과 지방보조금증감률의 전국 평균은 각 5.23%, 5.31%임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 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다.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및 증감률

1) 전북자치도 본청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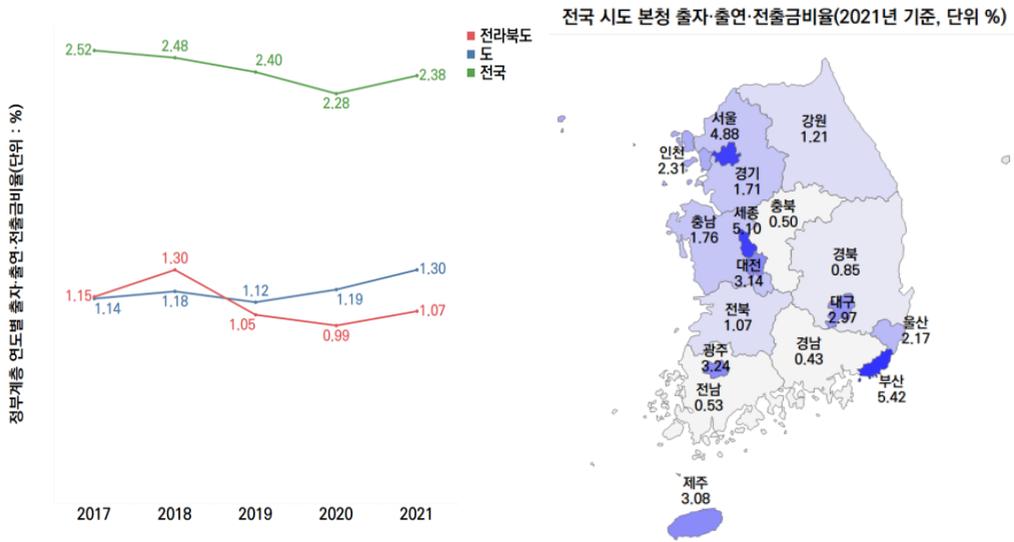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은 출자·출연·전출금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측정값이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하향지표이다.

전국의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의 추이를 보면 2017년 2.52%에서 계속 감소하여 2020년 2.28%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21년 양자의 속도가 역전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9개 도의 평균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2019년 이후부터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북자치도 본청은 2018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21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전국과 도와 비교하면 전국 및 도 평균보다 낮아 우수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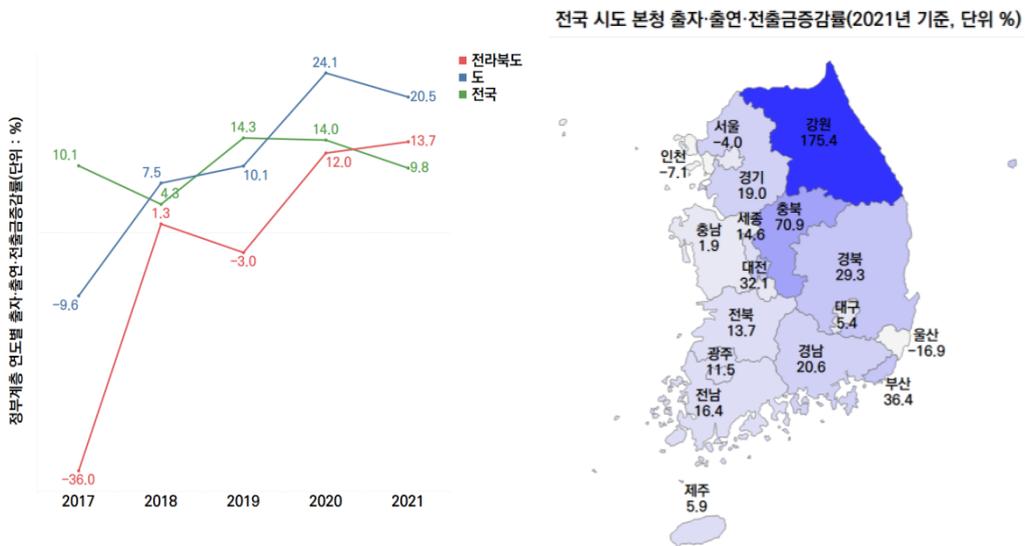
2021년 기준 전국 시도 본청의 출자·출연·전출금비율 평균이 2.37%인 가운데, 부산이 5.4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세종 5.10%, 서울 4.88%, 광주 3.24% 등의 순으로 높아 부진한 반면, 경남 0.43%, 충북 0.50%, 전남 0.53%, 경북 0.85% 등의 순으로 낮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 본청은 1.07%로 17개 시도 중 1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계층별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은 2019년 이후부터 매년 감소하여 개선되고 있다. 9개 도의 평균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은 2017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24.1%까지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3.6%p 감소한 20.5% 수준이다. 전북자치도 본청은 2019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9개 도 평균보다 낮은 반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17개 시도 본청의 2021년 기준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의 평균은 25% 수준이다. 이 가운데 강원이 175.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충북 70.9%, 부산 36.4%, 대전 32.1% 등의 순으로 높아 부진한 반면, 울산 -16.9%, 인천 -7.1%, 서울 -4.0%, 충남 1.9% 등의 순으로 낮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관광재단에 대한 업무 이관을 통해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감소하면서 비율개선 효과가 있었다(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전북자치도 본청은 13.7%로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높아 중위권 수준이다.



정부계층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추이 및 전국 시도 본청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정부계층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추이 및 전국 시도 본청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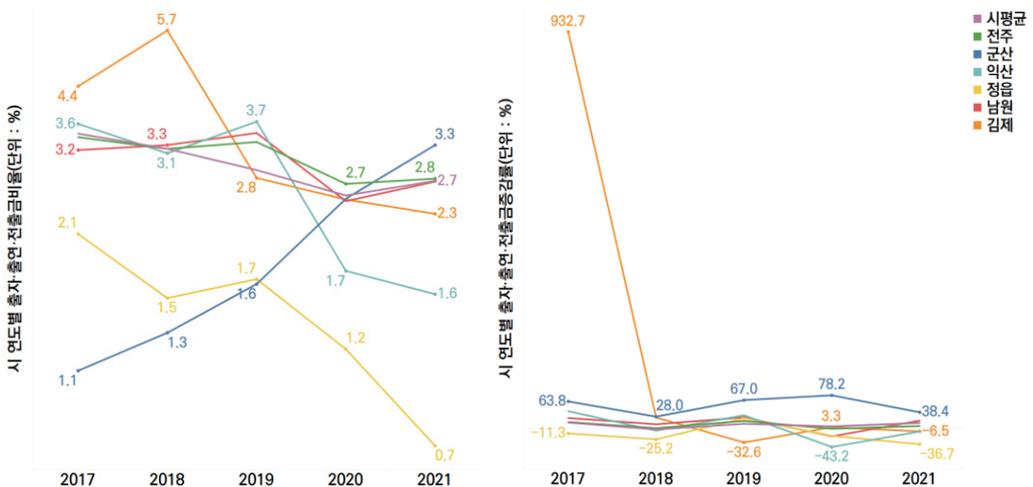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18] 정부계층 및 전국 시도 본청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2) 전북자치도 시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전국 시 평균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의 추이를 보면 2017년 3.4%에서 매년 감소하여 2020년에는 2.5%까지 개선되었다가 양자의 속도가 역전하면서 2021년 다소 증가하였다. 도내 시는 대체로 2019년 이후부터 감소하여 개선되는 추세이나, 군산은 2017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21년에는 3.3%로 부진하였다. 2021년 기준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을 보면 전주와 군산이 전국 시 평균보다 높았고, 나머지 시는 모두 시 평균보다 낮았다. 유형 평균과 비교해 보아도 전주와 군산이 같은 유형의 평균보다 높아 부진하였고, 익산, 정읍, 김제 등은 전국 및 유형 평균보다 낮아 우수하였다. 정읍의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이 0.7%로 가장 낮았는데, 세출결산액이 증가한 반면, 공기업특별자본전출금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전국 시의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은 매년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도내 시 중 정읍, 김제는 2019년 이후부터 계속 개선되었고, 나머지 시는 대체로 시 평균과 유사하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양상이다. 김제의 2017년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이 932.7%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이 포함되어 발생한 현상이었다. 유형 평균과 비교하면 익산, 정읍, 김제 등은 낮았고, 전주, 군산, 남원 등은 높아 부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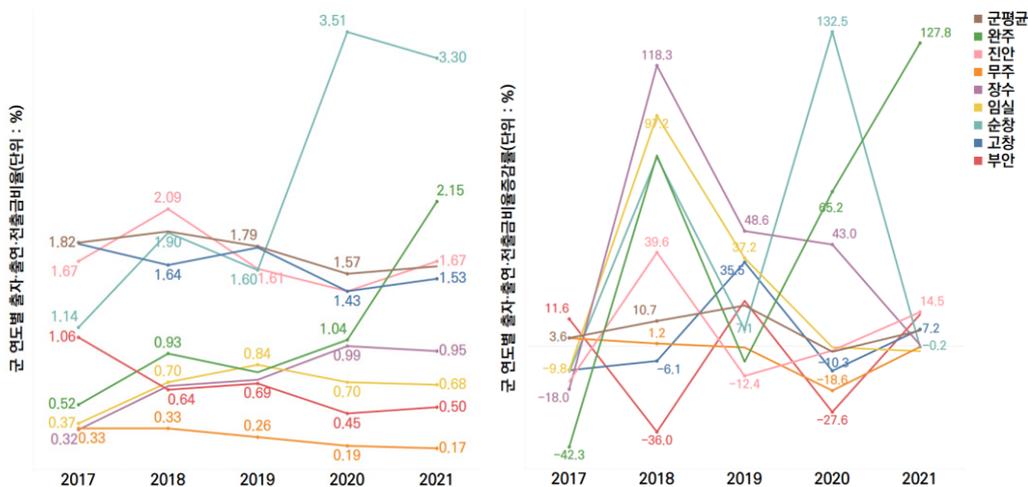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19] 전북자치도 시별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추이

3) 전북자치도 군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전국 군 평균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2018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다소 상승하여 부진하였다. 도내 군은 완주가 유일하게 2017년 이후부터 지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이고, 무주와 임실은 2019년 이후부터 매년 개선되는 추세인 반면, 진안, 고창, 부안 등은 2021년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유형 평균과 비교해 보면 2021년 기준 완주, 무주,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등은 유형 및 전국 평균보다 낮아 우수하였고, 진안과 순창은 같은 유형의 평균보다 높아 미흡하였다.

전국 군의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의 추이는 2017년 이후부터 증가하여 2019년에는 17.26%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2.2% 수준까지 개선된 후 2021년에는 6.7%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장수와 임실은 2017년 각 118.3%, 97.2%에서 매년 개선되어 2021년에는 각 0.7%, -2.0%까지 감소한 반면, 완주, 진안, 무주, 고창 등은 전년 대비 증가하여 악화되었다. 2021년 기준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이 가장 높은 군은 완주가 127.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진안 14.5%, 부안 13.5%, 고창 7.2% 등의 순으로 높아 전국 군 평균보다 높았고,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은 전국 군 평균보다 낮았다. 유형 평균과 비교하면 임실만이 같은 유형의 평균보다 낮아 우수하였다.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20] 전북자치도 군별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추이

[표 3-9] 최근 5년간 전복지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단위 :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유형평균
본청	비율	1.15	1.30	1.05	0.99	1.30	2.38
	증감률	-36.01	1.30	-3.02	12.02	13.73	20.49
전주	비율	3.38	3.19	3.30	2.68	2.75	2.49
	증감률	15.40	1.11	18.01	-0.32	6.20	2.62
군산	비율	1.06	1.28	1.63	2.49	3.25	2.50
	증감률	63.80	28.00	66.97	78.23	38.35	0.27
익산	비율	3.61	3.12	3.65	1.74	1.55	2.50
	증감률	40.90	-4.80	31.29	-43.15	-6.75	0.27
정읍	비율	2.09	1.52	1.67	1.18	0.73	2.83
	증감률	-11.31	-25.17	24.30	-16.98	-36.65	9.73
남원	비율	3.17	3.25	3.45	2.46	2.71	2.83
	증감률	24.94	10.24	26.35	-18.18	18.75	9.73
김제	비율	4.35	5.74	2.76	2.48	2.31	2.83
	증감률	932.74	26.07	-32.55	3.26	-6.45	9.73
완주	비율	0.52	0.93	0.78	1.04	2.15	2.48
	증감률	-42.34	80.52	-6.46	65.21	127.82	14.16
진안	비율	1.67	2.09	1.61	1.43	1.67	1.05
	증감률	-14.76	39.61	-12.42	-1.72	14.47	-1.92
무주	비율	0.33	0.33	0.26	0.19	0.17	1.05
	증감률	3.50	1.22	-0.43	-18.60	-0.15	-1.92
장수	비율	0.32	0.67	0.72	0.99	0.95	1.05
	증감률	-18.01	118.33	48.62	42.95	0.66	-1.92
임실	비율	0.37	0.70	0.84	0.70	0.68	1.08
	증감률	-9.82	97.22	37.23	-0.34	-1.99	3.44
순창	비율	1.14	1.90	1.60	3.51	3.30	1.05
	증감률	-10.79	79.68	7.14	132.54	-0.20	-1.92
고창	비율	1.81	1.64	1.78	1.43	1.53	1.57
	증감률	-10.02	-6.10	35.48	-10.25	7.19	1.14
부안	비율	1.06	0.64	0.69	0.45	0.50	1.57
	증감률	11.58	-36.00	19.22	-27.62	13.45	1.14

주 : 2021년 출자·출연·전출금비율과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의 전국 평균은 각 2.38%, 9.75%임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라. 자체경비 비율 및 증감률

1) 전북자치도 본청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비율(증감률)은 2019년에 신규 편입된 지표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경비 관리 및 축소 노력 정도를 측정하며, 측정값이 낮을수록 내부 경비관리 노력이 높다고 판단하는 하향지표로 2019년 신규 편입된 지표이다.

정부계층별 자체경비비율의 추이를 보면 전국은 자체세입 결산액이 자체경비 결산액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자체경비비율이 감소하여 2019년 10.2%에서 2021년 9.3% 수준까지 개선되었다. 9개 도 평균과 전북자치도 본청 역시 매년 감소하여 2019년 각 4.3%, 5.8%에서 2021년 3.4%, 4.1%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전북자치도 본청의 자체경비비율도 평균보다 높고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데, 이는 도의 자체경비비율보다 기초단체의 자체경비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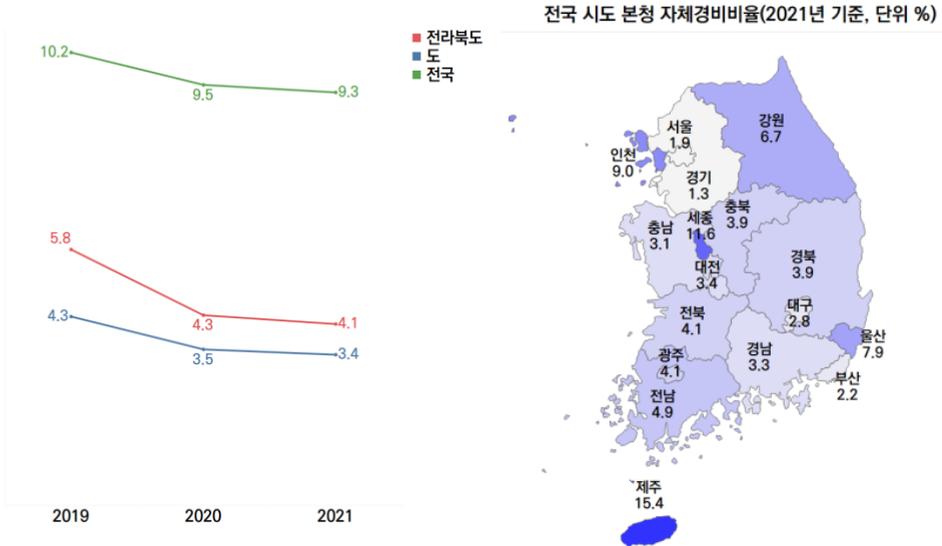
2021년 기준 전국 시도 본청의 자체경비비율 평균이 5.3%인 가운데, 제주가 15.4%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세종 11.6%, 인천 9.0%, 울산 7.9% 등의 순으로 높아 부진한 반면, 경기 1.3%, 서울 1.9%, 대구 2.8%, 충남 3.1% 등의 순으로 낮아 우수하였다. 전북자치도 본청은 4.1%로 17개 시도 중 7번째로 높아 중위권 수준이다.

정부계층별 자체경비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은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으로 2019년 9.1%에서 2020년 4.5%로 하락하였다가 2021년 8.8%까지 상승하여 부진하였다. 9개 도 평균 자체경비증감률은 전국과 유사하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2021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9.6%까지 상승하였고, 전북자치도 본청은 2019년 이후부터 계속 상승하였으나, 전국 및 도 평균보다 낮아 우수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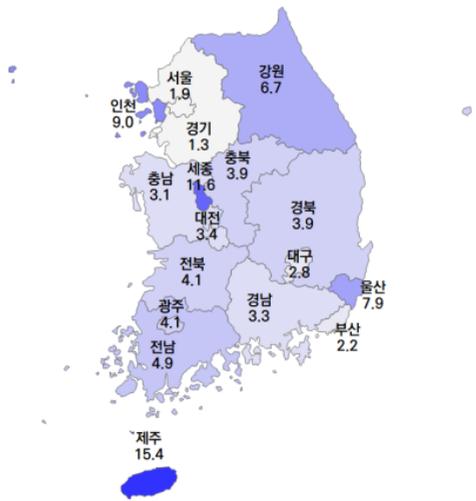
17개 시도 본청의 2021년 기준 자체경비증감률의 평균은 10.2%이다. 이 가운데 세종이 45.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인천 44.8%, 울산 32.1%, 제주 19.2% 등의 순으로 높아 부진한 반면, 대구 -13.6%, 서울 -7.3%, 충남 -5.7%, 부산 -3.0% 등의 순으로 낮아 우수하였다. 자체경비비율은 낮은 광역단체는 자체수입 증가와 자체경비 감소에 따른 결과로서 자체경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체경비를 절감시켜 재정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자치도 본청은 4.1%로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중위권 수준에 해당한다.

정부계층 연도별 자체경비비율(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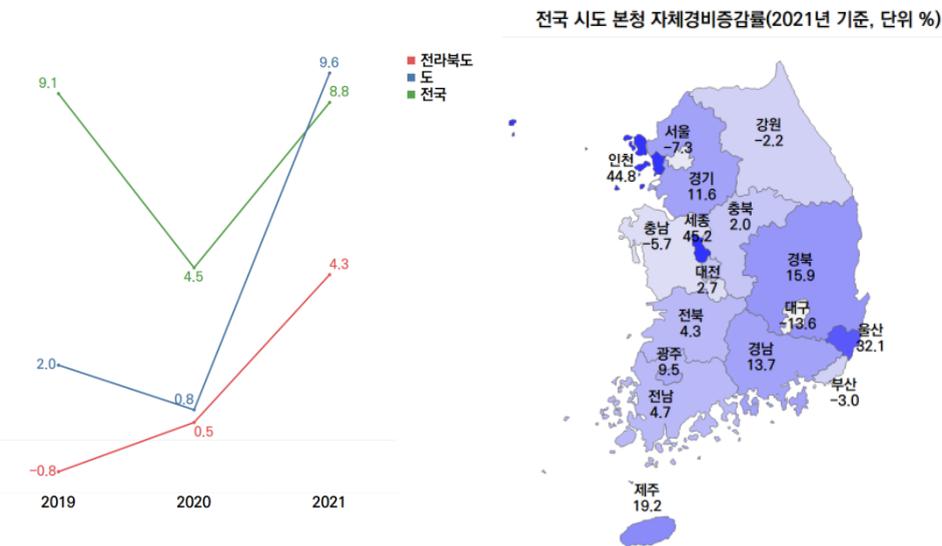


전국 시도 본청 자체경비비율(2021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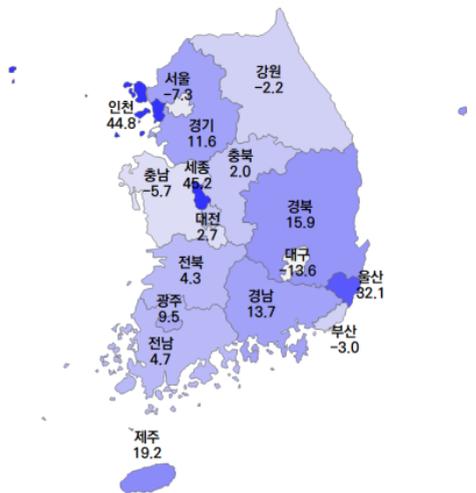


전북자치도 본청 자체경비비율 추이 및 전국 시도 본청 자체경비비율

정부계층 연도별 자체경비증감률(단위 : %)



전국 시도 본청 자체경비증감률(2021년 기준, 단위 %)



전북자치도 본청 자체경비증감률 추이 및 전국 시도 본청 자체경비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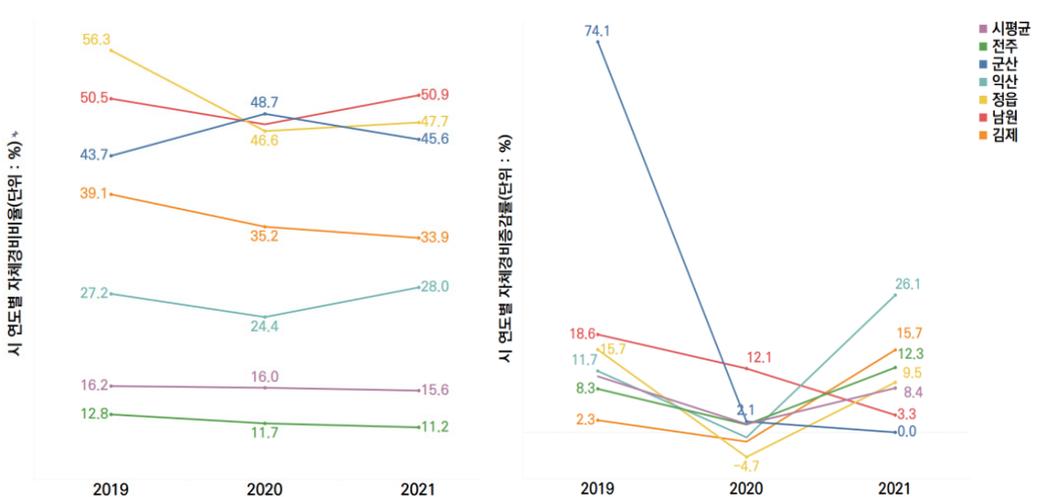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21] 정부계층 및 전국 시도 본청 자체경비비율(증감률)

2) 전북자치도 시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전국 시의 평균 자체경비비율은 2017년 16.2%에서 계속 하락하여 2021년에는 15.6%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도내 시 중 전주와 김제가 매년 하락한 반면, 익산, 정읍, 남원 등은 2020년에 하락하였다가 2021년에 상승하였고, 군산은 역으로 2020년 상승한 후 2021년에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전국 시 평균과 비교하면 2021년 기준 전주가 유일하게 시 평균보다 낮았고, 나머지 시는 모두 시 평균보다 높았다. 유형 평균과 비교해 보면 2021년 기준 군산과 남원이 유형 및 전국 평균보다 낮아 우수하였고,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등은 유형 및 전국 평균보다 높아 미흡하였다. 정읍이 47.7%로 비교적 높았는데, 이는 자체수입의 증가보다 자체경비의 증가 폭이 컸기 때문이며, 주로 일반운영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전국 시의 평균 자체경비증감률은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으로 2019년 10.6%에서 2020년 1.6% 수준으로 개선되었다가 2021년 8.4% 증가하여 부진하였다. 도내 시 중 전주, 익산, 정읍, 김제 등은 전국 시의 자체경비증감률 추이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 부진한 반면, 군산과 남원은 매년 개선되는 추이를 나타냈고, 전국 및 유형 평균과 비교해도 2021년 기준 자체경비증감률이 낮아 우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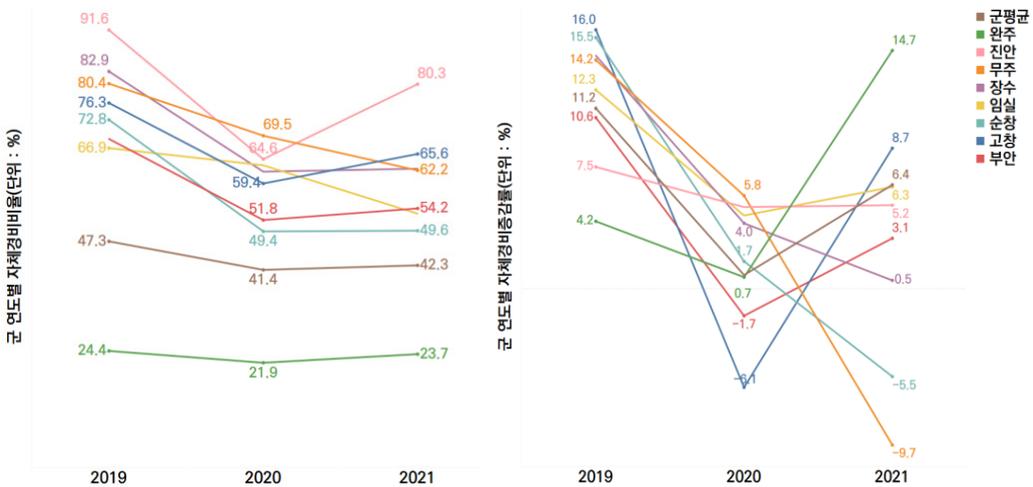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22] 전북자치도 시별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추이

3) 전북자치도 군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전국 군의 평균 자체경비비율은 2019년 47.3%에서 2020년 41.4%로 개선되었다가 2021년 42.3%로 다소 증가하여 부진하였다. 도내 군 중 완주, 진안, 장수, 순창, 고창, 부안 등은 전국 군 평균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낸 반면, 무주와 임실은 매년 하락하여 개선되는 양상이다. 2021년 기준 자체경비비율은 완주가 유일하게 군 평균보다 낮았고, 나머지 모든 군은 군 평균보다 높았다, 유형 평균과 비교해 보면 완주, 무주, 장수, 순창 등이 같은 유형의 평균보다 낮아 양호하였고, 진안, 임실, 고창, 부안 등은 유형 및 전국 평균보다 높아 미흡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전국 군의 자체경비증감률 추이는 2017년 11.2%에서 2020년 0.8% 수준까지 개선되었으나, 2021년 6.4%로 증가하여 부진하였다. 도내 군 중 완주, 진안, 임실, 고창, 부안 등은 전국 군 평균과 유사한 추이를 나타낸 반면, 무주, 장수, 순창 등은 매년 개선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2021년 기준 증감률은 완주와 고창이 전국 군 평균보다 높은 반면, 나머지 모든 군은 전국 군 평균보다 낮았고, 유형 평균과 비교해 보면 진안, 무주, 장수, 순창, 부안 등은 유형 및 전국 평균보다 낮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그림 3-23] 전북자치도 군별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추이

[표 3-10] 최근 5년간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 자체경비비율(증감률)

(단위 : %)

구 분		2019	2020	2021	유형평균
본청	비율	5.77	4.29	4.09	3.40
	증감률	-0.83	0.46	4.33	9.61
전주	비율	12.78	11.71	11.24	10.67
	증감률	8.26	1.49	12.32	6.84
군산	비율	43.68	48.69	45.64	25.02
	증감률	74.07	2.07	0.02	10.13
익산	비율	27.18	24.41	27.95	25.02
	증감률	11.65	-0.94	26.05	10.13
정읍	비율	56.27	46.63	47.66	36.21
	증감률	15.69	-4.65	9.50	6.42
남원	비율	50.50	47.44	50.91	36.21
	증감률	18.57	12.12	3.29	6.42
김제	비율	39.07	35.20	33.87	36.21
	증감률	2.31	-1.74	15.65	6.42
완주	비율	24.40	21.92	23.73	26.82
	증감률	4.16	0.70	14.74	7.01
진안	비율	91.59	64.55	80.25	64.15
	증감률	7.53	5.04	5.16	6.21
무주	비율	80.35	69.46	62.19	64.15
	증감률	14.15	5.75	-9.69	6.21
장수	비율	82.90	61.93	62.55	64.15
	증감률	14.42	4.04	0.50	6.21
임실	비율	66.86	63.26	53.13	51.98
	증감률	12.30	4.52	6.29	3.67
순창	비율	72.79	49.43	49.57	64.15
	증감률	15.54	1.68	-5.45	6.21
고창	비율	76.31	59.44	65.63	51.85
	증감률	16.02	-6.12	8.69	8.41
부안	비율	68.78	51.80	54.23	51.85
	증감률	10.58	-1.69	3.11	8.41

주 : 2021년 자체경비비율과 자체경비증감률의 전국 평균은 각 9.31%, 8.84%임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https://www.lofin365.go.kr>)

3. 소결

1) 세입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세입관리 규모 측면의 효율성을 조사한 결과, 첫째, 전북자치도 본청의 지방세수입비율은 전국과 도의 추세와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2018년 이후 전국과 도가 감소한 반면, 전북자치도 본청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국과 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고, 2021년 기준 지방세수입비율은 19.5%로 17개 시도 본청 중 전남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도내 시의 지방세수입비율은 전국 시 평균과 각 유형 평균보다 모두 낮아 심각한 수준이었다, 군의 지방세수입비율은 완주를 제외한 모든 군이 전국 군 평균보다 낮았고, 진안, 무주, 부안을 제외한 5개 군이 유형 평균보다 낮아 재정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수입비율의 제고가 요구되었다.

둘째, 2021년 기준 세외수입비율은 전북자치도 본청이 1.6%로 17개 시도 본청 중 경남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도내 시의 세외수입비율은 전주를 제외하고 5개 시가 전국 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전주와 김제를 제외한 4개 시가 유형 평균보다 낮았다. 도내 군 역시 전국 군 평균보다 모두 낮았고, 완주와 임실이 유형 평균보다 높은 반면, 나머지 6개 군은 모두 유형 평균보다 낮아 자체세입비율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관리 징수 측면의 효율성을 조사한 결과, 첫째, 전북자치도 본청의 지방세징수율은 2019년 이후 계속하여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기준 지방세징수율은 98.8%로 17개 시도 본청 중 중위권 수준이었다. 시에서는 남원이 유일하게 전국 시 평균과 동종의 유형 평균보다 높았으나, 나머지 5개 시는 모두 전국 시 및 유형 평균보다 낮아 부진하였고, 군에서는 임실, 고창, 완주, 순창, 장수 등이 전국 군 평균보다 높았고, 완주, 임실, 순창, 고창 등이 유형 평균보다 높아 시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둘째, 전북자치도 본청의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2018년 이후 계속하여 개선되어 전국과 도 평균보다 낮아 비교적 우수하였으며, 2021년 기준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0.29%로 전남 다음으로 가장 낮아 우수하였다. 도내 시 역시 대체로 개선되는 추세로 도내 모든 시가 전국 시 평균보다 낮았고, 전주, 정읍, 남원, 김제 등이 유형 평균보다 낮아 우수하였다. 군에서는 완주를 제외한 모든 군이 전국 군 평균보다 낮았고, 무주와

순창을 제외하고 모두 유형 평균보다 낮아 우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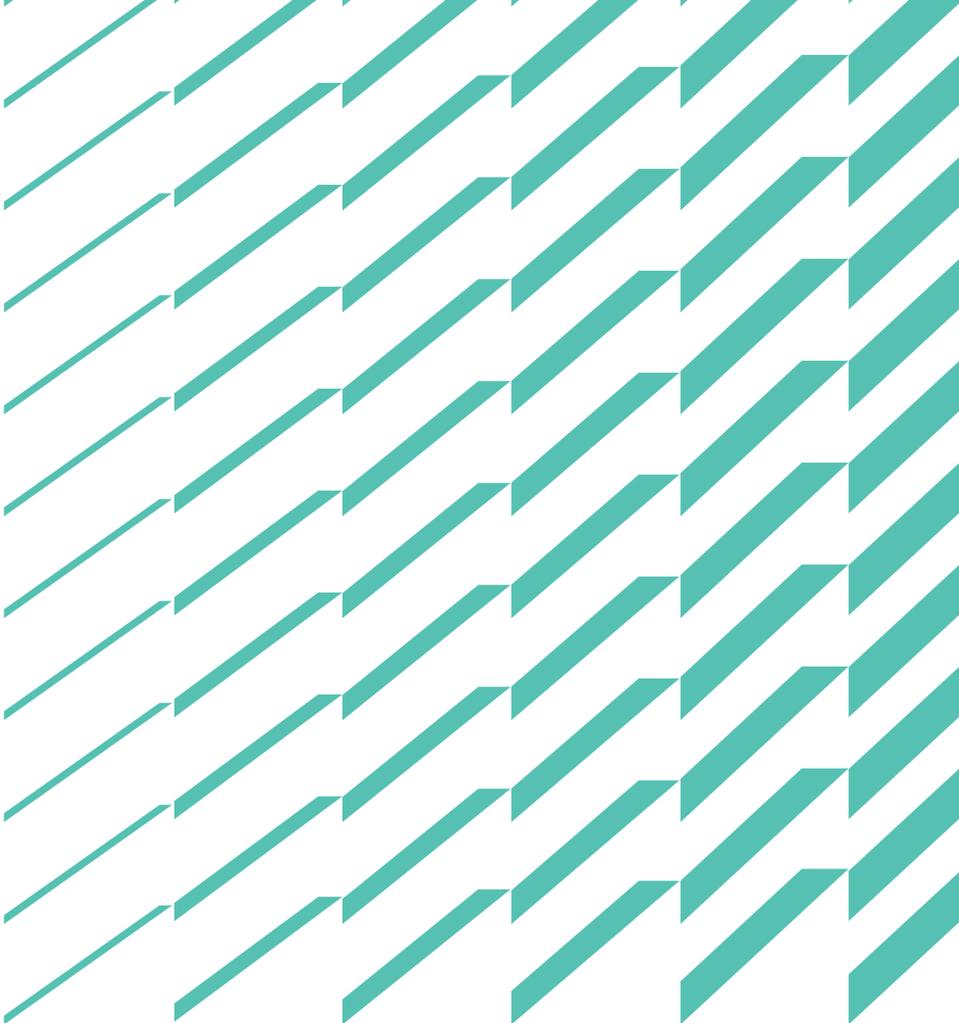
셋째, 세외수입채납액관리비율을 보면 전북자치도 본청이 2018년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2021년 기준 0.05%로 전국과 도 평균보다 낮아 우수하였다. 시단위에서는 익산을 제외한 도내 모든 시가 전국 시 평균보다 낮았고, 익산과 정읍을 제외한 나머지 시가 유형 평균보다 낮아 우수하였다. 군단위에서는 도내 모든 군이 전국 군 평균과 동종의 유형 평균보다 낮아 우수하였다.

2) 세출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세출관리 측면에서 외부지원관리 분야의 효율성을 조사한 결과, 첫째, 전북자치도 본청의 지방보조금비율이 2017년 이후 계속하여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낸 가운데, 2021년 기준 지방보조금비율이 17개 시도 본청 중 하위권 수준인 4.8%로 양호하였다. 시단위에서는 군산과 정읍을 제외한 나머지 시가 유형 평균보다 높아 부진하였고, 군단위에서는 완주, 무주, 고창, 부안 등이 유형 평균보다 낮아 양호한 반면,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은 유형 평균보다 높아 부진하였다.

둘째, 전북자치도 본청의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2018년 이후 대체로 개선되는 추세이며, 2021년에는 1.07%로 전국 및 도 평균보다 낮아 양호한 수준이었다. 시단위에서는 2017년 이후 군산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로 전주와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시가 모두 전국 시 평균과 동종의 유형 평균보다 낮아 우수한 수준이었다. 군단위에서는 진안과 순창을 제외한 모든 군이 유형 평균보다 낮아 우수한 수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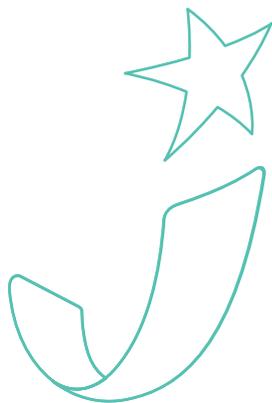
세출관리 측면에서 내부경비관리 분야인 자체경비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북자치도 본청의 자체경비비율은 2019년 이후 계속하여 개선되는 추세로 2021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반면, 도 평균보다 높아 부진한 수준이다. 시단위에서는 전주를 제외한 모든 시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유형 평균과 비교해 보면 군산과 남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가 유형 평균보다 높아 미흡하였다. 군단위에서는 완주를 제외한 모든 군이 군 평균보다 높았고, 완주, 무주, 장수, 순창 등은 유형 평균보다 낮아 우수하였으나, 진안, 임실, 고창, 부안 등은 유형 및 전국 군 평균보다 높아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운용 효율성 실증분석

1. 개요
2. 이론적 논의
3. 연구방법
4. 실증분석 및 결과
5. 소결



제 4 장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운용 효율성 실증분석

1. 개요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으로 발생한다. 최근 순세계잉여금에 학계, 정치인, 시민단체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에 큰 관심을 두는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으로서 지방재정의 계획성, 효율성 및 책무성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김진, 2021). 여유 재원의 역할을 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증대의 유인이 크고(배인명, 2020), 이에 따라 과도하게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배인명, 2020), 수입확충과 예산절감의 노력 등에 의한 재정운용 효율성의 성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존재한다(임성일 & 이효, 2014).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양면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이미애 외, 2015).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비 지출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지방재정 운용상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저하를 막기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비중이 유형 평균보다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3).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일반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지출이 이루어질 경우 별도의 사후관리과정이 생략되어 있어(김성주 외, 2018) 평가와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특성으로 인해 재정낭비의 주된 요인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김성주, 2015; 이삼주 & 윤태섭, 2016).

따라서 여기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재정효율성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먼저 순세계잉여금과 재정효율성,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재정효율성 사이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다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의 재정효율성 평가지표인 지방세수입(비율) 및 지방보조금(비율) 자료와 재정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비율) 및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 자료를 수집하여 패널회귀모형을 구축한 후, 본 연구의 모형이 실증적 타당성을 갖는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이론적 논의

가. 순세계잉여금과 재정효율성 간의 관련성

1) 순세계잉여금과 재정효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의 잉여금인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의 다음 연도 이월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처럼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에 따라 발생하는데, 세입 측면에서 당초 세입을 과소추계하게 하고 실제징수액은 세입예산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며, 세출 측면에서 확정된 예산이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집행되거나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 혹은 행정절차 미이행 및 사업 포기로 인한 불용 처리 등에 의해 발생한다(류춘호, 2019).

순세계잉여금은 대부분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여유 재원이기에(민기 & 백상규, 2016) 지방자치단체들이 순세계잉여금을 증대시키려는 유인은 크다고 할 수 있다(배인명, 2020). 이러한 연유로 순세계잉여금의 과도한 발생은 재정운용 효율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정 의사결정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문제를 유발한다(임성일 & 이효, 2014). 다시 말해서 세입이 세출을 초과하면 지역주민들의 부담에 비해 주민 서비스가 과소 공급되므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다(배인명, 2020).

이미에 외(2015)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잉여금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세입·세출구조를 갖추기 위해 재정운용 구조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잉여금의 발생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징세노력을 통한 수입확충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소득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고(임성일 & 이효, 2014), 지방채 상환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채감축을 유도한다는 실증분석 결과도 존재한다(유갑열 & 이장희, 2018).

이처럼 재정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측면과 재정수입의 증가 및 부채의 감소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양면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이미애 외, 2015).

2) 순세계잉여금 규모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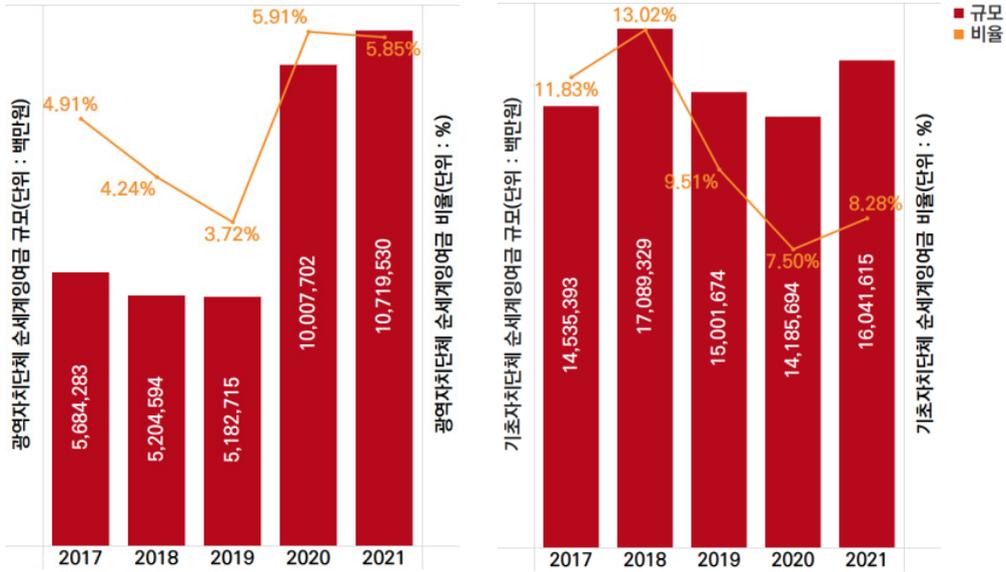
2021년 일반회계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 규모의 비율은 각 16조 416억 원, 8.28%로 광역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 규모와 비율인 10조 7,195억 원, 5.85%보다 높다, 이는 상대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자치도 역시 시군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본청의 순세계잉여금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는데, 2021년 기준 일반회계상의 순세계잉여금비율은 본청이 3.92%로 광역자치단체의 5.85%보다 1.93%p 낮았고, 시군은 5.74%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8.28%보다 2.54%p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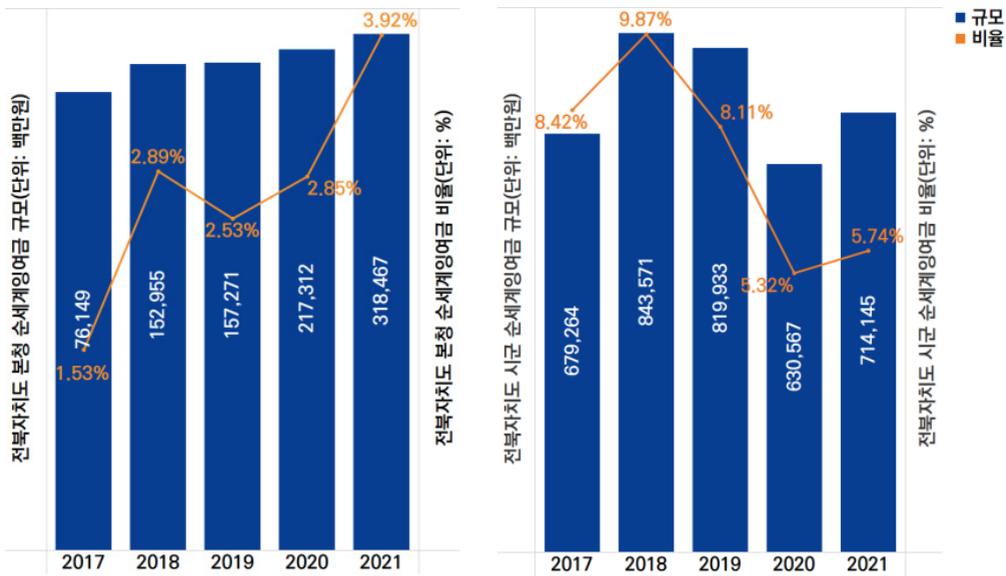
최근 5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의 규모와 비율의 추이를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그 규모가 감소하였다가 2019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었고, 비율 역시 규모의 추세와 유사하였다. 전북자치도 본청의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2017년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비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광역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비율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20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규모와 비율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하여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0.78%p 상승하였다. 전북자치도 시군에서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비율보다 매년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순세계잉여금의 재정효율성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극적인 세수추계에 따른 결산세입의 확대 정도, 비용의 과대 산정으로 인한 지출예산의 확대 정도 등이 전북자치도에서 상대적으로 덜하여 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세입확충 노력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 등의 예산절감 노력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여 비교적 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비율)



전북자치도 본청 및 시군 순세계잉여금(비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2017~2021회계연도)

[그림 4-1]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 규모 및 비율

나.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재정효율성 간의 관련성

1)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재정효율성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난방비 지원금 등 명칭과 상관없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편성토록 하여 통합 관리하고, 현금성 복지 지출의 비중이 동종 유형의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행정안전부, 2023).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성 복지비 지출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지방재정 운용상의 건전성과 효율성의 저하를 막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통계목 301번의 일반보전금 중의 하나로 편성되는 과목으로서, 법령에 의거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적보장적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저소득계층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 등을 포함한다(김성주, 윤태섭, 홍근석 외, 2018).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국고보조재원(301-01), 취약계층·지방재원(301-02), 지방재원(301-03)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세분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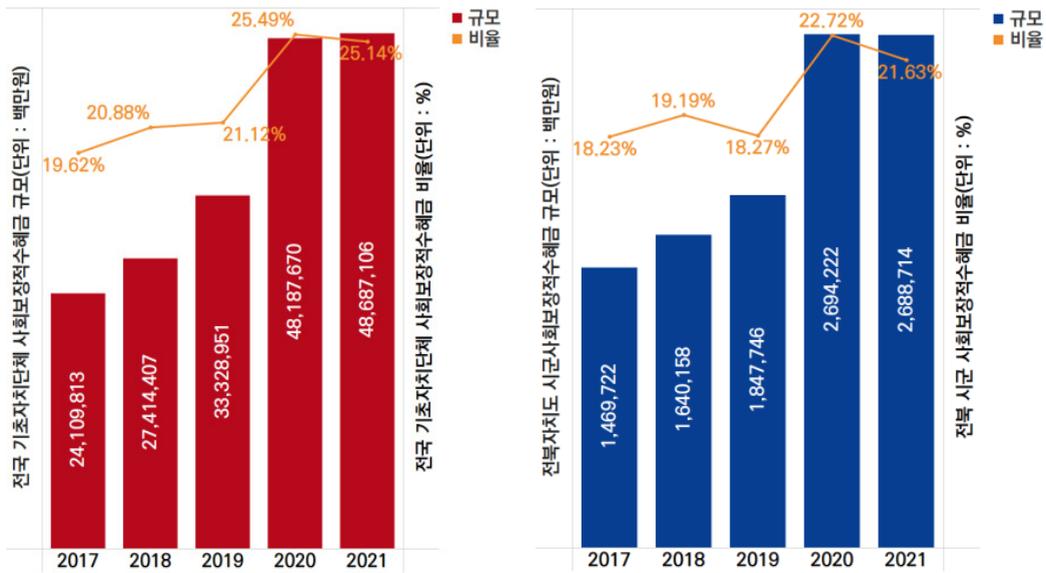
사회보장 수혜금은 그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일반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지출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사후관리과정이 생략되어 평가 및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김성주, 2015; 이삼주 & 윤태섭, 2016).

2) 사회보장적 수혜금 규모 및 비율

2021년 기준 일반회계의 사회보장적수혜금 비율은 광역자치단체에서 2.12%, 기초자치단체에서 25.14%의 비중을 차지하여 광역과 기초 간의 지출규모 격차가 크다. 최근 5년간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규모와 비중은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가운데, 2021년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규모와 비율은 각 48조 6,871억 원, 25.14%로 규모는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비율은 5.52%p 증가하였다.

전북자치도 시군의 사회보장적수혜금 규모는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지속하여 증가

하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0.2% 감소한 2조 6,887억 원을 집행하였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은 2017년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비율보다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이나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전북자치도 시군 간의 사회보장적수혜금 비율의 격차는 2017년 1.39%에서 2021년 3.51%p로 그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2017~2021회계연도)

[그림 4-2] 기초자치단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규모 및 비율

3. 연구방법

가. 자료 및 분석모형

1) 종속변수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실증분석한 최근 연구의 경향은 자료포락분석(DEA)을 통해 상대적 효율성지수를 도출하여 지방재정 효율성을 측정하는 연구(차주현, 2011; 이미애 외, 2015; 강황목 & 남창우, 2020)와 지방재정 효율성의 대표성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는 연구(금재덕 외, 2012; 신유호 & 최정우, 2013; 윤태섭 & 배정아; 조기현, 2017; 김재훈 외, 2023) 등이다. DEA를 활용한 지방재정 효율성 측정은 모수적 분석을 시도할 때 요구되는 자료와 오차항에 대한 엄격한 정규성 가정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으나, 타 집단과의 효율성 비교를 통해 도출된 효율성 수치인 상대적 효율성지수에 의한 결과해석의 한계도 존재한다(신유호 & 최정우, 2013).

따라서 여기서는 세입관리 분야의 재정효율성 평가지표로 활용되는 지방세수입 비율과 규모, 세출관리 분야 효율성 지표인 지방보조금 비율과 규모를 활용하여 지방재정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세입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평가지표 중 지방세수입비율을 사용한 것은 제3장의 전북자치도 재정효율성 현황조사 결과, 도내 시의 지방세수입비율이 전국 시단위 평균 및 동종 유형의 평균보다 모두 낮았고, 다수의 군에서도 평균보다 낮은 심각한 수준으로 지방세수입비율의 제고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세외수입비율 역시 부진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지방세수입에 비해 세외수입이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특히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개선될 수 있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세출관리 분야의 재정효율성 평가지표 중 지방보조금비율을 재정효율성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것은 도내 시의 약 70%, 군의 50%가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자체경비비율 역시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 지표는 2019년에 편입된 신규지표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지방세수입(비율)과 지방보조금(비율)은 행정안전부·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와 지방재정연감을 활용하였다.

2)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순세계잉여금(비율),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을 활용하여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소 세입추계, 예산 미집행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불일치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자치단체의 노력에 의한 세입확충 및 예산절감의 효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할 경우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는 효율성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비효율성을 유발하면 재정효율성은 악화할 것이고, 효율성을 유발하면 재정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성 복지비)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에 포함된 항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및 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세티브 제공 혹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새로운 기준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재정낭비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김성주, 2015; 이삼주 & 윤태섭, 2016)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증가는 재정 비효율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순세계잉여금(비율)과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을 활용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통제변수는 재정효율성 실증분석에 관한 선행연구와 분석대상 기간의 자료 입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국 재정효율성 회귀모형에서는 재정적 요인으로 재정자주도(김재훈 외, 2023)와 부채비율(윤태섭 & 배정아, 2016; 정도효 외, 2018),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고령인구비율(윤태섭 & 배정아, 2016), 1인당 도시지역 면적, 1인당 GRDP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전북자치도 재정효율성 회귀모형에서는 재정적 요인으로 재정자주도, 사회·경제학적 요인 1인당 주민세(차주현, 2011; 이미애 외, 2015)와 고령인구비율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로 사용된 재정자주도, 고령인구비율, 1인당 도시지역 면적, 1인당 GRDP는 KOSIS 국가통계포털을 활용하였고, 부채비율은 지방재정 365, 1인당 주민세는 지방세통계연감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활용하였다.

[표 4-1] 재정효율성 회귀모형 변수의 설명 및 정의

변수		정의	출처	
종속 변수	InLT	지방세수입	지방세수입의 자연로그값	지방재정연감
	LTR	지방세수입비율	지방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지방재정연감
	InLS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의 자연로그값 지방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사업보조-자체재원	지방재정연감
	LSR	지방보조금비율	지방보조금 결산액/세출결산액	지방재정연감
독립 변수	InNS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의 자연로그값 순세계잉여금 : (세입결산액-세출결산액)-(명시이월+사고이월+ 계속비이월+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지방재정연감
	NSR	순세계잉여금비율	순세계잉여금/세출결산액	지방재정연감
	InSSB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자연로그값	지방재정연감
	SSBR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	사회보장적수혜금/세출결산액	지방재정연감
통제 변수	FAR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자주재원)/자치단체 예산규모	국가통계포털
	DR	부채비율	부채/자산	지방재정365
	EPR	고령인구비율	65세이상 인구/총인구	국가통계포털
	InUA	1인당 도시지역 면적	(주택·상업·공업지역 면적/도시지역 인구)의 자연로그값	국가통계포털
	InRT	1인당 주민세	주민세/총인구	지방세통계연감 행정안전부
	InGRDP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내총생산/총인구	국가통계포털

나. 추정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일정한 시점에서 여러 개체가 어떠한 값을 가지는지를 나타내는 횡단면 자료(cross-section data)와 개별 관측치가 시간에 걸쳐 어떠한 값을 가지는지를 나타내는 시계열자료(time-series data)를 통합한 패널자료(panel data)이기에 정적(static) 및 동적(dynamic)인 관련성을 모두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체 간의 관찰되지 않은 이질성(unobserved heterogeneity) 요인을 모형에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패널자료는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보다 많은 정보와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Wooldridge, 2002).

따라서 여기서는 패널자료 분석을 통해 합동회귀분석(pooled OLS),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 FE) 및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 RE)을 모두 추정한 후, F검정을 통해 OLS와 패널자료 분석 간에 적합한 모형을 추정하고,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간의 타당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그리고 패널자료를 갖는 비정상성(non-stationarity)을 완화하기 위해 금액과 면적의 원자료를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하였다.

여기서는 순세계잉여금 및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재정효율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종속변수는 지방세수입($\ln LT$), 지방세수입비율(LTR), 지방보조금($\ln LS$) 및 지방보조금비율(LSR)을 활용하였고, 독립변수는 순세계잉여금($\ln NS$), 순세계잉여금비율(NSR), 사회보장적수혜금($\ln SSB$) 및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SSBR$)을 활용하였다.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이미에 외, 2015) 순세계잉여금(비율)이 효율성을 유발할 경우 지방세수입(비율)에 양(+)의 값을 나타낼 것이고, 지방보조금(비율)에 음(-)의 값을 나타낼 것이다. 비효율성을 유발할 경우에는 지방세수입(비율)에 음(-)의 값을 나타낼 것이고, 지방보조금(비율)에 양(+)의 값을 나타낼 것이다. 사후관리과정이 담보되지 않은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은 재정낭비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지방세수입(비율)에 음(-)의 값을 가질 것이고, 지방보조금(비율)에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재정효율성 회귀모형]

$$\ln LT_{it} = \alpha_i + \gamma_t + \beta_1 \ln NS_{it} + \beta_2 \ln SSB_{it} + \beta_3 FAR_{it} + \beta_4 DR_{it} + \beta_5 EPR_{it} + \beta_6 \ln UA_{it} + \beta_7 \ln GRDP_{it} + \mu_{it}$$

단, $i = 1, 2, \dots, 226$, $t = 2017, 2018, 2020, 2021$

$$LTR_{it} = \alpha_i + \gamma_t + \beta_1 NSR_{it} + \beta_2 SSB_{it} + \beta_3 FAR_{it} + \beta_4 DR_{it} + \beta_5 EPR_{it} + \beta_6 \ln UA_{it} + \beta_7 \ln GRDP_{it} + \mu_{it}$$

$$\ln LS_{it} = \alpha_i + \gamma_t + \beta_1 \ln NS_{it} + \beta_2 \ln SSB_{it} + \beta_3 FAR_{it} + \beta_4 DR_{it} + \beta_5 EPR_{it} + \beta_6 \ln UA_{it} + \beta_7 \ln GRDP_{it} + \mu_{it}$$

$$LSR_{it} = \alpha_i + \gamma_t + \beta_1 NSR_{it} + \beta_2 SSB_{it} + \beta_3 FAR_{it} + \beta_4 DR_{it} + \beta_5 EPR_{it} + \beta_6 \ln UA_{it} + \beta_7 \ln GRDP_{it} + \mu_{it}$$

[전북자치도 재정효율성 회귀모형]

$$\ln LT_{it} = \alpha_i + \gamma_t + \beta_1 \ln NS_{it} + \beta_2 \ln SSB_{it} + \beta_3 FAR_{it} + \beta_4 \ln RT_{it} + \beta_5 EPR_{it} + \mu_{it}$$

단, $i = 1, 2, \dots, 14$, $t = 2002, 2003, \dots, 2021$

$$LTR_{it} = \alpha_i + \gamma_t + \beta_1 NSR_{it} + \beta_2 SSB_{it} + \beta_3 FAR_{it} + \beta_4 \ln RT_{it} + \beta_5 EPR_{it} + \mu_{it}$$

$$\ln LS_{it} = \alpha_i + \gamma_t + \beta_1 \ln NS_{it} + \beta_2 \ln SSB_{it} + \beta_3 FAR_{it} + \beta_4 \ln RT_{it} + \beta_5 EPR_{it} + \mu_{it}$$

$$LSR_{it} = \alpha_i + \gamma_t + \beta_1 NSR_{it} + \beta_2 SSB_{it} + \beta_3 FAR_{it} + \beta_4 \ln RT_{it} + \beta_5 EPR_{it} + \mu_{it}$$

여기서, $\ln LT_{it}$: i 자치단체 t 기 지방세수입의 자연로그값,

LTR_{it} : i 자치단체 t 기의 지방세수입비율,

$\ln LS_{it}$: i 자치단체 t 기 지방보조금의 자연로그값,

LSR_{it} : i 자치단체 t 기의 지방보조금비율,

α_i : 226개(전국 기초자치단체), 14개(전북자치도 시군) 자치단체의 개체효과,

γ_t : 4개년(전국 기초자치단체), 20개년(전북자치도 시군)의 시간효과,
 $\ln NS_{it}$: i 자치단체 t 기 순세계잉여금의 자연로그값,
 NSR_{it} : i 자치단체 t 기의 순세계잉여금비율,
 $\ln SSB_{it}$: i 자치단체 t 기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자연로그값,
 $SSBR_{it}$: i 자치단체 t 기의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
 FAR_{it} : i 자치단체 t 기의 재정자주도,
 DR_{it} : i 자치단체 t 기의 부채비율,
 EPR_{it} : i 자치단체 t 기의 고령인구비율,
 $\ln UA_{it}$: i 자치단체 t 기 1인당 도시면적의 자연로그값,
 $\ln RT_{it}$: i 자치단체 t 기 1인당 주민세의 자연로그값,
 $\ln GRDP_{it}$: i 자치단체 t 기 지역내총생산의 자연로그값,
 μ_{it} : 잔차항

4. 실증분석 및 결과

가.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

1) 기술통계량 분석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재정효율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패널회귀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측정대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초자치단체로 관측치는 904개이다. 전북자치도 시군의 재정효율성을 대상으로 한 패널회귀모형의 기술통계량 측정대상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14개 시군으로 관측치는 280개이다.

먼저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한 지방세수입($\ln L$)의 전국 평균값은 11.181인 가운데, 분포는 11.871에서 14.203으로 분포되어 있다. 전북자치도 평균은 10.114, 최소값은 8.132, 최대값은 12.950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최소값과 최대값도 전국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국 지방세수입비율(LTR)의 평균은 0.117이고, 0.013에서 0.456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이 지표의 최대값은 2019년 화성시의 지방세수입비율이다. 전북자치도의 평균은 0.068로 전국 대비 58.12%에 그쳐 세입관리 분야 재정효율성은 열악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전국 지방보조금($\ln LS$)의 평균은 10.988, 최소값은 9.114이고 최대값은 12.469이다. 이 지표의 전북자치도 평균은 10.695, 최소값은 8.585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반면, 최대값은 12.571로 전국 최대값보다 높았다. 지방보조금비율(LSR)의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은 0.097이었고, 전북자치도는 이보다 소폭 높은 0.108로 나타나 세출관리 분야 재정효율성은 전국 평균보다 높아 미흡한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전국 순세계잉여금($\ln NS$)과 순세계잉여금비율(NSR)의 평균은 각 10.936, 0.100이고, 이 지표들의 전북자치도 평균은 10.016, 0.072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사회보장적수혜금($\ln SSB$)과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SSBR$)의 전국 평균은 각 11.721, 0.219, 최소값은 8.785, 0.043, 최대값은 13.970, 0.570인데 반해 이 지표들의 전북자치도 평균은 각 10.016, 0.072, 최소값은 7.139, 0.003, 최댓값은 13.586, 0.380으로 평균, 최소값, 최댓값이 전국보다 낮아 재정낭비의 측면에서 보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2] 전국 재정보율성 회귀모형 변수의 기술통계량

Variable	Obs.	Mean	SD	Minimum	Maximum
lnLT	904	11.181	1.075	8.366	14.203
LTR	904	0.117	0.083	0.013	0.456
lnLS	904	10.988	0.621	9.114	12.469
LSR	904	0.097	0.043	0.037	0.299
lnNS	904	10.936	0.624	8.025	12.813
NSR	904	0.100	0.060	0.008	0.534
lnSSB	904	11.721	0.850	8.785	13.970
SSBR	904	0.219	0.109	0.043	0.570
FAR	904	0.532	0.108	0.165	0.764
DR	904	0.018	0.015	0.002	0.245
EPR	904	0.219	0.090	0.073	0.661
lnUA	904	4.781	0.866	0.000	7.185
lnGRDP	904	3.521	0.548	1.394	6.155

주 : lnLT: 지방세수입의 자연로그값, LTR: 지방세수입비율, lnLS: 지방보조금의 자연로그값, LSR: 지방보조금 비율, lnNS: 순세계잉여금의 자연로그값, NSR: 순세계잉여금비율, lnSSB: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자연로그 값, SSBR: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 FAR: 재정자주도, DR: 부채비율, EPR: 고령인구비율, lnUA: 1인당 도시지역 면적의 자연로그값, lnGRDP :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자연로그값, Obs.: 관측치, Mean: 평균, SD: 표준편차, Minimum: 최소값, Maximum: 최대값

[표 4-3] 전북자치도 재정효율성 회귀모형 변수의 기술통계량

Variable	Obs.	Mean	SD	Minimum	Maximum
lnLT	280	10.114	1.203	8.132	12.950
LTR	280	0.068	0.058	0.013	0.257
lnLS	280	10.695	0.715	8.585	12.571
LSR	280	0.108	0.037	0.040	0.292
lnNS	280	10.016	0.931	5.389	11.637
NSR	280	0.072	0.042	0.000	0.277
lnSSB	280	10.531	1.181	7.139	13.586
SSBR	280	0.118	0.070	0.003	0.380
FAR	280	0.629	0.052	0.498	0.775
lnRT	280	9.928	0.891	8.182	12.177
EPR	280	0.225	0.072	0.066	0.372

주 : lnLT: 지방세수입의 자연로그값, LTR: 지방세수입비율, lnLS: 지방보조금의 자연로그값, LSR: 지방보조금 비율, lnNS: 순세계잉여금의 자연로그값, NSR: 순세계잉여금비율, lnSSB: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자연로그값, SSBR: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 FAR: 재정자주도, lnRT: 1인당 주민세의 자연로그값, EPR: 고령인구비율, Obs.: 관측치, Mean: 평균, SD: 표준편차, Minimum: 최소값, Maximum: 최대값

2) 상관관계 분석

순세계잉여금 및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각 독립변수 사이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순세계잉여금($\ln NS$)과 지방세수입($\ln LT$) 사이의 상관계수가 각 0.616으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성이 존재하였다. 전북자치도 시군의 순세계잉여금(NS)과 지방세수입(LT)의 상관계수는 0.439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성이 존재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비율(NSR)과 지방세수입비율(LTR) 간의 상관계수는 -0.248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의 이러한 결과는 순세계잉여금이 재정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임성일 & 이효(2014), 이미애 외(2015)와 배인명(2020)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순세계잉여금($\ln NS$)과 지방보조금($\ln LS$)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북자치도 시군에서도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성이 존재하였다. 순세계잉여금비율(NSR)과 지방세수입비율(LTR) 간의 상관성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전북자치도 시군 모두에서 약한 정(+)의 상관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ln SSB$)과 지방세수입($\ln LT$) 및 지방보조금($\ln LS$) 간의 상관계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0.819, 0.813으로 1% 유의수준에서 정(+)의 상관성을 가지고,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SSBR$)과 지방세수입비율(LTR) 및 지방보조금비율(LSR) 사이의 상관계수는 각 0.294, 0.321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 시군에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ln SSB$)과 지방세수입($\ln LT$) 및 지방보조금($\ln LS$) 간의 상관계수가 각 0.859, 0.738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성을 나타냈고,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SSBR$)과 지방세수입비율(LTR) 사이의 상관계수는 0.660으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SSBR$)과 지방보조금비율(LSR)은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분석으로 자세한 분석 결과는 패널회귀모형의 추정 결과에서 제시하였다.

[표 4-4] 전국 재정효율성(규모) 회귀모형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lnLT	lnLS	lnNS	lnSSB	FAR	DR	EPR	lnUA	lnGRDP
lnLT	1.000								
lnLS	0.737**	1.000							
lnNS	0.616**	0.572**	1.000						
lnSSB	0.819**	0.813**	0.535**	1.000					
FAR	0.007	-0.255**	0.140**	-0.370**	1.000				
DR	0.195**	0.234**	0.063	0.248**	-0.173**	1.000			
EPR	-0.703**	-0.544**	-0.320**	-0.578**	0.294**	-0.226**	1.000		
lnUA	-0.356**	-0.425**	-0.236**	-0.463**	0.445**	-0.070*	0.540**	1.000	
lnGRDP	0.166**	-0.135**	0.019	-0.187**	0.323**	-0.043	0.005	0.320**	1.000

주 : lnLT: 지방세수입의 자연로그값, lnLS: 지방보조금의 자연로그값, lnNS: 순세계잉여금의 자연로그값, lnSSB: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자연로그값, FAR: 재정자주도, DR: 부채비율, EPR: 고령인구비율, lnUA: 1인당 도시지역 면적의 자연로그값, lnGRDP: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자연로그값,

*p<0.05, **p<0.01

[표 4-5] 전국 재정효율성(비율) 회귀모형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변수	LTR	LSR	NSR	SSBR	FAR	DR	EPR	lnUA	lnGRDP
LTR	1.000								
LSR	0.070*	1.000							
NSR	0.029	0.062	1.000						
SSBR	0.294**	0.391**	-0.125**	1.000					
FAR	0.062	-0.563**	0.108**	-0.769**	1.000				
DR	0.094**	0.150**	-0.093**	0.212**	-0.173**	1.000			
EPR	-0.701**	-0.371**	0.011	-0.522**	0.294**	-0.226**	1.000		
lnUA	-0.357**	-0.443**	-0.051	-0.590**	0.445**	-0.070*	0.540**	1.000	
lnGRDP	0.343**	-0.180**	0.077*	-0.316**	0.323**	-0.043	0.005	0.320**	1.000

주 : LTR: 지방세수입비율, LSR: 지방보조금비율, NSR: 순세계잉여금비율, SSBR: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 FAR: 재정자주도, DR: 부채비율, EPR: 고령인구비율, lnUA: 1인당 도시지역 면적의 자연로그값, lnGRDP :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자연로그값,
*p<0.05, **p<0.01

[표 4-6] 전북자치도 재정효율성 회귀모형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구분	재정효율성(규모)						
	lnLT	lnLS	lnNS	lnSSB	FAR	lnUA	EPR
lnLT	1.000						
lnLS	0.713**	1.000					
lnNS	0.439**	0.495**	1.000				
lnSSB	0.859**	0.738**	0.596**	1.000			
FAR	-0.432**	-0.596**	-0.477**	-0.553**	1.000		
lnRT	0.186**	-0.206**	-0.056	-0.017	0.233**	1.000	
EPR	-0.603**	-0.187**	0.137**	-0.239**	-0.094	-0.388**	1.000

구분	재정효율성(비율)						
	LTR	LSR	NSR	SSBR	FAR	lnUA	EPR
LTR	1.000						
LSR	-0.178**	1.000					
NSR	-0.248**	0.051	1.000				
SSBR	0.660**	-0.247**	-0.122*	1.000			
FAR	-0.169**	-0.119*	0.028	-0.495**	1.000		
lnRT	0.266**	-0.247**	-0.027	-0.013	0.233**	1.000	
EPR	-0.809**	0.070	0.348**	-0.367**	-0.094	-0.388**	1.000

주 : lnLT: 지방세수입의 자연로그값, LTR: 지방세수입비율, lnLS: 지방보조금의 자연로그값, LSR: 지방보조금 비율, lnNS: 순세계잉여금의 자연로그값, NSR: 순세계잉여금비율, lnSSB: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자연로그값, SSBR: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 FAR: 재정자주도, lnRT: 1인당 주민세의 자연로그값, EPR: 고령인구비율, *p<0.05, **p<0.01

나. 모형추정 결과

여기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 및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지방재정 효율성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균형패널자료(balanced panel data)를 활용하였고,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의 균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합동회귀분석(pooled OLS), 고정효과모형(FE) 및 확률효과모형(RE)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고정효과모형에서는 F검정을 통해 개체효과를 고정효과로 가정한 1요인 고정그룹효과모형(one-way fixed group effect model), 시간효과를 고정효과로 가정한 1요인 고정시간효과모형(one-way fixed time effect model), 개체효과와 시간효과를 고정효과로 가정한 2요인 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group and time effect model) 중에서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검정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수입,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비율 회귀모형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F검정의 귀무가설을 모두 기각하여 2요인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고, 지방보조금 회귀모형에서는 귀무가설인 $H_0 : \alpha_1 = \dots = \alpha_{226} = 0$ 를 기각하였으나, $H_0 : \gamma_1 = \dots = \gamma_4 = 0$ 이 채택되어 1요인 고정그룹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전북자치도 시군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고정효과모형에서는 전체 모형에서 F검정의 귀무가설을 5% 유의수준에서 모두 기각하여 2요인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다.

확률효과모형에서는 Breusch-Pagan 검정을 활용하여 개체효과를 확률효과로 가정한 1요인 확률그룹효과모형(one-way random group effect model), 시간효과를 확률효과로 가정한 1요인 확률시간효과모형(one-way random time effect model), 개체효과와 시간효과를 모두 확률효과로 가정한 2요인 확률효과모형(two-way random group and time effect model) 중에서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였다. 검정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확률효과모형에서는 지방세 수입, 지방세 수입비율, 지방보조금비율 회귀모형에서 귀무가설을 모두 기각하여 2요인 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지방보조금 회귀모형에서는 첫 번째 귀무가설인 $H_0 : \sigma_\alpha^2 = 0$ 를 5% 유의수준에서 기각하여 개체효과를 모형에 포함하였다. 두 번째 귀무가설인 $H_0 : \sigma_\alpha^2 = \sigma_\gamma^2 = 0$ 의 Breusch-Pagan 검정통계량과 첫 번째 귀무가설의 Breusch-Pagan 검정통계량의 차가 0.87로 자유도 1인 카이제곱분포를 따르며, 이때 p값은 0.354로 시간효과가 0이라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개체효과만을 확률효과로 가정한 1요인 확률그룹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북자치도 시군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확률효과모형에서는 지방세수입,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금비율 회귀모형은 2요인 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고, 지방세수입비율 회귀모형은 1요인 확률그룹효과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4-7] 재정효율성 회귀모형 개체효과 및 시간효과의 귀무가설 검정 결과

모형		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F검정 귀무가설	F값	BP검정 귀무가설	자유도	m값	
전국	지방세수입 회귀모형	$H_0 : \alpha_1 = \dots = \alpha_{226} = 0$	22.74*	$H_0 : \sigma_\alpha^2 = 0$	1	414.17*	
		$H_0 : \gamma_1 = \dots = \gamma_4 = 0$	15.80*	$H_0 : \sigma_\alpha^2 = \sigma_\gamma^2 = 0$	2	522.20*	
	지방세수입비율 회귀모형	$H_0 : \alpha_1 = \dots = \alpha_{226} = 0$	30.71*	$H_0 : \sigma_\alpha^2 = 0$	1	697.02*	
		$H_0 : \gamma_1 = \dots = \gamma_4 = 0$	6.24*	$H_0 : \sigma_\alpha^2 = \sigma_\gamma^2 = 0$	2	712.15*	
	지방보조금 회귀모형	$H_0 : \alpha_1 = \dots = \alpha_{226} = 0$	37.77*	$H_0 : \sigma_\alpha^2 = 0$	1	974.82*	
		$H_0 : \gamma_1 = \dots = \gamma_4 = 0$	2.25	$H_0 : \sigma_\alpha^2 = \sigma_\gamma^2 = 0$	2	975.68*	
	지방보조금비율 회귀모형	$H_0 : \alpha_1 = \dots = \alpha_{226} = 0$	20.39*	$H_0 : \sigma_\alpha^2 = 0$	1	724.53*	
		$H_0 : \gamma_1 = \dots = \gamma_4 = 0$	3.85*	$H_0 : \sigma_\alpha^2 = \sigma_\gamma^2 = 0$	2	728.90*	
	전북 자치도	지방세수입 회귀모형	$H_0 : \alpha_1 = \dots = \alpha_{14} = 0$	106.59*	$H_0 : \sigma_\alpha^2 = 0$	1	114.01*
			$H_0 : \gamma_1 = \dots = \gamma_{20} = 0$	10.41*	$H_0 : \sigma_\alpha^2 = \sigma_\gamma^2 = 0$	2	134.52*
지방세수입비율 회귀모형		$H_0 : \alpha_1 = \dots = \alpha_{14} = 0$	76.64*	$H_0 : \sigma_\alpha^2 = 0$	1	343.20*	
		$H_0 : \gamma_1 = \dots = \gamma_{20} = 0$	5.28*	$H_0 : \sigma_\alpha^2 = \sigma_\gamma^2 = 0$	2	343.42*	
지방보조금 회귀모형		$H_0 : \alpha_1 = \dots = \alpha_{14} = 0$	17.71*	$H_0 : \sigma_\alpha^2 = 0$	1	276.88*	
		$H_0 : \gamma_1 = \dots = \gamma_{20} = 0$	8.60*	$H_0 : \sigma_\alpha^2 = \sigma_\gamma^2 = 0$	2	374.78*	
지방보조금비율 회귀모형		$H_0 : \alpha_1 = \dots = \alpha_{14} = 0$	14.43*	$H_0 : \sigma_\alpha^2 = 0$	1	365.38*	
		$H_0 : \gamma_1 = \dots = \gamma_{20} = 0$	5.17*	$H_0 : \sigma_\alpha^2 = \sigma_\gamma^2 = 0$	2	414.96*	

주 : BP: Breush-Pagan *p<0.05

F검정을 활용하여 합동회귀분석보다 패널회귀분석이 더 적합한지와 하우스만 검정(hausman test)을 통해 확률효과모형이 고정효과모형보다 더 적합한지를 분석하였다. 모든 모형에서 F값이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합동회귀분석보다 패널회귀분석이 더 적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패널회귀분석은 상수항이 설명변수와 상관성이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경우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추정되고, 귀무가설이 채택될 경우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의 추정치는 일치성(consistency)과 효율성(efficiency)을 갖는다.

하우스만 검정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모형에서는 1%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모두 기각하여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되었다. 전북 자치도 시군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수입, 지방세수입비율 및 지방보조금비율에서는 1% 혹은 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추정된 반면, 지방보조금비율 회귀모형에서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확률효과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으로 추정되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비율)과 세입관리 분야의 재정효율성 대응변수인 지방세수입(비율)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패널회귀모형의 고정효과모형 분석으로 추정된 결과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지방세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수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의 계수는 -0.034로 1% 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세수입비율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의 계수는 -0.041로 1%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북자치도 시군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고정효과모형에서도 지방세수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계수는 -0.033으로 추정되었으며, 1%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수입비율에 대한 순세계잉여금비율의 계수는 -0.034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순세계잉여금이 재정효율성을 저조하게 만든다는 임성일 & 이효(204), 이미애 외(2015)와 배인명(2020)의 견해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순세계잉여금이 여유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증대시키려는 유인이 크고, 이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세입관리 분야의 재정운용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순세계잉여금(비율)과 세출관리 분야 재정효율성의 대응변수인 지방보조금(비율)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패널회귀모형에서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된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된 결과를 보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보조금 간에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순세계잉여금비율과 지방보조금비율 사이에는 역으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 시군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패널회귀모형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계수가 -0.046으로 5% 유의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변동이 반영된 순세계잉여금비율과 지방보조금비율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자치도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세입관리 분야의 재정효율성뿐만 아니라 세출관리 분야의 재정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과 지방세수입(비율)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된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지방세수입 사이에는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수입비율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역시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북자치도 시군에서는 더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된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된 결과,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지방세수입 사이에는 정(+)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지방세수입비율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의 계수가 -0.101로 1% 수준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낭비 요인으로 작용하여 재정효율성을 저해한다는 김성주(2015)와 이삼주 & 윤태섭(2016)의 견해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지방재정 운용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해 2022년 7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현금성 복지비 지출 비중이 동종의 유형보다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023년 결과를 토대로 2025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과 지방보조금(비율)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패널회귀모형에서 적합한 모형을 채택된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계수가 0.309, t값이 18.57로 통계적으로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세출관리 분야의 재정 운용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이다. 지방보조금비율에 대해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전북자치도에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의 계수가 -0.193, 지방보조금비율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의 계수가 -0.285로 추정되었으며, 두 계수 모두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장적수혜금 규모 및 비율이 지방보조금 규모 및 비율을 감소시켜 세출관리 분야의 재정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보장수혜금과 지방보조금 간의 관계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내용상 지방보조금임에도 별도의 과목으로 계리되고 있으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지방보조금과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추진할 수 있고, 사후 평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어 유사한 사업을 지방보조금보다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이삼주 & 윤태섭, 2016). 이러한 유사중복의 문제로 지방보조금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추진되는 경우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의 증가가 지방보조금(비율)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전국 지방세수입 및 지방세수입비율 회귀모형 추정 결과

종속변수	lnLT			LTR		
	OLS	FE	RE	OLS	FE	RE
lnNS	0.106** (4.96)	-0.034** (-2.61)	0.013 (0.72)			
NSR				-0.007 (-0.25)	-0.041** (-3.12)	-0.043** (-2.86)
lnSSB	0.929** (50.91)	-0.057 (-1.49)	0.725** (22.20)			
SSBR				.311** (12.18)	-0.019 (-0.19)	0.061** (2.93)
FAR	3.086** (25.76)	0.477** (2.97)	1.753** (9.66)	.370** (16.92)	0.117** (5.21)	0.129** (6.29)
DR	-0.499 (-0.73)	0.205 (0.43)	0.213 (0.33)	-0.162 (-1.62)	-0.032 (-0.48)	0.015 (0.20)
EPR	-4.071** (-26.45)	0.015 (0.10)	-1.833** (-9.59)	-5.18** (-23.51)	0.032 (1.43)	-0.166** (-7.60)
lnUA	-0.030 (-1.92)	0.115 (1.41)	-0.130** (-3.72)	-0.014** (-6.01)	0.023* (2.00)	-0.166** (-7.40)
lnGRDP	0.414** (20.26)	0.041 (1.78)	0.266** (9.69)	0.055** (18.31)	0.006 (1.70)	0.031** (9.12)
상수항	-2.919** (-11.65)	10.399** (15.90)	1.698** (3.47)	-0.158** (-6.98)	-1.170** (-2.70)	0.099** (3.99)
N		904			904	
adj. R ²	.921	.993	0.524	0.715	0.977	0.178
F검정		31.23**			34.99**	
Hausman			632.43**			812.93**

주 : lnLT: 지방세수입의 자연로그값, LTR: 지방세수입비율, lnNS: 순세계잉여금의 자연로그값, NSR: 순세계잉여금비율, lnSSB: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자연로그값, SSBR: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 FAR: 재정자주도, DR: 부채비율, EPR: 고령인구비율, lnUA: 1인당 도시지역 면적의 자연로그값, lnGRDP :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자연로그값, OLS: 최소자승법, FE: 고정효과모형, RE: 개별효과모형, 괄호 안은 t값.

*p<0.05, **p<0.01

[표 4-9] 전국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금비율 회귀모형 추정 결과

종속변수	lnLS			LSR		
	OLS	FE	RE	OLS	FE	RE
lnNS	0.195** (8.00)	-0.025 (-1.88)	-0.003 (-0.24)			
NSR				0.059** (3.20)	0.014 (1.21)	0.016 (1.37)
lnSSB	0.459** (22.01)	0.309** (18.57)	0.363** (25.52)			
SSBR				-0.169** (-9.14)	0.011 (0.62)	0.024 (1.54)
FAR	0.015 (0.11)	-0.256 (-1.65)	-0.113 (-0.83)	-0.282** (-17.77)	0.030 (1.57)	-0.066** (4.13)
DR	1.715* (2.21)	-0.652 (-1.30)	-0.440 (-0.93)	0.145* (1.99)	-0.240* (-2.18)	-0.131* (-2.32)
EPR	-0.634** (-3.61)	0.082 (0.50)	-0.257 (-1.82)	-0.119** (-7.47)	0.025 (1.31)	-0.002 (-0.13)
lnUA	-0.024 (-1.35)	0.090 (1.08)	-0.093** (-2.77)	-0.012** (-6.71)	0.014 (1.42)	-0.015** (-5.26)
lnGRDP	-0.010 (-0.42)	-0.015 (-0.61)	0.004 (0.17)	-0.001 (-0.50)	-0.001 (-0.36)	0.000 (0.09)
상수항	3.730** (13.03)	7.229** (14.46)	7.322** (24.82)	0.361** (21.97)	-0.028 (-0.52)	0.197** (11.35)
N	904			904		
adj. R ²	0.695	0.978	0.473	0.439	0.939	0.096
F검정		37.77**			23.90**	
Hausman			47.12**			40.26**

주 : lnLS: 지방보조금의 자연로그값, LSR: 지방보조금비율, lnNS: 순세계잉여금의 자연로그값, NSR: 순세계잉여금비율, lnSSB: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자연로그값, SSBR: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 FAR: 재정자주도, DR: 부채비율, EPR: 고령인구비율, lnUA: 1인당 도시지역 면적의 자연로그값, lnGRDP : 1인당 지역내총생산의 자연로그값, OLS: 최소자승법, FE: 고정효과모형, RE: 개별효과모형, 괄호 안은 t값,
*p<0.05, **p<0.01

[표 4-10] 전북자치도 지방세수입 및 지방세수입비율 회귀모형 추정 결과

종속변수	lnLT			LTR		
	OLS	FE	RE	OLS	FE	RE
lnNS	0.080* (2.58)	-0.033** (-2.84)	-0.003 (-0.20)			
NSR				0.050 (1.26)	-0.034 (-1.58)	-0.011 (-0.57)
lnSSB	0.684** (25.18)	0.019 (0.96)	0.173** (7.09)			
SSBR				0.327** (11.44)	-0.101** (-3.52)	-0.095** (-4.62)
FAR	-1.936** (-3.71)	0.473* (2.12)	-0.316 (-1.01)	-0.046 (-1.26)	0.086** (3.92)	0.054** (2.71)
lnRT	0.068* (2.54)	0.046 (1.21)	0.008 (0.21)	0.001 (0.71)	0.004 (1.00)	-0.001 (-1.34)
EPR	-7.365** (-20.41)	-2.238** (-2.85)	0.830 (1.19)	-0.543** (-19.34)	0.134 (1.44)	0.039 (1.49)
상수항	4.313** (7.20)	11.595** (20.47)	8.262** (14.67)	0.163** (4.94)	-0.004 (-0.07)	0.049* (1.98)
N	280			280		
adj. R ²	0.913	0.993	0.166	0.806	0.973	0.146
F검정		88.99**			46.14**	
Hausman			24.04**			11.65*

주 : lnLT: 지방세수입의 자연로그값, LTR: 지방세수입비율, lnNS: 순세계잉여금의 자연로그값, NSR: 순세계잉여금비율, lnSSB: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자연로그값, SSBR: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 FAR: 재정자주도, lnRT: 1인당 주민세의 자연로그값, EPR: 고령인구비율, OLS: 최소자승법, FE: 고정효과모형, RE: 개별효과모형, 괄호안은 t값
*p<0.05, **p<0.01

[표 4-11] 전북자치도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금비율 회귀모형 추정 결과

종속변수	lnLS			LSR		
	OLS	FE	RE	OLS	FE	RE
ln순세계잉여금	0.073 (1.92)	-0.046* (-2.26)	-0.038 (-1.91)			
순세계잉여금비율				0.081 (1.60)	0.113* (2.52)	0.102* (2.39)
ln사회보장적수혜금	0.303** (9.12)	-0.193** (-5.82)	-0.155** (-4.82)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				-2.707** (-7.31)	-0.339** (-5.69)	-0.285** (-6.15)
재정자주도	-3.314** (-5.19)	-0.771* (-2.00)	-0.976* (-2.56)	-0.239** (-5.08)	-0.141** (-3.13)	-0.162** (-3.79)
1인당주민세	-0.166** (-5.09)	-0.043 (-0.66)	-0.061 (-1.01)	-0.012** (-4.80)	-0.008 (-0.98)	-0.012* (-2.44)
고령인구비율	-1.832** (-4.15)	-2.074 (-1.53)	-2.000 (-1.76)	-0.152** (-4.18)	-0.440* (-2.29)	-0.183* (-2.31)
상수항	10.927** (14.92)	15.256** (15.57)	14.380** (16.51)	0.437** (10.24)	0.406** (3.87)	0.396** (6.03)
N	280			280		
adj. R ²	0.632	0.942	0.101	0.207	0.714	0.139
F검정		40.67**			13.36**	
Hausman			23.92**			3.65

주 : lnLS: 지방보조금의 자연로그값, LSR: 지방보조금비율, lnNS: 순세계잉여금의 자연로그값, NSR: 순세계잉여금비율, lnSSB: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자연로그값, SSBR: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 FAR: 재정자주도, lnRT: 1인당 주민세의 자연로그값, EPR: 고령인구비율, OLS: 최소자승법, FE: 고정효과모형, RE: 개별효과모형, 괄호안은 t값
*p<0.05, **p<0.01

5. 소결

본 연구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효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재정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자료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비율)과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세입관리 분야 재정효율성의 평가지표인 지방세수입(비율)과 세출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평가지표인 지방보조금(비율)을 종속변수로 삼아 실증분석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부채비율, 고령인구비율, 인당 도시지역 면적, 인당 주민세, 인당 GRDP 등을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합동회귀분석, 고정효과모형 및 확률효과모형 등을 이용한 패널자료분석을 실행하였는데,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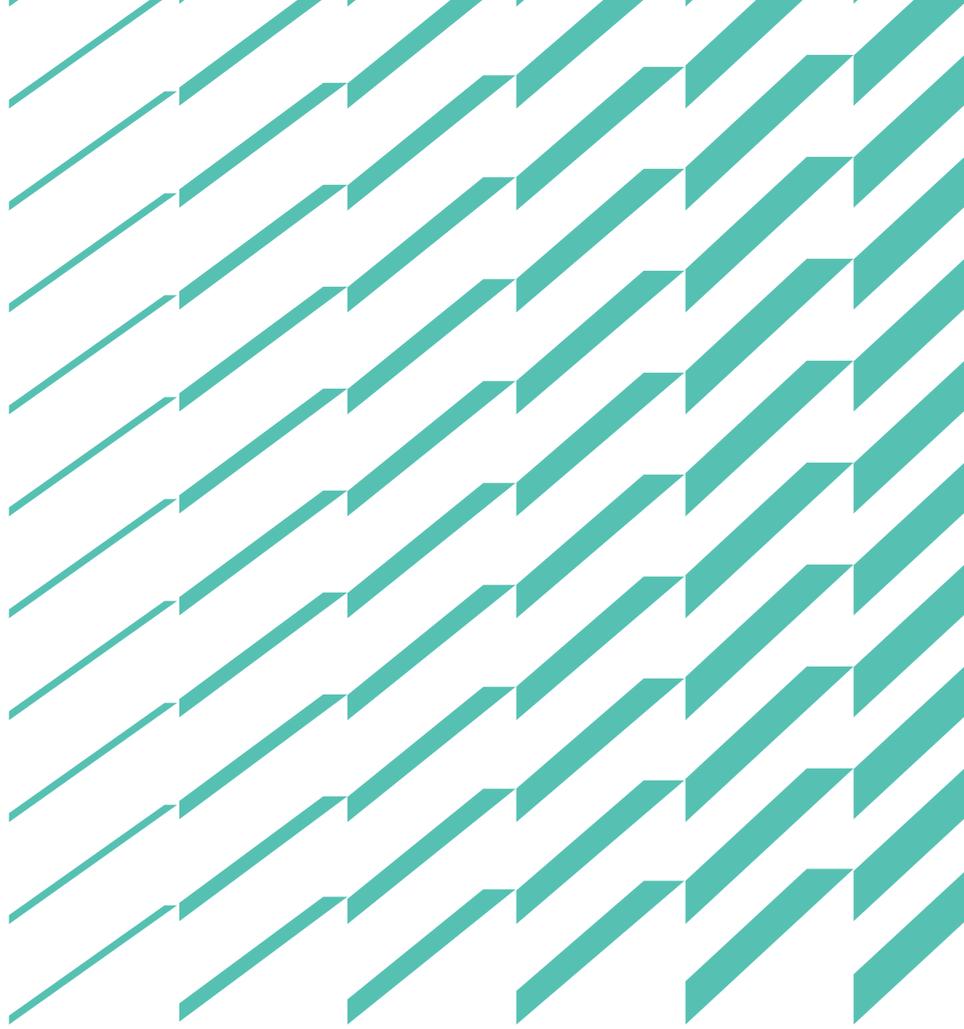
먼저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전북자치도 시군에서 모두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지방세수입을 감소시키고,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순세계잉여금비율과 지방세수입비율 사이에 음(-)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북자치도 시군에서 순세계잉여금비율이 지방보조금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자치도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세입관리 분야의 재정효율성뿐만 아니라 세출관리 분야의 재정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전북자치도 시군에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이 지방세수입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세입관리 분야 재정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지방보조금 간의 관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출관리 분야 재정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전북자치도 시군에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이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금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자치도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세출관리 분야의 재정효율성을 개선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내용상 지방보조금에 해당함에도 별도의 과목으로 계리되나, 사후 평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지방보조금이 아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추진되는 경우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증가가 지방보조금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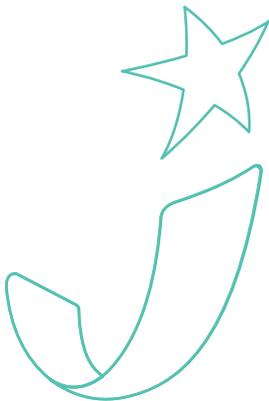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수입 및 지방보조금,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지방세수입 및 지방보조금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재정효율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담론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재정운용 정책과 관련한 실무적 시사점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시군구 유형에 따른 특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현행 사회보장적수혜금과는 차이가 있다. 중앙정부는 명칭과 관련 없이 현금성 복지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편성토록 하여 통합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변경된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적용하여 재정효율성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에는 현행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반영하여 시군구 유형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더욱 타당성 있는 연구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북자치도의 재정운용 효율성 강화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먼저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의 재정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재정규모, 세입·세출결산,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등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재정효율성 추이 및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세입관리 및 세출관리 분야의 재정효율성 수준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 비효율성을 유발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 및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재정효율성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원별 수입을 조사한 결과, 전북자치도 본청의 세부 재원별 수입은 다소 안정적이었으나, 도내 시와 군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등락을 거듭하여 다소 불안정하였다. 재정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재정자립도를 조사한 결과, 전북자치도 본청은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으로 자체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시군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하락, 낮은 지역에서는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전북자치도 본청의 재정자주도는 2020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 기준 재정자주도 역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어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최근 5년간 시의 재정자주도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군의 재정자주도는 계속 상승하여 다소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고, 군의 평균 재정자주도가 시의 평균 재정자주도보다 높았다.

둘째, 세입관리 규모 측면의 효율성 평가지표인 지방세수입비율은 전북자치도 본청에서 2018년 이후 계속하여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2021년 기준 지방세수입비율은 19.5%로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시의 지방세수입비율은 전국 시 평균과 동종 유형의 평균보다 모두 낮아 심각한 수준이었고, 군에서는 완주를 제외한 모든 군이 전국 군 평균보다 낮아 재정효율성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수입비율의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세입관리 징수 측면의 효율성 평가지표인 지방세징수율은 전북자치도 본청이 광역자치단체 중 중위권 수준이었다. 시에서는 남원을 제외한 모든 시가 전국 시

및 유형 평균보다 낮아 부진한 반면, 군에서는 반 이상의 군이 전국 군 평균과 동종 유형의 평균보다 높아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세출관리 측면에서 외부지원관리 분야의 효율성 지표인 지방보조금비율은 전북자치도 본청이 전국 하위권 수준으로 양호하였다. 시단위에서는 약 70%의 시가 유형 평균보다 높아 부진하였고, 군단위에서는 절반의 군이 유형 평균보다 높아 미흡한 수준이었다. 내부경비관리 분야의 재정효율성 평가지표인 자체경비비율은 전북자치도 본청에서 도 평균보다 높아 부진하였고, 대다수의 시와 군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 미흡한 수준이었다.

셋째, 재정운용 효율성과 비효율성의 양면성을 가진 순세계잉여금과 재정효율성 사이의 관련성, 재정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재정효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전북자치도 시군 모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면 지방세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북자치도 시군에서 순세계잉여금비율과 지방보조금비율 간에 정(+)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순세계잉여금의 증가가 세입관리 및 세출관리 측면의 재정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한편 전북자치도 시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비율의 증가가 지방세수입비율의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입관리 분야의 재정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지방보조금 간의 관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출관리 분야의 재정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전북자치도 시군에서는 역으로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특성상 사후 평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을 지방보조금이 아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증가가 지방보조금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순세계잉여금 및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지방세수입 및 지방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재정효율성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담론을 확장하고, 재정효율성을 강화하는 재정운용 정책과 관련한 실무적 시사점이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시군구 유형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고, 변경된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현행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반영하여 시군구 유형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제언

가. 지방재정 효율성과 순세계잉여금 관리 전략

1) 전북자치도형 세수추계 모형 개발 및 자문위원회 구성

첫째, 정교한 세수추계를 통한 잉여재원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연례적 발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여유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를 과소추계할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배상석, 2013). 또한 과소추계로 인한 초과세수는 재정지출의 확대에 이어짐에 따라 재정지출의 비대화와 재정수지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심혜정, 2015) 수지 불균형이 심화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세수추계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를 조사 및 이용하여 기존 추계모형을 고도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자체 추계모형의 개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한재명, 2022).

둘째,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세수추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세수추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매년 행정안전부의 세수추계 프로그램, 자체세입 분석 모형,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전망치, 시군 세수추계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망된 다음 연도 세수 전망치를 두고 담당 공무원, 도의원, 한국은행 지역담당자, 부동산 관련 기관,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최종 세수추계를 확정하여 세수추계의 오차를 축소하고 있다(이상훈 & 김병남, 2022).

2) 중장기적인 재정운용 전략 수립 및 연례적인 재정관리분석제도 도입

첫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 세입에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하려는 제도적 관행에서 벗어나야 예산의 비효율성을 억제할 수 있다(이현우, 2012; 류춘호, 2019). 따라서 장기적인 재정운용 전략의 수립을 통해 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세입·세출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재정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정효율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이다(이미애 외, 2015).

둘째, 연례적인 재정 진단 및 관리 분석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재정 분석」이 전년도 결산 결과를 제공하고 있어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환경,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가 때문이다(민기 외, 2021).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조례」를 제정하고, 매년 재정지표 및 여건을 분석하여 세입·세출 분야의 재정운용 방향 설정을 통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예산의 이월률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3)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의 관리 강화

불용에 의한 이월액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관리자가 재량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을 통한 이월액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존재한다(이서희, 2020).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미집행,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거나 행정절차 미이행 혹은 사업 포기, 계획변경에 등에 따른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불용액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따라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의 집행 단계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사업의 성과평가 단계에서는 사업의 불용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예산의 집행률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사업 평가 제도를 활용하여 당해연도의 성과가 다음 연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성주 & 전성만, 2020). 실제로 파주시, 영주시, 시흥시, 영산시 등은 외부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집행 단계와 성과평가 단계에서 불용률을 관리하고 있다.

나. 지방재정 효율성과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리 전략

1) 국가 차원의 관리 전략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현금 성격을 가지는 수혜금이기에 현금성 복지 지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전성만 외(2022)는 비용부담의 주체와 급여 형태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현금 형태로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수당(영역 I),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현금 형태로 지급하는 국가 차원의 사회수당(영역 II),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현금과 현물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영역 III, 지방보조금 사업),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현금과 현물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 사회보장(영역 IV,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구분하여 최근 5년간(2017~2021년)의 현금성 복지 사업 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영역 I에서 IV를 포괄하는 전체 영역에서 현금성 복지 사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52%,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사업인 영역 I의 현금성 복지 사업 규모의 동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39%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연구진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현금성 복지 사업(영역 I)에 대해서 중앙부처 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혹은 현금성 복지 사업을 관리하는 위원회 신설, 예산편성 한도액 설정, 사회보장위원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2021년 기준 추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현금성 복지 사업 규모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집행에서 약 21.5%이고, 자체재원의 현금성 복지 사업 규모는 약 2.6% 수준이다. 따라서 중앙-지방자치단체가 현금성으로 제공하는 복지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현금성 복지 사업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자율적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재원의 배분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지방정부와 자원배분의 절차와 방식에 대한 사전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신설이나 변경 등은 모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한 재원의 의무부담분에 대해서만 강제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재정여건이 여의찮음에도 중앙정부가 정한 재원의 부담비율을 의무적으로 분담하고 있어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증가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재원의 배분비율을 계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재정격차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지원액에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북자치도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재원인 국고보조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율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자율성이 요구되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 형태로 보조금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전북자치도가 자율적으로 해당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전북자치도 차원의 관리 전략

첫째,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복수급을 막기 위한 이력 및 정보관리가 필요하다. 김성주 외(2018)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회보장적수혜금 대한 별도의 이력관리를 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34.3%,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45.5%로 이력관리를 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았다. 또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의 수혜자에 대해 정보관리를 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45.7%,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33.7%로 나타났다. 아울러 64.6%가 이력관리 및 정보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력관리 및 수혜자 정보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선심성 행정 혹은 재정낭비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4년 도입된 합의제 감사기구인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에 대한 감사 기능의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주택과 등이 집행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전액 자체사업으로 진행한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부적정, 효행장려금 및 사회활동장려금 지급 부적정, 출산축하금 지급 부적정을 들어 시정을 요구하였고, 환수 조치를 권고하였다.

참 고 문 헌

REFERENCE

- 강황목 & 남창우. (2020). 재정분권이 지역 간 소득격차와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도시행정학보* 33(4), 169-190.
- 교부세 패널티 대상 현금성 복지 범위 불명확? 사실 아냐. (2023.03.09.). 행정안전부.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12567&call_from=naver_news
- 금재덕, 차주현 & 노승용. (2012). 지방재정 자율성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8(3), 297-321.
- 김성주. (2015). 신설·변경 사회복지사업의 모니터링 방안 마련. 한국지방재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성주, 윤태섭, 홍근석, 이지은 & 김미나. (2018).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개선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성주 & 전성만. (2020). 지방자치단체의 불용액 실태 분석 및 관리체계 개선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재훈, 금재덕 & 김석민. (2023).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 결정요인: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운영경비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28(1), 79-112.
- 김진. (2021). 지방 여유 재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조직적, 재정적,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보* 30(4), 195-231.
- 김진욱, 김진태 & 김홍환. (2018). 지방세외수입 효율의 결정방안: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 류춘호. (2019).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 분석과 현황. *지방재정* 6, 8-53.
- 민기, 박철민 & 홍주미. (2021).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제주지방자치학회.
- 민기 & 백상규. (2016).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재정정책논집* 18(4), 93-120.
- 배상석. (2013).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입추계오차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2(1), 361-387.
- 배인명. (2020).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효과분석. *지방행정연구* 34(3),

103-130.

- 신가희 & 박성문. (2021).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서울시 재정운영 전략. 서울연구원.
- 신유호 & 최정우. (2013). 지방자치단체 재정압박이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3), 65-94.
- 유갑열 & 이장희. (2018).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교정부학보 22(2), 133-163.
- 이미애, 이현우 & 홍윤미. (2015). 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과 재정 효율성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8(4). 481-502
- 이미애. (2020).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분야 정책방향. 인천연구원.
- 이삼주 & 윤태섭. (2016). 지방보조금 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상훈 & 김병남. (2022). 충청남도 도세 세수추계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 이서희. (2020). 지방정부 순세계잉여금이 추가경정예산 규모 확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Niskanen 수정 재량 예산 극대화론을 중심으로. 정부회계연구 18(2), 77-112.
- 이현우. (2012). 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및 활용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임성일 & 이효. (2014). 지방재정의 순세계잉여금 영향요인: 예산회계 관점을 중심으로. 정부회계연구 12(2), 1-25.
- 정도효, 이영규 & 정성영. (2018).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적용이 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방정부연구 22(3), 415-443.
- 조기현. (2017). 지방자치단체 재정역량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 학술대회 발표논문.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https://www.lofin365.go.kr>).
- 진성만, 김진 & 유자영. (2022).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복지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 2017~2021년 세부 사업별 지출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6(3), 37-61.
- 차주현. (2011). 재정분권이 지방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한국행정학회 45(4), 117-150.
- 최용선. (2016). 인구고령화가 충청남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충남연구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FY202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 한재명. (2022). 지방세 세수추계 개선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행정안전부. (2003~2022). 지방세외수입통계연감.
- 행정안전부. (2003~2022). 지방세통계연감.

행정안전부. (2003~2022). 지방재정연감.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Wooldridge, J. M. (2002).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2nd ed., The MIT Press.

SUMMARY

A Study on the Analysis of Fiscal Management Efficiency in Jeonbuk State

Euncheon Jeong · Jung-Seb Lee · Ahram Jeon · Jihoon Choi

1. Study Objectives and Method

■ Background and Purpose

- Tax revenues in Jeonbuk State are shrinking due to the aging of its working-age members of society and the gradual decline in its overall population. At the same time, expenses are growing because of the need to support the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citizens through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gether, these factors are increasing the fiscal burden on local governments and creating fiscal uncertainty.
- Jeonbuk State's low birthrate and aging population have diminished the revenue base, thereby increasing the fiscal burden of and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their own projects in response to local administrative nee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maximize fiscal efficiency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Jeonbuk's finances.
- This study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o strengthen Jeonbuk State's fiscal management efficiency. To do so, the study draws from a survey of the fiscal efficiency status of the Jeonbuk Provincial Office and 14 municipalities of Jeonbuk State and an empirical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The study's implications will inform decisions on the direction of Jeonbuk State's fiscal policy.

■ Scope and Methods

- The first aim of the study is to identify Jeonbuk State's fiscal conditions by analyzing the finances of the Jeonbuk Provincial Office and 14 municipalities. The second aim is to diagnose the level of fiscal efficiency and problems by analyzing the trend and status of fiscal efficiency. The third aim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fiscal efficiency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the fourth is to draw implications related to policy measures to strengthen fiscal efficiency.
- Regarding research methodology, the analysis of fiscal management efficiency utilizes a literature review and internal data of Jeonbuk State for analytic domains requiring raw data. The empirical analysis of fiscal efficiency, however, uses panel regression models to analyze the causality between fiscal efficiency and each variable.

2.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

■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e financial status survey show that while Jeonbuk Provincial Office's revenue by source was somewhat stable, municipalities' revenues by source were somewhat unstable. The financial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the provincial office were the lowest among the metropolitan governments of Korea, indicating an urgent need to expand its own revenue sources.
- The fiscal management efficiency trends and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provincial office's local tax revenue ratio was the second lowest after that of Jeonnam State, and the majority of municipalities were below both the national average and the average for the same type of municipality. This suggests the need to improve the local tax revenue ratio to strengthen financial efficiency in tax revenue management and to reduce the local subsidy ratio to improve efficiency in tax expenditure management.

-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fiscal management efficiency show that a net budget surplus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reduce the local tax revenue (ratio), an indicator of fiscal efficiency in tax revenue management. At the same time, depending on what is analyzed, they can either increase or decrease local subsidies (ratio), an indicator of fiscal efficiency in tax expenditure management.

■ Policy Recommendations

- Curbing the inefficiency of local finances due to excessive generation of net surplus requires the following. First, revenue forecasting models specific to the Jeonbuk state must be developed to improve the in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by reducing the size of the surplus. At the same time, an advisory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to finalize revenue estimation. Second, a fiscal management strategy must be developed to solve the surplus problem from a medium- to long-term perspective, and annual fiscal management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Third, the inspection and monitoring of programs that generate excessive surplus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o curb the increase in carryover due to unutilization.
- The following needs to be considered to mitigate the decline in fiscal management efficiency due to the increase in social security benefits. First, the subsidy rate support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reflect differences in the amount of subsidy support between regions. Second, a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manage social security benefits systematically at the state level. Third, the audi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the Audit Committee, a consensus-based audit body.

Key Words

Local fiscal management, Net budget surplus, Social security benefits

기초연구 2024-01

전북특별자치도 재정효율성 분석 연구

발행인 | 이 남 호

발행일 | 2024년 2월 29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515-9 9532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4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한계기업의 현황과 과제
전북특별자치도 물 수요량 분석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활성화 방향 기초연구

미래전략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방안 연구
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 전략 연구
「태조 이성계」 지역 대표 자산화 방안 연구

기획연구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헴프) 산업 육성 전략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전북자치도 디지털대전환 여건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기획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육성 전략 연구

정책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고도화 전략 연구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연구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활성화방안 연구
전북형 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도입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계절근로자제 관리 모델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 사업화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인구 확대방안 연구: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북 특화 관광자원개발 연구
전북자치도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전략수립 연구
프로스포츠클럽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지역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발전 방안

현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의 효과적 활용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정책 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 구상
새만금 산단 전력인프라 구축 대응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활동 현황조사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해외도시간 협력관계 구축 방안
건축물 대지의 조경 관리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무인이동체산업 육성 방향

 **Jthink** 전북연구원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말쭈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